



#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방안 연구

#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방안 연구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수행한 조사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사)한국언론학회

책임연구원 : 최영재(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송현주(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 주성화(한림대 대학원 박사과정)

한정현(한림대 대학원 석사과정)



# 목 차

## 요약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3
가. 연구의 목적 .....	13
나. 연구의 필요성 .....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	17
가. 연구내용 .....	17
나. 연구방법 .....	18
다.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	19
라. 노인 수용자 및 노인 미디어 제작자 심층인터뷰 .....	20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0
가. 기대효과 .....	20
나. 활용방안 .....	21

## II 노령사회와 미디어

1. 노령사회와 미디어 사례 연구 .....	23
가. 미디어의 노인재현 사례 .....	23
나.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사례 .....	29
다. 노인복지와 미디어 정책 사례 .....	32
2. 외국의 노인 채널 사례분석: 미국의 'Retirement Living TV' .....	34
가. RLTV 개요 .....	35

1) 채널 소개 .....	35
2) 설립자 존 에릭슨(John C. Erickson) .....	35
3) RLTV 설립의 사회적 배경, 설립 취지와 운영 목표 .....	35
4) RLTV 운영 현황 .....	36
5) 주요 프로그램 .....	36
나. RLTV 편성 분석 .....	39
1) 프로그램 빈도 분석 .....	39
2) 시간대 별 프로그램 주제 .....	41
3. 요약: 노령사회와 미디어 연구 및 정책 사례 .....	43
1) 미디어의 노인 편견과 고정관념 .....	43
2)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 .....	44
3)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	44
4) 미국의 RLTV 사례 .....	46

### Ⅲ 미디어의 노인 재현의 문제

1. 미디어속의 노인 내용분석 .....	47
가. 연구 문제: 미디어의 노인, 노인 문제의 재현 .....	47
나. 연구방법1: 내용분석 .....	48
1) 조사대상 .....	48
2) 분석유목 .....	49
3) 변인측정 .....	49
다. 연구방법2: 심층인터뷰 .....	50
2. 다양한 미디어속의 노인 .....	51
가. 미디어의 노인 문제 재현 .....	51
1) 노인 문제의 주제 .....	51
2) 노인 재현 태도 .....	53
나. 미디어의 노인 정체성 재현 .....	54

1) 노인 몸의 재현 .....	55
2) 노인 심리의 재현 .....	56
3) 노인정서의 재현 .....	57
다. 미디어의 노인 사회상황 재현 .....	58
1) 노인 가족 상황 묘사 .....	58
2) 노인 사회관계 묘사 .....	59
3) 노인 활동과 능력 표현 .....	60
라. 노인 재현을 위한 미디어 제작 과정 .....	62
3. 노인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 .....	69
가. 노인 프로그램 현황 .....	69
1) KBS 1TV <언제나 청춘> .....	69
2) MBC TV <늘 푸른 인생> .....	70
3) MBC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 .....	71
4) SBS TV <백세 건강 스페셜> .....	71
나. 노인 프로그램의 노인 문제 재현 .....	72
다. 노인 프로그램의 노인 정체성 재현 .....	74
라. 노인 프로그램의 노인 사회상황 재현 .....	77
마. 노인프로그램의 노인 재현과정 .....	79
4. 노인전문 채널 ‘실버TV’ 분석 .....	82
가. 실버TV 개요 .....	82
1) 실버TV 소개 .....	83
2) 실버TV 주요 프로그램 .....	84
나. 실버TV 편성 분석 .....	84
1) 프로그램 빈도 분석 .....	84
2) 시간대 별 프로그램 주제 .....	87
5. 노인 프로그램 제작자 심층 인터뷰 .....	88
가.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인터뷰 방식 .....	88
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	89

1)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	89
2) 노인 프로그램의 제작 여건 .....	90
3) 해결 방안 .....	93
6. 요약: 미디어속의 노인, 미디어의 역할 .....	94
가. 매체의 성격에 따른 노인재현의 차이 .....	94
나. 노인 대상 지상파 프로그램의 문제 .....	94
다. 노인전문 채널 ‘실버TV’ 분석 .....	95
라. 노인 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심층 인터뷰 .....	95

#### **IV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문제**

1. 연구문제: 미디어 이용과 노인복지 .....	97
가.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파악 및 문제 .....	97
나. 연구방법: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및 심층인터뷰 .....	97
1) 서베이 .....	97
2) 노인 심층인터뷰 .....	100
2.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	100
가. 매체별 이용 현황과 경향 .....	100
1) TV 의존 현상 .....	100
2) 신문과 인터넷 이용의 “70세 세대차” 현상 .....	101
3) 신문은 정치 경제, TV는 뉴스 드라마 .....	105
4) 채널 레퍼토리: 지상파 지배적 .....	106
5) 노인 대상 프로그램 시청률 저조 .....	108
나. 노령층의 TV시청 동기, 태도, 행위 .....	110
1) TV 시청 동기 .....	110
2) TV 시청 태도와 시청량 .....	110
다. 노인복지와 미디어 이용 .....	112
1) 노인복지: 성공적인 노년 인생 .....	112

2) 성공적 노년 삶과 미디어 이용 .....	113
3) TV시청 습관과 성공적 노년의 삶 .....	113
3. 노인 시청자 심층 인터뷰 결과 .....	115
가.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인터뷰 방식 .....	115
1)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인터뷰 방식 .....	115
2)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	115
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	116
1) 텔레비전 중심의 미디어 이용 .....	116
2) 오전과 저녁으로 고정된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 .....	117
3) 주 시청 프로그램은 뉴스와 드라마, 토크쇼, 가요 프로그램 .....	118
4) 오락과 정보추구, 시간 보내기의 시청 동기 .....	118
5)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노인에 대한 평가 .....	120
6) 부모-자식 간의 갈등에 대한 상반된 평가 .....	121
7) 황혼재혼에 대한 엇갈린 평가 .....	122
8) 필요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	123
3. 요약: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과 노인 복지 .....	125
가.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특성 몇 가지 .....	125
나. 노령층의 텔레비전 이용 특성 발견 .....	126
다. 성공적인 노년의 삶과 미디어 이용의 연관성 .....	127
라. 노인의 TV 이용과 평가: 심층인터뷰 .....	127

## **V** 결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1. 연구 요약 .....	130
가.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아이디어 및 사례 .....	130
나.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현황 .....	132
다.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노인 복지 .....	134
2.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	139

가. 노인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139
1) 문제: 노령화로 수요 증대, 공급 열악 .....	139
2) 방안: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적 지원 정책 .....	139
나. 노인의 미디어 이용 교육 .....	140
1) 문제: TV의존, 정보격차 현상 .....	140
2) 방안: 이용자 교육, 정보격차 해소 정책 .....	140
다. 노인전문 채널 정책 방안 .....	141
1) 문제: 열악한 초기 단계 .....	141
2) 방안: 공적 지원 및 노인방송 전문성 확보 .....	143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143

## 참 고 문 헌

..... 145

## 부 록

부록A. 내용분석 Code Book/ Protocol .....	157
부록B. 서베이 문항 .....	170
부록C. 노인 시청자 심층인터뷰 녹취록 .....	177
부록D. 노인 프로그램 제작 전문가 심층인터뷰 녹취록 .....	214
부록E. 실버TV 편성표 .....	224
부록F. RLTV 편성표 .....	231

# 표 목 차

<표 2-1> RLTV 프로그램의 주제 .....	40
<표 2-2> RLTV의 본방송/재방송 비율 .....	41
<표 2-3> RLTV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주제 분포 .....	42
<표 2-4> RLTV의 주중/주말 프로그램 주제 분포 .....	43
<표 3-1> 매체별 노인 주제의 차이 .....	52
<표 3-2> 매체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	53
<표 3-3> 매체별 노인 묘사의 차이 .....	55
<표 3-4> 매체별 노인의 심리 묘사 차이 .....	56
<표 3-5> 매체별 노인의 감정 묘사 차이 .....	57
<표 3-6> 매체별 노인의 가족 묘사의 차이 .....	59
<표 3-7> 매체별 노인의 사회관계 묘사 차이 .....	60
<표 3-8> 매체별 노인의 경제상황 묘사차이 .....	60
<표 3-9> 매체별 노인의 활동 표현 차이 .....	61
<표 3-10> 매체별 노인의 능력 묘사 차이 .....	61
<표 3-11> 매체별 노인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 .....	62
<표 3-12> 매체별 노인 묘사에 있어서 주인공의 차이 .....	64
<표 3-13> 매체별 노인의 신체부위 묘사의 차이 .....	65
<표 3-14> 방송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노인의 걸모습(1) .....	66
<표 3-15> 방송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노인의 걸모습(2) .....	67
<표 3-16> 노인대상 TV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외모) .....	67
<표 3-17> 노인대상 TV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의복) .....	68
<표 3-18> 노인대상 TV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행동) .....	68
<표 3-19> 프로그램별 노인 주제의 차이 .....	72
<표 3-20> 프로그램 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	73
<표 3-21> 프로그램별 노인 신체 묘사의 차이 .....	75

<표 3-22> 프로그램별 노인 심리 묘사의 차이 .....	75
<표 3-23> 프로그램별 노인 감정 묘사의 차이 .....	76
<표 3-24> 프로그램별 노인 가족 묘사의 차이 .....	77
<표 3-25> 프로그램별 노인 사회관계 묘사의 차이 .....	78
<표 3-26> 프로그램별 노인 경제상황 묘사의 차이 .....	78
<표 3-27> 프로그램별 노인의 활동 표현 차이 .....	78
<표 3-28> 프로그램별 노인의 능력묘사 차이 .....	79
<표 3-29> 프로그램별 노인 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1 .....	80
<표 3-30> 프로그램별 노인 묘사에 있어 주인공의 차이 .....	81
<표 3-31> 프로그램별 재현 과정에 있어 전개방식 .....	81
<표 3-32> 프로그램별 노인 신체부위 묘사의 차이 .....	82
<표 3-33> 실버TV 프로그램의 주제 .....	85
<표 3-34> 실버TV의 본방송/재방송 비율 .....	86
<표 3-35> 실버TV의 프로그램 당 방영 시간 .....	86
<표 3-36> 실버TV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주제 분포 .....	87
<표 3-37> 실버TV의 주중/주말 프로그램 주제 분포 .....	88
<표 3-38>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	89
<표 4-1> 서베이 표본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분포 .....	98
<표 4-2> 연령층의 하루 평균 매체별 이용 시간 .....	101
<표 4-3> 연령별 신문 열독/비열독률 .....	102
<표 4-4>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유무 .....	103
<표 4-5> 연령대별 휴대폰 사용 유무 .....	104
<표 4-6> 채널 레퍼토리 .....	106
<표 4-7> 거주 지역에 따른 채널 레퍼토리 .....	106
<표 4-8> 학력 집단에 따른 채널 레퍼토리 .....	107
<표 4-9> 노인대상 프로그램 시청률 (최근 한달간 1회 이상 시청 경우) .....	109
<표 4-10> 시청동기 요인분석 .....	110
<표 4-11> 시청동기와 시청태도의 상관관계 .....	111

<표 4-12> 시청 동기에 따른 TV시청 시간의 차이 .....	112
<표 4-13> 노년인생 성공/비성공 집단 군집 분석 .....	112
<표 4-14> 노년인생 성공 여부에 따른 미디어 이용 .....	113
<표 4-15> 노년 인생 성공 여부와 텔레비전 시청 동기의 차이 .....	114
<표 4-16> 노년 인생 성공 여부와 시청태도의 차이 .....	114
<표 4-17>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	116
<표 5-1> 실버TV와 RLTV의 프로그램 주제 비교 .....	142
<표 5-2> 실버TV와 RLTV의 본방/재방 비율 비교 .....	142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16
<그림 2-1> RLTV 프로그램 주제별 빈도수 .....	40
<그림 3-1> 매체별 노인 주제의 차이 .....	52
<그림 3-2> 매체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	54
<그림 3-3> 매체별 노인의 감정 묘사 차이 .....	58
<그림 3-4> 매체별 노인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 .....	63
<그림 3-5> KBS1 언제나 청춘 .....	69
<그림 3-6> MBC 늘 푸른 인생 .....	70
<그림 3-7> MBC 고향은 지금 .....	71
<그림 3-8> 백세 건강 스페셜 .....	71
<그림 3-9> 프로그램별 노인 주제의 차이 .....	73
<그림 3-10> 프로그램 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	74
<그림 3-11> 프로그램별 노인 감정 묘사의 차이 .....	76
<그림 3-12> 프로그램별 노인 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1 .....	80
<그림 3-13> 실버TV 프로그램 주제별 빈도수 .....	86
<그림 4-1> 노령층의 매체별 이용 현황 .....	101
<그림 4-2> 연령별 신문 열독/비열독률 .....	102
<그림 4-3>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 유무 .....	103
<그림 4-4> 연령대별 휴대폰 사용 유무 .....	104
<그림 4-5> 신문 열독 노인들의 열독 분야 분포 .....	105
<그림 4-6> TV시청 노인들의 시청 분야 분포 .....	105
<그림 4-7> 채널별 시청률 (일주일동안 20분 이상 시청한 채널) .....	106
<그림 4-8>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연령대별) .....	109

# 요 약 문

## <조사연구 결과 요약>

### 가.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아이디어 및 사례

#### # 노인복지와 미디어 정책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을 위한 사적인 지원은 도구적 지원·정서적 지원·정보지원으로 분류된다. (Antonucci, 1990; Weinberger, Hiner, and Tierney, 1987). 도구적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호의적이고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하며, 정보지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적 지원은 심리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분야에 해당될 것이다. 노년층이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 통신 등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노인 미디어 정책의 목표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 복지를 위한 미디어 역할은 첫째, 미디어가 노령층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미디어가 얼마나 노령층의 정서적 삶에 보탬이 되고, 둘째, 미디어가 노령층과 얼마나 소통하고 또 노령층간의 소통을 얼마나 잘 도와서 노령층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 미디어 정책은 특히 노령층의, 노령층내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 텔레비전의 비중과 역할론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인 복지에서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Ofcom의 2008년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의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은 301분으로 라디오의 184분, 인터넷의 90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없으면 가장 아쉬워할 미디어 이용은 TV시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5 - 74세 노인층에서는 69%, 7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77%로 나타나, 성인 전체의 5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노인층은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TV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약 70%의 노령층의 텔레비전 시청을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레저라고 꼽았고, 노인 인구 80% 이상이 텔레비전을 가장 재미있고 편안한 매체로 생각하고 있다.

#### # 노인을 위한 텔레비전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층의 TV 의존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TV 서비스는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디지털화로 채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무수히 등장한 전문 채널 중에서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TV 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청장년층에 비해 구매력이 낮은 노인층은 목표 시청자로서의 매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의 비중 또한 점차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시급한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노인의 빈곤, 건강 문제 등에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관해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정책적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노인을 위한 특화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겨냥한 극소수 전문 채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실버TV라는 노인 전문 채널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선진국 사례로는 미국의 Retirement Living TV (RLTV)를 들 수 있다. RLTV의 경우 실버TV와 그 방송 지표나 이념, 채널 운영 방식 등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 미국 RLTV의 사례

미국의 RLTV는 미국 전후 세대(Baby Boomer)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주류 미디어 산업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자 일종의 대안 채널로서 등장했다. 이 채널은 노인 문제, 특히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LTV는 삶의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고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하는데 매체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노인 관련 단체(예: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전미은퇴자협회), 공공기관 등과 제휴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공공 캠페인을 전개해, 노인을 위한 시민 저널리즘, 옹호 저널리즘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채널은 노인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 **나.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현황**

#### # 매체의 성격에 따른 노인재현의 차이

매체에 따라 노인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제가 달랐다. 또한 노인문제를 재현하는 태도도 달랐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저널리즘 장르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노인 정책, 건강 등과 같은 실용적인 정책을 주로 다룬 반면, TV 교양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의 가정사나 노인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환경, 여가생활 등 노인의 일상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매체별로 노인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는 신문과 인터넷클럽은 노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 반면, 텔레비전 뉴스는 사건 기사 위주여서인지 부정적 태도가 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TV교양 프로그램은 노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 # 노인 대상 지상파 프로그램의 문제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TV화면 속의 노인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모습이고, 설령 지팡이나 의

자에 의지하는 등 조금 불편해 보인다 해도 나이에 비하면 건강하고 젊다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노년이 자주 출연하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행복한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 노인전문 채널 ‘실버TV’ 분석

2005년 개국한 노인전문채널 ‘실버 TV’는 노년층 및 소외계층의 방송주권 실현,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세대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노년층의 사회참여로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방송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채널의 편성 비중은 오락 (31.5%), 노인문제 해결 (14.2%) 순이고, 노인의 취업 문제 (7.6%), 건강문제 (5.6%)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화제를 모았던 ‘소외극복 프로젝트 - 황혼재혼’ 등 차별화된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은 이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시청률이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버TV의 편성에서 본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은 64.5% 대 35.5%여서 제작비 과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 노인 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심층 인터뷰

노인프로그램 제작, 편성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노인방송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문화방송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목표 수용자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층의 시청률이 증가하면서 아예 노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 노인프로그램 공급 여건 열악: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노인 프로그램

을 제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편성, 제작 실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과 노인층의 구매력 부족에 따른 광고 문제, 이와 연관된 제작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공영방송 역할론: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KBS와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문화방송과 민방은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 프로그램을 확대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KBS1과 같이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공영방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노인전문채널 역할론: KBS1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만으로는 노인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급할 수없이 때문에, 노인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KBS1도 그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의 시청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다.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노인 복지**

#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특성 몇 가지

서베이 조사 결과,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TV의존 현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의 매체별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노령층의 모든 연령층이 텔레비전을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문을 이용은 전체 조사대상 노령인구의 25%, 인터넷 이용은 11%,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하는 노령층은 52%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신문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노령층내 세대차 현상이 발견됐는데, 가령, 신문의 열독률은 65세에서 69세의 연령대가 4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70대로 가면 20%, 그리고 80대에는 10%로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층

의 신문 열독률이 젊은 층에 비해 오히려 높은 미국의 사례와 비교된다. 이것은 미국의 노령층에 비해 우리나라 노령층 인구가 젊은 시절 당면했던 취약한 경제 여건과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내 세대차는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65세대 연령대의 23%가 인터넷 이용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그 이후 세대로 가면, 한자리수의 이용률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령층의 선호 장르는 경성 뉴스와 TV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장르는 신문의 경우는 정치, 경제와 같은 경성 뉴스, 텔레비전의 경우는 뉴스와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 # 노령층의 텔레비전 이용 특성 발견

첫째, 노령층은 텔레비전 의존 현상을 보이면서도 정작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노령층의 시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4개와 실버 TV의 대표 프로그램 2개의 평균 시청률은 24%로 비교적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번 이상 보는 노령층 인구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의 시청률은 41%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층의 KBS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노인 전문 채널인 실버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의 한 달 단위 시청률은 14% 정도로 나타나 노인 채널이 노령층 집단들에게 상시적으로 애용되는 채널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자의 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둘째, 노령층의 시청동기와 시청태도간의 상관관계는 선택적 시청태도를 가진 집단일수록 정보 추구 점수가 높았고, 반면에 습관적 시청을 할수록 사회욕구 동기와 시간소비 동기 점수가 높았다. 노령층에 특이한 현상은 텔레비전을 일상적으로 틀어 놓고 사는 '일상적 시청'은 정보추구 동기든 또는 시간소비 동기든 전반적으로 동기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특별한 동기 없는 일상적 텔레비전 켜놓기 습관은 노령층의 외로움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추후 세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 #성공적인 노년의 삶과 미디어 이용의 연관성

미디어 이용과 노인복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정신적인 고독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신체 건강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과 ‘비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으로 분류했다. 군집분석 결과, 외롭지 않고 돈이 부족한 편이 아니고, 몸이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공집단’ 279명과 외롭고, 돈이 부족하고 몸도 허약한 ‘비성공집단’ 337명으로 나뉘어 졌다.

성공 집단의 경우는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확실히 많았으며, 핸드폰도 자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성공 집단에 비해 비성공 집단이 오히려 더 많았다.

텔레비전 시청 동기에 있어서도 비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사회욕구와 시간소비 동기에 의해, 즉 재미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청태도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이가 보였다. 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선택적인 시청태도가 많았고, 비성공적 노년 집단은 습관적 시청에서 더욱 많았다.

#### # 노인들이 말하는 TV 이용과 평가

○ 텔레비전이 중심매체: 서베이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우선, 노인들은 인터뷰에서 텔레비전 중심의 미디어 이용 현상을 증언하였다. 주 시청 시간대는 오전과 저녁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복지학에서 분류하는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뉘었을 때,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집단들은 비성공 집단에 비해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았고, 텔레비전 시청도 능동적인 선택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너는 내운명’과 같은 저녁 가족 드라마, 9시 뉴스, ‘가요무대’나 ‘전국노래자랑’ 같은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침에 하는 ‘TV소셜’ 드라마, ‘아침마당’이나 ‘6시 내고향’과 같은 중장년층 대상의 정보 토크쇼,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중

장년 상대 가요 프로그램 등이 시청 목록에 추가되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미니 시리즈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그 시청의 빈도나 정기성이 상당히 낮았다.

o 텔레비전속의 노인과 정체성 공감: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노인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드라마속 노인의 배역이나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서 독거노인, 질병이나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이 묘사될 경우, 자신의 현재나 미래 모습을 투영하여 공감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공감하거나 특히 서글픔을 느끼는 정도가 컸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 노인이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노인에게서는 부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종의 역할 모델로 삼아, 그들의 삶의 자세나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o 부모-자식간의 갈등에 관심: 인터뷰 대상자들이 시청 중 감정이입을 가장 크게 느끼는 대상은 텔레비전에 드라마 속의 부모-자식 간의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갈등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반됐다. 먼저 드라마속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러움과는 별개로 부모-자식 간의 갈등, 특히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기대로 이어졌다. 즉 최소한 텔레비전에서만이라도 부모-자식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o 황혼재혼에 대한 상반된 반응: 노인 시청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실버 TV의 황혼재혼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예외적으로 황혼재혼에 대해서 '부럽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으며,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인터뷰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인터뷰 과

정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했던 경우였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은 황혼재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롭다고 평가했지만, 자신의 일로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프로그램의 오락적 수요: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과 같이 오락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진한 향수를 내비쳤다. 즉 자신들이 잘 아는 탤런트들이 등장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스토리가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에 관해서 과거 지향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한 규범과 결합되어 있었다. 단순히 과거의 스타가 등장하면 더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드라마가 부정적인 반면 과거의 드라마는 건전하고 긍정적이었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 프로그램의 정보적 수요: 인터뷰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로는 의외로 건강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응답도 많았지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 두 번째로, 경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노인에게 특화된 경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재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두 번째와 연관된 것으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 가. 노인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1) 문제: 노령화로 수요 증대, 공급 열악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사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광고수익 중심의 방송 시장에서 노령층을 만족시켜줄만한 프로그램은 태부족이다. 지상파들은 한두 개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그나마 대부분 노인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재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과 위성의 노인 전문 채널이 있지만 아직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열악한 제작환경에 놓여 있다.

#### 2) 방안: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적 지원 정책

미국 등 선진국처럼 노령층의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노인프로그램이 시장을 통하여 성공하고 번성하여 노인의 미디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무리이다. 우선은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 노인 프로그램의 소외현상을 해소할 공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방송의 공적 예산이랄 수 있는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노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관한한 노인층은 소외계층임에 틀림없고, 앞으로는 이런 노인 소외계층이 다수가 되는 노령사회,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과 맞물려서 노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KBS 역할론을 주장할 수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프로그램에 관한 공영방송의 역할처럼, 노인 프로그램에 관한 공영방송인 KBS는 상당부분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사영방송의 경우는 시장 논리에 따라 방송을 편성 운영한다하더라도 여전히

방송의 공적 기능 역할 차원에서 노인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원 보전을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방송사들의 노인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거주 시 시청자간 미디어 복지 균형 차원에서도 실현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상파 이외에 노인 전문채널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 **나. 노인의 미디어 이용 교육**

### **1) 문제: TV의존, 정보격차 현상**

급속도로 고령 인구로 편입된 현재의 노령층 인구들은 대부분 하루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 할애 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TV를 심심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됐든 텔레비전 시청이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심심함 등을 해소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를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여전히 취미생활이라도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그래서 덜 외롭고 더 행복한, 이른바 성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노령층 집단일수록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적고, 그것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는 선택적 TV 시청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문과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노인집단간에 정보격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노인집단내에서 연령, 학력, 수입, 거주지 등에 의한 미디어 이용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 **2) 방안: 이용자 교육, 정보격차 해소 정책**

TV에 대한 수동적 의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의 증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도 현실문제와 재미를 곁들이면서 노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인이 실제로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텔레비전 이용 교육은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절대적인 TV시청량을 줄이고, 대신에 텔레비전을 떠나서 있는 off-TV 시간 활용 방법을 학습하는 쪽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노인 대상 사회프로그램 또는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노인과 비노인간 세대격차 및 노인집단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노령 집단의 경우 특히 새로운 매체 이용과 비이용 집단의 간극이 존재하고, 한번 학습한 집단이 계속 매체 이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의한 격차의 확대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다. 노인전문 채널 정책 방안**

### 1) 문제: 열악한 초기 단계

노인전문 채널 '실버 TV'의 경우, 나름대로 사명감과 봉사정신, 직업정신을 가지고 개국하였지만, 아직까지 방송사 경영과 편성, 노인 특화 프로그램의 제작 등에서 열악한 편이다.

### 2) 방안: 공적 지원 및 노인방송 전문성 확보

지금 단계에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전문 채널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역할 또한 증대될 것이므로 외부의 공적 지원과 내부의 역량 강화가 큰 과제라고 할 있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가.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층 수용자들은 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방송통신 등 미디어는 노인층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재현해 내고 있는지에 관한 고령층의 미디어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 방안, 즉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연구는 먼저 미디어의 노인층 재현과 노인층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빈곤을 보완하기 위해 1) 노령화사회에 먼저 도달한 선진국의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노인을 위한 미디어 사례를 검토 한 뒤, 2) 방송뉴스, 노인전문 케이블채널, 노인 전문 블로그 등에서 노인들의 삶과 정체성, 사회복지의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3) 노인들의 방송, 인터넷, 신문, 모바일 등 미디어 이용 실태를 노인복지 개념과 연결시켜 노년층 미디어 이용의 정보격차, 미디어 의존 및 중독 현상, 사회자본의 축적 등의 차원에서 조사 분석한다.

○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속의 노인, 노인의 미디어에 대한 앞의 연구를 토대로 노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에 관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고민은 무엇인지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 속에서 적용 가능한 노인 미디어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나. 연구의 필요성

○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대변환은 고령화이다.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자주 떠오르는 출산 및 결혼 기피 현상과 맞물려 한국은 고령 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04).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 노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 각계의 대비 노력이 있어 왔지만, 미디어 분야는 선행 연구가 빈곤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내외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비교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국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 정책 사례를 정리, 제공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여도 국내 미디어에서 노인을 어떻게 재현해 내는지, 그 과정에서 노인의 인격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방송뉴스와 노인전문 채널, 노인을 위한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노인을 재현해 내는 과정에서 왜곡과 탈현실, 과장, 일탈의 관행은 없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노인 미디어 정책과 심의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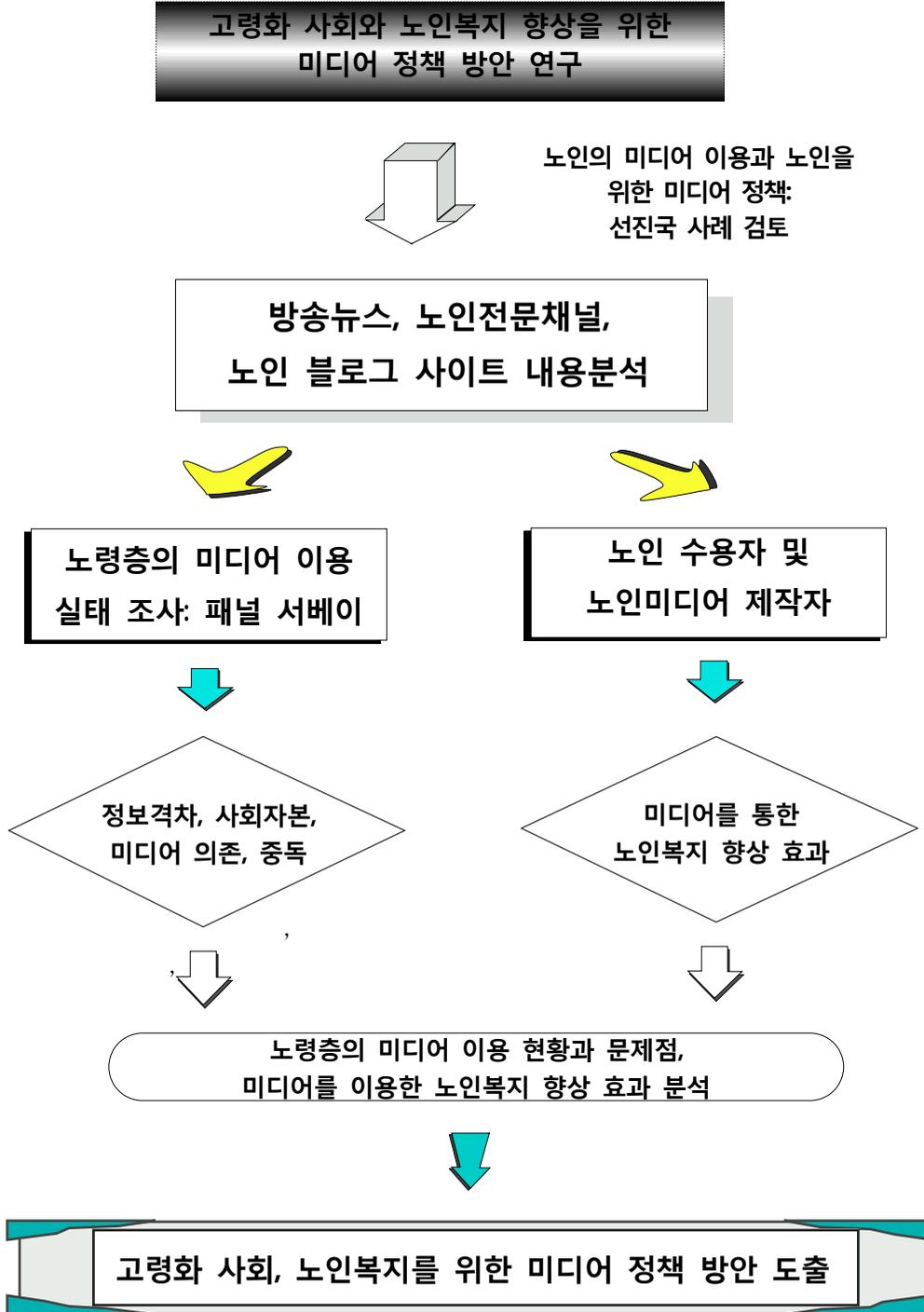
○ 지금까지 노인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결과는 단순한 미디어 이용 현황과 동기 등을 제시하는데 그친데 비해, 이 연구는 노인복지와 미디어 이용간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조사를 실시해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노인 미디어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 수용

자층과 노인 미디어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미디어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필요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노인 미디어 정책과 같은 규범적 차원의 정책방안에 머물지 않고, 현실 적용 가능한,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서베이와 내용분석, 심층인터뷰 결과, 그리고 해외 정책 사례를 토대로 한 노인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1) 노령화사회에 먼저 도달한 선진국의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노인을 위한 미디어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국내외 문헌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한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문제와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에 관한 사례 정리.

2) 미디어는 노인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재현해 내고 있는가?

: 방송뉴스, 노인전문 케이블채널, 노인 전문 블로그 등에서 노인들의 삶과 정체성, 사회복지의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분석.

3) 노인들은 방송, 인터넷, 신문, 모바일 등 미디어를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노인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노년층 미디어 이용의 정보격차, 미디어 의존 및 중독 현상, 사회자본의 축적 등 미디어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4) 미디어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 인터넷 이용 노인, 독거노인, TV 중이용 노인 등 노인 수용자 및 노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5)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제시.

## 나. 연구방법

○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국내외 노인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선진국의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정책 사례를 통해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에 대한 연역적 이론을 도출해 내고,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정책의 현실적인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 이론적 검토는 커뮤니케이션학과 노년학의 통섭을 통해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역할과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과 효과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현실 조사는 노인 미디어 내용분석과 다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서베이 등을 통해 미디어에 의한 노인 재현의 문제점,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과 동기, 문제점 등을 도출해 낸다.

○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노인층 수용자 (인터넷 이용 노인, 텔레비전 중이용 노인, 독거노인 등)와 노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현실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바람직한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방식 등을 도출한다.

### 1) 국내외 노인 미디어 연구 및 정책 사례 연구

- ① 한국과 선진국에서의 노인의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의 노인 재현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 ② 한국과 선진국에서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사례 분석.

### 2) 미디어에 의한 노인 재현 내용분석

- ① 연구문제: 미디어의 노인의 삶과 정체성 재현 실태.

② 조사대상: 방송 뉴스, 노인대상 프로그램, 신문뉴스, 케이블 TV 노인전문 채널 (실버 채널), 인터넷 노인 전문 사이트 (실버 파워)

③ 분석유목

1. 미디어(신문뉴스, 방송뉴스)에서 노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1) 노인의 특성 중 어떤 사항을 주로 다루는가? (신체적, 심리적, 가족관계, 경제적, 사회적 등)
  - (2) 노인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 (3) 영상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컷수, 신체적·감정적 묘사부분)
2. 노인들이 운영하는 미디어(인터넷카페)에서 노인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1) 노인의 특성 중 어떤 사항을 주로 다루는가? (신체적, 심리적, 가족관계, 경제적, 사회적 등)
  - (2) 노인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 (3) 취재원, 취재경로, 기사작성자에 따라 노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 (4) 노인들이 게시물과 댓글(댓글의 수, 댓글의 내용-긍정, 부정)을 통해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 다.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 1) 연구문제: 60세 이상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문제점
- 2) 조사 대상: 대도시 (서울)와 중소도시 및 농촌(춘천)의 노령층 각 300명씩 총 600명.
- 3) 분석유목
  1. 노인의 미디어 이용동기에 따른 미디어 이용습관의 차이
    - (1) 노인의 미디어 이용 동기는 무엇인가?
    - (2) 노인의 미디어 이용 동기에 따른 이용 습관의 차이는 어떠한가?
  2. 노인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미디어 이용정도의 차이
    - (1) 학력, 거주지, 수입 등 노인의 환경적 요인은 미디어 이용에 관련이 있는가?
    - (2) 노인의 소외감은 미디어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노인의 삶에 있어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1) 노인을 위한 콘텐츠 부족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미디어는 노인의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미디어 매체에 따른 노인의 개방성에 차이가 있는가?
    - (1) 사용하는 미디어에 따른 개인 생활 및 사회적 태도, 생활의 차이

- (2) 사용하는 미디어에 따른 사회자본, 사회 참여도의 차이
- 5. 노인층의 미디어 평가
  - (1) 사회적 노인 이미지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노인의 이미지는 차이가 있는가?
  - (2) 미디어는 과연 노인들을 현실적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 라. 노인 수용자 및 노인 미디어 제작자 심층인터뷰

- 1) 연구 문제: 노년층의 생활 속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노년층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인식 및 정책적 아이디어.
- 2) 조사 대상: 노인 수용자 15명  
노인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 전문가 5명
- 3) 조사방법: 연구팀의 심층 인터뷰.

##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가. 기대효과

- 1)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과 선진국의 노년층 미디어 이용 현황 비교 및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및 미디어 정책에 관한 선진국 사례 제시
  - 노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 각계의 대비 노력이 있어 왔지만, 미디어 분야는 선행 연구가 빈곤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내외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비교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국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 및 미디어 정책 사례를 정리.
- 2) 미디어를 통한 노년층의 재현 과정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발전
  - 방송뉴스와 노인전문 채널, 노인을 위한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노인을 재현해 내는 과정에서 왜곡과 탈현실, 과장, 일탈의 관행은 없는지 문제 제기.

### 3) 노인복지와 연결시킨 노인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결과 제시

- 지금까지 노인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결과는 단순한 미디어 이용 현황과 동기 등을 제시하는데 그친데 비해, 이 연구는 노인복지와 미디어 이용간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조사결과를 제시.

### 4) 노인 수용자 및 미디어 제작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노인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미디어 제작현장에서 노인의 현실적 위치 등을 파악해 노인을 위한 미디어 정책의 근거를 제공

-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노인 미디어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독거노인, 텔레비전 중이용 노인 등 노인 수용자층과 노인 미디어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

### 5)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선 현실 적용 가능한 미디어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 제시

- 지금까지 연구들이 주로 바람직한 노인 미디어 정책과 같은 규범적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한 데 비해, 이 연구는 서베이와 내용분석, 심층인터뷰 결과,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노인 미디어 정책을 제시함.

## 나. 활용방안

#### 1)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내외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비교 자료와 선진국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 정책 사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2) 미디어의 노인 재현 분석은 미디어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방송뉴스와 노인전문 채널 등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향후 노인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3) 미디어를 이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노인복지와 연결시킨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및 심층인터뷰 결과는 향후 미디어를 이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4)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제시. 노인 수  
용자 및 미디어**

-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사회는 정작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미디어적 대응이 빈곤한 상황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음.

## II. 노령사회와 미디어

### 1. 노령사회와 미디어 사례 연구

#### 가. 미디어의 노인재현 사례

미디어가 현실과 현실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재현해 내는가에 관한 질문은 노인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문제에도 그대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미디어에서 노인은 많은 경우 웃음거리나 동정의 대상으로 비취지고, 그들의 경험이나 지혜, 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자취를 감추기 일쑤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미디어의 노인 이미지 재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가 노인을 쇠약하고 범죄의 희생양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 현실에서 노인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는 분석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미디어 속에서 노인의 재현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비노인층 일반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이 병약하고 무력하여 의존적이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고 이 고정관념은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Hooyman & Kiyak, 1996).

미디어속의 노인 재현 문제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김미혜 · 유 경(1996)의 연구: 우리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는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의 과제들이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 밝혀내고, 앞으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노인과 건강, 노인과 경제생활, 노년기의 가족관계, 노년기의 사회생활,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 정책, 노년기 준비, 기타의 7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1995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방송된 언제나 젊음(KBS1)과 젊은 인생(SBS) 프

로그랩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 측면에서 볼 때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의 구색 맞추기 편성과 제작에 그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노인복지의 다양한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못하고 사회생활, 건강, 경제 등의 한정된 과제만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재민 · 김영주(2007)의 연구: 전국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층의 미디어 이용 동기와 이용 동기가 텔레비전 시청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량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용동기는 비노인층 일반 시청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텔레비전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다. 텔레비전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학습을 위한 이용동기가 많았고, 텔레비전에 친밀감을 느끼는 노인일수록 휴식과 오락을 위한 습관적인 시청 행태를 보였다. 정서에 대한 자아평가와 이용동기 간에도 관련이 있었는데,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시청량과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군은 이용동기와 텔레비전에 대한 태도였고, 건강과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자아정체성은 예측력을 크게 높이지 못했다.

(3) Hilt & Lipschultz (2005)의 연구: 미국 텔레비전 뉴스는 노인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역할 보도는 사회 내에 노인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프레임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4) 김미혜 · 원영희(1999)의 연구: 이 논문은 내용분석을 통해 노인 관련 신문 광고를 시대별로 분석하였고, 서베이를 통해 광고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시대적 분석에 의하면 노인 관련 광고는 수적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비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이 주인공인 광고는 남성 노인이 주인공으로 선정된 광고에 비해 극히 적은 양으로 나타났다. 주 광고 상품은 서적, 의약품이 많았고 노인 이미지는

시대가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노인 광고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노인 세대보다는 비노인 일반 세대가 노인 광고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광고의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 전달이 중요하며 일반광고의 노인이미지 개선과 아울러 노인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익 광고의 제작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김미혜(2003)의 연구: 인터넷 신문의 기사특성, 기사에 나타난 노인이미지, 독자 의견을 분석하여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노인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인터넷 신문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특성 순으로 많이 묘사하였고, 그 중에서도 각각 질병유무, 성격, 주거유형, 여가생활, 빈곤여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사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사가 많았으며, 노인의 현재 이미지만을 다룸으로써 미래 노인들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특히 젊은 층의 노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사이트와 프로그램 개발, 학계와 언론계의 긴밀한 협력, 기자의 자질 향상, 노인 관련 전문기자 양성, 인터넷 예절 캠페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6) 배지연(2004)의 연구: 노인자살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회 인식이 낮고 그에 따라 예방책이 부족한 상황을 문제로 삼아, 노인 자살에 대한 통계와 신문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노인 자살에 대한 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2003년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우리나라 5대 신문의 자살 기사를 분석하였고, 그 중 노인 관련 자살 기사는 53개 였으며, 결과 노인자살자는 전체 자살자중 1/4를 차지하는 사회문제이며, 남성노인이 자살률이 여성노인보다 3배가 높았다. 노인의 자살 원인은 경제적 곤란, 정신질환(우울증, 치매 등), 신체질환, 가정불화 순이었고, 노인의 자살에 대한 예방책은 전무한 상태이기에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7) 김수영(2000)의 연구: 노인 관련 사이트들의 콘텐츠를 분석한 후 노인들의 정보활용 문제점을 밝히고 활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노년이 되면 타인과의 네트워크가 더 약해지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정보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노년층도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인층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노인층을 위한 보다 많은 사이트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과 단체를 위한 네트워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노인 관련 단체나 학회가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8) 홍명신(2003)의 연구: 노인층의 인터넷 사용 연구를 위해 60세 이상 노인을 인터넷을 통해 서베이 하였고, 결과 조사 층의 74%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메일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중급 이상의 인터넷 이용능력을 가진 노인이 절반을 넘었고, 인터넷 사용 노인들은 고학력, 고임금, 전문직 화이트칼라로써 뉴미디어를 이용하며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은 층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택시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용 층의 변화도 있었는데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을수록 1991년 이전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왔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좀 더 다양한 노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확산 궤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 송현애, 문혜숙(2002)의 연구: 이 연구는 현행 인터넷 상의 노인 전용 사이트들을 건강, 경제, 가족, 여가, 주거, 죽음, 기타 등 7개 영역과 상담실이나 동호회의 유무 등 1개 영역 등 총 8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이 현재 어떠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봄으로써 노인전용사이트의 현 주소를 정리하여 이것들을 어떻게 노년기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다. 이들은 노인전용 사이트 50개를 8개 영역으로 나누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기존의 off-line 노년기 교육에 연결시켜봄으로써 21세기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on-line +

off-line 노년기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인터넷의 등장이 노인들을 훨씬 더 빨리 지역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 근본적인 특성상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소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제언하였다.

(10) 이금룡(2007)의 연구: 이 연구에 의하면 노년의 인터넷 활용이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확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기존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활성화된 노인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적극적인 회원들에서만 운영되는 경향이 강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결과 노인 대상의 정보화 교육이 오히려 노인들 간의 정보화 격차를 더욱 벌여놓은 결과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많은 노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11) 구자순(2007)의 연구: 성별 및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기존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여성의 빈곤화와 백발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특히 고령층 여성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성이고 고령이기에 사회적으로 더 소외되고 있는데, 고령층 여성들이 정보화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고령 여성들을 위한 인터넷 이용과 활용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고령 여성의 사회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구자순(2005)의 연구: 고령층의 온라인 공동체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 논문이다. 60세 이상 카페 가입자 남녀 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는데, 온라인 공동체인 카페 가입은 노인층이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사회활동과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연

결된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사교활동을 하며 공동체를 확인하고 있었다. 온라인 카페 활동이 그동안 역할 상실로 소외되고 있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활동 공간을 제공해주어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13) 구자순(2003)의 연구: 이 논문에서 저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 노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며, 정보화 교육을 통해 중고령층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적응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노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은 여성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여성 노인 집단의 세력화를 통해 여성 노인 개개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이것이 여성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진작시켜 여성 노년층을 지식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써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될 것이다.

(14) 최정신(1999)의 연구: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였고, 결과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은 낮은 편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종교, 노인과 그 자녀들의 생활정도, 배우자 유무, 용돈 정도, 현재의 행복감, 수면시간, 식사량, 과일이나 우유 및 수분 섭취량, 배뇨장애 유무, 개인 위생상태, 현 거주지 환경, 질병 유무, 가족 질환 유무, 지각하는 건강상태, 자녀 유무, 운동 여부 등이었다. 매일의 일상생활은 농사일, TV시청, 겨울에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 하는 것이었고, 신문이나 잡지 읽기, 그 밖의 여가활동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시설 설치 등의 농촌복지가 우선순위로 계획되어야 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5) 현자영 (2003)의 연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과목별 노인 이미지 차이비교에서 도덕 과목에서는 노인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 37.5%, 34.7%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고, 과학 과목에서는 12.5%, 37.5%로 부정적 인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노인 이미지 차이비교에서 1학년은 긍정이 66.7%, 부정이 26.7%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6학년은 긍정 29.1%, 부정 29.9%로 부

정적 인식이 많아졌다. 따라서 1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과서 그림 상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는 대머리남자 아니면 쪽진 머리 여자에 한복을 입고 있거나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다수이다. 이러한 노인의 외모나 모습의 그림은 노인을 상당히 전통적인 존재나 과거에 의해 살고 있는 존재로 또는 별로 융통성 없는 비활동적인 존재로 이미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도출된다. 이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사례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연구는 세대별 미디어 이용 차이에 관한 연구의 전통에서 비롯된 바 크다. 특히 최근 들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년층의 초점을 맞춘 미디어 이용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특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홍명신, 2003). 즉, 노년층의 감각적 퇴보, 방대한 레저시간, 사회로부터의 소외, 경제력 저하 등이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패턴을 특징지운다는 것이다. 홍명신(2003)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노년층은 신체의 노쇠화로 인한 ‘감각적 퇴보(sensory deterioration)’를 겪게 된다. 미국의 경우, 노년 초기에는 인쇄미디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점차 책, 잡지, 신문 읽기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ffee와 Wilson,1975).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특히 선호하는 것은 신문이나 라디오와는 달리 시청각을 자극하는 영상미디어로써 시력 혹은 청력이 저하되더라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노년층은 연령 증가와 은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레저 시간을 가지게 된다. Beyer와 Woods(1958)는 미국노인 5천 명의 여가시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0%가 하루 전의 일과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중요한 레저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텔레비전 시청이외에도 독서, 라디오 청취,

음반 청취 등 미디어 이용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chramm 1969, 재인용). 1980년대에도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노년층의 단일 활동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일과로 분석되었다(Rubin & Rubin, 1982).

셋째,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와 사별 등 가족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된다. 이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를 극복하고 정보를 추구하기 위해 노년층은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 매스미디어는 노인들에게 고독 감소, 교제, 커뮤니케이션 대응,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 소비, 주변 환경과의 연결 등의 기능을 해왔다(Rubin & Rubin, 1982). Lew(1987)는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225명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텔레비전이 가장 재미있고(83%), 가장 편안하며(82%)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74%)는 결과를 얻었다. 사물에 대해 지식을 넓혀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화제 거리를 제공해준다고 정보적 특성도 발견되었다(Ostman & Jeffers, 1983).

넷째, 미디어를 이용하는데는 미디어 구입과 이용료 등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은 제한적인 경제력에 의존한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뉴 미디어를 손쉽게 구입하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제한된 경제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잡지 구독이나 도서 구매 비용이 드는 독서보다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텔레비전이 경쟁력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한국통신 하이텔이 노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무료 교육, 무료 단말기 지급과 사용료 면제를 실시하여 노인 PC통신 이용자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o 김영주, 정재민 (2006) 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선 60세 이상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이용행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실제 일상 생활에서 TV나 신문, 라디오나 잡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영화나 비디오/DVD, 책과 같은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은 가능한지 등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가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

는 서비스와 콘텐츠는 어떠하며,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 안에서 다루어지는 노인들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현재 미디어가 노인이나 노인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태도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일상은 지나치게 단조롭고, 사회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폐쇄적이며 노인들의 문화는 내세울 만한 형식도 내용도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결과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중심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는 여전히 지상파 TV였고, 노인들에게 인터넷이나 DMB, MP3 같은 디지털 미디어들은 노인들의 일상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노인들의 전반적인 미디어 이용행태 속에서 디지털 디바이더의 문제는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o 최영완 (2001)의 연구: 노인들이 주로 생활상의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질문에는 텔레비전이 72.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신문, 잡지(7.0%), 종교단체(5.7%), 가족 구성원(5.1%)순으로 나타나서, 노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텔레비전이 가장 큰 생활의 정보망이며 또한 여가활동의 소일거리임을 알 수 있다.

o 홍명신 (2003)의 연구: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60세 이상의 노인 3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 대상 노인들의 74% 이상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급 이상의 인터넷 이용능력을 가진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인터넷을 채택한 노인들은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 화이트. 컬러로서 다양한 뉴 미디어를 보유 · 이용하려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o Dieter (2000)의 연구: 미국의 고령자 전용 사이트인 SeniorNet 회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친구 · 친지들과의 관계 유지(927명), 다양한 주제 연구(770명), 최신 뉴스와 행사 습득(682명), 상품 구매 (450명)주식 투자(386명), 게임(344명), 토론(342명), 채팅(187명), 주식 매매(87명)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o Furlong (1989)의 연구: 노년층은 노쇠와 건강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정이나 요양원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핵가족화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인터넷은 노년층에게 휴식처, 재정, 건강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정보뿐만 아니라 노년층과 특별히 관련 있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노인 소외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다. 노인복지와 미디어 정책 사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와 연결된 노인과 미디어 관계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노년학(gerontology)과 커뮤니케이션학(communication)의 통섭을 필요로 한다. (Hilt & Lipschultz, 2005).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노인복지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짐에 따른 사회적 약자가 된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물질·정신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서비스 중심의 공식적 지원과 가족·친척·친구와 이웃 등의 사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지원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을 위한 사적인 지원은 도구적 지원·정서적 지원·정보지원으로 분류된다. (Antonucci, 1990; Weinberger, Hiner, and Tierney, 1987). 도구적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호의적이고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하며, 정보지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적 지원은 아마도 심리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분야에 해당될 것이다. 노년층이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 통신 등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노인 미디어 정책의 목표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삶과 복지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최영완 (2001)의 연구: 우리나라 노인의 30% 이상이 여가시간을 주로 화투·장기·바둑·라디오·TV 시청으로 보내고 23%가 자녀 돌보기로 보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경로당이나 노인학교의 경우는 11%로 나타나 그 참여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52.5%가 여가 활동에 대해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3.4%가 필요하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24.1%로 나타나 노년기가 길어진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도 적절한 방법을 모른다가 상당히 많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기옥 (1994)의 연구: 경로식당이나 가정봉사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모두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이용도는 가정봉사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지역 노인이 농촌지역 노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모선희(2000)의 연구: 홍천군 농촌노인에 대한연구에 의하면 농촌노인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6.0%, 가정봉사원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3.6%,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1.2%, 생활보호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4.4%, 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6.0%, 보건소를 이용하는 65.3%로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경희 (1998)의 연구: 전국적인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은 보건소와 노인정의 인지율이 95%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이용률도 각각 68.8%, 47.6%가 되나, 그 외 노동수당제도 (19.2%), 노인공동작업장 (16.0%),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고령자 인재은행 (15.0%)의 인지율은 모두 2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가정봉사원 파견 (8.5%), 주간보호시설 (2.0%), 단기보호시설 (1.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외국의 노인 채널 사례분석: 미국의 'Retirement Living TV'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인 복지에서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Ofcom의 2008년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의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은 301분으로 라디오의 184분, 인터넷의 90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없으면 가장 아쉬워할 미디어 이용은 TV시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5 - 74세 노인층에서는 69%, 7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77%로 나타나, 성인 전체의 5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노인층은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TV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층의 TV 의존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TV 서비스는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디지털화로 채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무수히 등장한 전문 채널 중에서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TV 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청장년층에 비해 구매력이 낮은 노인층은 목표 시청자로서의 매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의 비중 또한 점차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시급한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노인의 빈곤, 건강 문제 등에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관해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정책적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노인을 위한 특화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겨냥한 극소수 전문 채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실버TV라는 노인 전문 채널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선진국 사례로는 미국의 Retirement Living TV (RLTV)를 들 수 있다. RLTV의 경우 실버TV와 그 방송 지표나 이념, 채널

운영 방식 등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가. RLTV 개요**

### **1) 채널 소개**

2006년 미국에서 ‘에릭슨 은퇴자 공동체(Erickson Retirement Communities)’의 주도하에 국립건강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와 볼티모어 메릴랜드대학 에릭슨 스쿨(the Erickson School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in Baltimore County)의 참여로 설립된 55세 이상 은퇴자와 노인층 대상 전문 케이블 채널

### **2) 설립자 존 에릭슨(John C. Erickson)**

- o 중산층을 주요 목표 고객으로 하는 은퇴자 타운을 개발·매니지먼트 회사인 ‘에릭슨 은퇴자 공동체’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 o 현재 21,000여 은퇴자 가구가 거주하는 타운을 미 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건설
- o 은퇴자 타운 개발 사업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은퇴자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각종 비영리 재단 설립
- o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메릴랜드 대학에 에릭슨 스쿨 지원
- o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노인층 지원을 위해 2006년 RLTV 창립

### **3) RLTV 설립의 사회적 배경, 설립 취지와 운영 목표**

- o 미국 전후 세대(Baby Boomer)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주류 미디어 산업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자 일종의 대안 채널로서 등장
- o 노인 문제, 특히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o 삶의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고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o 각종 노인 관련 단체(예: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전미은퇴자협회), 공공기관 등과 제휴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공공 캠페인 전개

o 노인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

#### **4) RLTV 운영 현황**

o 가입 가구 수: 북미지역 가입자 2,900여만

o 주요 송신망: DirecTV, Comcast CN8, VerizonFiOS,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케이블 망

o 제공 프로그램 유형: 건강 정보 제공 프로그램, 노인 문제 상담 프로그램, 시사 뉴스 프로그램, 재정·경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등

#### **5) 주요 프로그램**

가) My Generation

o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3회, 회당 30분

o 제작형태: 전미은퇴자협회(AARP) 제공

o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건강, 재정, 인간관계, 연예, 자원 봉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TV매거진 프로그램

나) Inside E Street

o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2회, 회당 30분

o 제작형태: 전미은퇴자협회(AARP) 제공

o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건강, 재정적 안정, 은퇴 문제 등에 대한 최신 정책 뉴스를 해설하는 토크쇼 프로그램

다) Daily Café

o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12회, 회당 60분

o 제작형태: NBC와 RLTV 공동 제작

o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NBC의 현직 언론인들이 출연하여 시사 뉴스를 해설하는 프로그램

라) The Prudent Advisor

o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8회, 회당 60분

o 제작형태: NBC와 RLTV 공동 제작

o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전직 NBC 경제 담당 기자들이 출연하여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마) Healthline

o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26회, 회당 30분

o 제작형태: 자체 제작

o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의학 전문 기자가 출연하여 건강관리 기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바) Encore with John Palmer

o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32회, 회당 30분

o 제작형태: 자체 제작

o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전직 대통령이나 성공한 기업인과 같은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해 그들의 삶의 역정을 들어보는 토크쇼

사) Retired & Wired

o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24회, 회당 30분

o 제작형태: 자체 제작

o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유용한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그 활용법을 설명하는 프로그램

아) Viewpoint

-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12회, 회당 60분
- 제작형태: 자체 제작
-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TV매거진 프로그램

자) What's Next?

-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16회, 회당 30분
- 제작형태: 자체 제작
-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갖 노인층으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차) The Florence Henderson Show

-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28회, 회당 60분
- 제작형태: 자체 제작
-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전성기 시절 에피소드와 근황을 들어보는 토크쇼

카) Another Chance for Romance

-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10회, 회당 30분
- 제작형태: 자체 제작
-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Blind Date'의 전직 진행자가 진행하는 노인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타) The Art of Living

-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22회, 회당 60분

- 제작형태: 자체 제작
-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여 자신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파) The Daily Apple

- 편성 및 회당 방영 시간: 주 18회, 회당 60분
- 제작형태: 자체 제작
- 프로그램 내용 및 유형: NBC 'Today Show'에 출연하고 있는 노인 전문 의사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TV 매거진 프로그램

## 나. RLTV 편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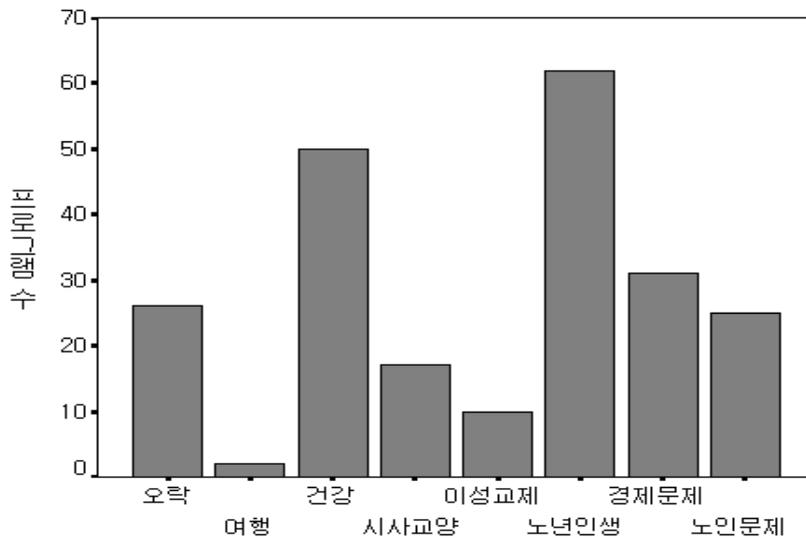
### 1) 프로그램 빈도 분석

<표 2-1>과 <그림 2-1>에는 RLTV가 일주일 동안 방영했던 프로그램의 주제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로그램은 'What's Next?', 'The Art of Living', 'My Generation'과 같이 노년의 삶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성공적인 노년을 살아가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총 62건, 전체의 27.8%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는 'Healthline', 'The Daily Apple'과 같이 노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총 50건,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The Prudent Advisor'와 같이 은퇴 후 재정 운영 계획이나 효율적인 소비 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제 관련 프로그램도 31건, 13.9%에 달했고, 'Viewpoint' 같이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은 25건,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성 교체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은 'Another Chance for Romance'가 유일했는데, 방영 횟수는 10건으로 그 비중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표 2-1> RLTV 프로그램의 주제

주제	빈도	백분율
오락	26	11.7%
여행	2	.9%
건강	50	22.4%
시사교양	17	7.6%
이성교제	10	4.5%
노년인생	62	27.8%
경제문제	31	13.9%
노인문제	25	11.2%
<b>Total</b>	<b>223</b>	<b>100.0%</b>

<그림 2-1> RLTV 프로그램 주제별 빈도수



한편,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RLTV의 편성에서 본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은 30.5%와 69.5%로, 재방송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My Generation’이나 ‘Inside E Street’, ‘Daily Café’, ‘The Prudent Advisor’

등 다른 제작사로부터 공급받거나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의 재방송 횟수는 1, 2회 정도였으나,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Encore with John Palmer’의 사례처럼 재방송 횟수가 최대 주8회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표 2-2> RLTV의 본방송/재방송 비율

본방/재방	빈도	백분율
본방	68	30.5%
재방	155	69.5%
전체	223	100.0%

## 2) 시간대 별 프로그램 주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4대의 시간대로 나누었는데, 오후 11에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를 심야/새벽 시간대로,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를 오전 시간대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후 시간대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저녁 시간대로 각각 분류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주 시청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오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는 건강 프로그램과 노년인생을 다룬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먼저 오전 시간대의 경우, 노년 인생을 다룬 프로그램이 48.9%, 건강 프로그램이 31.9%의 비중을 차지해, 전체 시간대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인 27.8%와 22.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저녁 시간대에는,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이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7건, 18.4%), 와 건강(7건, 18.4%), 오락(6건, 15.8%)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3> RLTV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주제 분포

주제	시간대				전체
	심야/새벽	오전	오후	저녁	
오락	15(19.2%)	-	5(8.3%)	6(15.8%)	26(11.7%)
여행	-	-	2(3.3%)	-	2(0.9%)
건강	10(12.8%)	15(31.9%)	18(30.0%)	7(18.4%)	50(22.4%)
시사교양	-	2(4.3%)	10(16.7%)	5(13.2%)	17(7.6%)
이성교제	6(7.7%)	-	1(1.7%)	3(7.9%)	10(4.5%)
노년인생	22(28.2%)	23(48.9%)	12(20.0%)	5(13.2%)	62(27.8%)
경제문제	10(12.8%)	6(12.8%)	8(13.3%)	7(18.4%)	31(13.9%)
노인문제	15(19.2%)	1(2.1%)	4(6.7%)	5(13.2%)	25(11.2%)
전체	78(35.0%)	47(21.1%)	60(26.9%)	38(17.0%)	223(100.0%)

프로그램의 주제를 주중, 주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주중과 주말의 편성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편성은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시청자들의 생활 패턴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편성에서도 주중과 주말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 RLTV의 주중/주말 프로그램 주제 분포

주제	주중/주말		전체
	주중	주말	
오락	20(12.6%)	6(9.4%)	26(11.7%)
여행	-	2(3.1%)	2(.9%)
건강	34(21.4%)	16(25.0%)	50(22.4%)
시사교양	15(9.4%)	2(3.1%)	17(7.6%)
이성교제	4(2.5%)	6(9.4%)	10(4.5%)
노년인생	48(30.2%)	14(21.9%)	62(27.8%)
경제문제	22(13.8%)	9(14.1%)	31(13.9%)
노인문제	16(10.1%)	9(14.1%)	25(11.2%)
전체	159(71.3%)	64(28.7%)	223(100.0%)

### 3. 요약: 노령사회와 미디어 연구 및 정책 사례

#### 1) 미디어의 노인 편견과 고정관념

국내외 미디어의 노인 재현에 관한 연구들은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미디어들이 노인을 다루는데 인식하고, 노인의 삶과 생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것을 미디어들이 노인의 문제를 노인의 입장에서 다루기보다는 미디어적인 논리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령 텔레비전에서는 노인이 주요 광고 구매층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의 구색 맞추기 편성과 제작에 그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노인복지의 다양한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못하고 사회생활, 건강, 경제 등의 한정된 과제만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 또는 신문 뉴스 등은 노인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역할 보도는 사회내 노인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다.

## 2)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우선 텔레비전이 노령층의 핵심 매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세대에 비해 노령층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고, 또한 노령층에서 나이가 들수록 텔레비전 의존 현상을 더욱 심해진다.

신문, 방송, 인터넷을 막론하고, 일차적으로는 비노령세대와 노령세대간의 이용 격차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노인세대내 이용 격차 현상도 눈에 띈다. 노인세대내 이용 격차는 연령차이의 격차, 도시-농촌 거주에 따른 격차, 남성과 여성 노인의 격차 등이 연구됐다. 특히 사항은 노령인구의 경우가령 인터넷과 같이 신기술 매체가 도입될 때, 고학력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하면 그 집단은 성장하는 반면, 나머지 집단은 포기집단으로 남아 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 인지 및 정서 능력과 텔레비전 시청 행위간의 상관관계 연구는 대체적으로 텔레비전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학습을 위한 이용동기가 많았고, 텔레비전에 친밀감을 느끼는 노인일수록 휴식과 오락을 위한 습관적인 시청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 3)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와 연결된 노인과 미디어 관계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노년학(gerontology)과 커뮤니케이션학(communication)의 통섭을 필요로 한다. (Hilt & Lipschultz, 2005).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노인복지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짐에 따른 사회적 약자가 된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물질 정신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서비스 중심의 공식적 지원과 가족·친척·친구와 이웃 등의 사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지원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을 위한 사적인 지원은 도구적 지원·정서적 지원·정보지원으로 분류된다. (Antonucci, 1990; Weinberger, Hiner, and

Tierney, 1987). 도구적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호의적이고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하며, 정보지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적 지원은 심리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분야에 해당될 것이다. 노년층이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 통신 등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노인 미디어 정책의 목표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 복지를 위한 미디어 역할은 첫째, 미디어가 노령층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미디어가 얼마나 노령층의 정서적 삶에 보탬이 되고, 둘째, 미디어가 노령층과 얼마나 소통하고 또 노령층간의 소통을 얼마나 잘 도와서 노령층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 미디어 정책은 특히 노령층의, 노령층내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인 복지에서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Ofcom의 2008년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의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은 301분으로 라디오의 184분, 인터넷의 90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없으면 가장 아쉬워할 미디어 이용은 TV시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5 - 74세 노인층에서는 69%, 7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77%로 나타나, 성인 전체의 5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노인층은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TV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약 70%의 노령층의 텔레비전 시청을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레저라고 꼽았고, 노인 인구 80% 이상이 텔레비전을 가장 재미있고 편안한 매체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층의 TV 의존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TV 서비스는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디지털화로 채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무수히 등장한 전문 채널 중에서 노

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TV 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청장년층에 비해 구매력이 낮은 노인층은 목표 시청자로서의 매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의 비중 또한 점차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시급한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노인의 빈곤, 건강 문제 등에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관해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정책적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노인을 위한 특화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겨냥한 극소수 전문 채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실버TV라는 노인 전문 채널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선진국 사례로는 미국의 Retirement Living TV (RLTV)를 들 수 있다. RLTV의 경우 실버TV와 그 방송 지표나 이념, 채널 운영 방식 등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4) 미국의 RLTV 사례

미국의 RLTV는 미국 전후 세대(Baby Boomer)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주류 미디어 산업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문제 의식이 대두되자 일종의 대안 채널로서 등장했다. 이 채널은 노인 문제, 특히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LTV는 삶의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고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하는데 매체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노인 관련 단체(예: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전미은퇴자협회), 공공 기관 등과 제휴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공공 캠페인을 전개해, 노인을 위한 시민 저널리즘, 옹호 저널리즘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채널은 노인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 III. 미디어의 노인 재현의 문제

#### 1. 미디어속의 노인 내용분석

##### 가. 연구 문제: 미디어의 노인, 노인 문제의 재현

미디어가 현실과 현실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재현해 내는가에 관한 질문은 노인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문제에도 그대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미디어에서 노인은 많은 경우 웃음거리나 동정의 대상으로 비취지고, 그들의 경험이나 지혜, 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자취를 감추기 일쑤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미디어의 노인 이미지 재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가 노인을 쇠약하고 범죄의 희생양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 현실에서 노인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는 분석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미디어 속에서 노인의 재현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비노인층 일반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이 병약하고 무력하여 의존적이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고 이 고정관념은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Hooyman & Kiyak, 1996).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노인과 노인 문제를 재현해 내는데 있어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 미디어가 미디어 자체의 조직 논리 때문에 노인을, 노인문제를 왜곡하고 있거나 앓은지 등을 분석한다. 미디어는 우선, 신문, 방송뉴스, 인터넷카페, 노인대상 TV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전문채널인 '실버 TV' 등이 노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분석하고, 다음으로 노인대상 TV프로그램간의 차별성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 프로그램 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노인복지 향상에 부응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에서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의 과제에의 취급, 가족 시청 시간대 편성, 제작의 전문성 확보, 노인의 참여

기회 확대, 노인들의 적극적 시청들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노인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에 관한 내용분석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미디어 콘텐츠가 생산되는 과정과 현실여건,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자 관련자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 **나. 연구방법 1: 내용분석**

### **1) 조사대상**

신문(동아일보), 방송 뉴스, 인터넷 노인 전문 사이트 (실버 파워), 노인대상 TV프로그램, 노인 전문 채널 '실버 TV'

가) 신문뉴스: 동아일보가 2008년 1월,3월,6월에 보도한 노인관련 기사 177건.

나) 방송뉴스: KBS1 <9시뉴스>가 2008년 1월,3월,6월에 보도한 노인 기사 62 건.

다) 인터넷카페: 인터넷 카페 <실버파워>에서 노인이 작성한 게시글 총 12071건 가운데 2007년 9월, 10월, 12월, 2008년 1월, 3월, 6월의 조회수 30이상의 글, 197건.

라) 노인대상 TV 프로그램: KBS1TV,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년 분 프로그램내 아이템 326건.

- (1) KBS 1TV <언제나 청춘>
- (2) MBC TV <늘 푸른 인생>
- (3) MBC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
- (4) SBS TV <백세 건강 스페셜>

마) 노인전문채널 '실버 TV': 프로그램 및 편성 분석

## 2) 분석유목

가). 미디어(신문뉴스, 방송뉴스)에서 노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1) 노인의 특성 중 어떤 사항을 주로 다루는가? (신체적, 심리적, 가족관계, 경제적, 사회적 등)
- (2) 노인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 (3) 영상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컷수, 신체적·감정적 묘사부분)

나). 노인들이 운영하는 미디어(인터넷카페)에서 노인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1) 노인의 특성 중 어떤 사항을 주로 다루는가? (신체적, 심리적, 가족관계, 경제적, 사회적 등)
- (2) 노인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 (3) 취재원, 취재경로, 기사작성자에 따라 노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 (4) 노인들이 게시글과 댓글(댓글의 수, 댓글의 내용-긍정, 부정)을 통해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 3) 변인측정

노인관련 기사의 주제는 김미혜 (2003)의 연구의 전례를 따라 노인복지정책 및 제도, 노인의 건강, 노인의 사회적 역할, 노인의 경제적 상황, 노인과 가족관계, 노인의 권리, 노인의 여가생활, 죽음, 노화, 사건·사고 노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지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다시 관련된 항목끼리 범주화시켰다. 노인의 특성을 김미혜 (2003)의 연구에 따른 분류기준인 신체적, 심리적, 가족관계, 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었다. 이는 기사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범주화 한 것으로 노인의 이미지는 신체적 특성에서 외모, 생리적 변화, 허약여부, 거동불편, 질병 유무, 죽음으로 나누고, 심리적 특성에서 인지능력, 지혜, 행동특성, 삶의 태도, 성격으로 나누었다. 가족관계 특성에서는 가족유형, 가족관계, 가족의존, 가족 내 역

할로 나누고 사회적 특성에서는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경제적 특성에서는 경제적 능력, 경제적 무능력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적 특성에서는 휴식, 놀이·취미, 가족생활, 여가생활, 사회활동, 일탈행위, 운동으로 나누고, 능력적 특성은 정신적(지혜, 학습, 인생경험 등), 경제적(용돈, 선물, 궁핍,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지도, 쓸모없음 등), 신체적(건강함, 부지런함, 허약함, 간병/보호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노인에 관한 기사에서 주체가 노인인지 사건 자체인지를 분석하여 사회에서 노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반면 노인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 '실버과워'에서 노인들이 직접 게시글과 댓글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 글의 내용들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인들이 직접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실제적인 노인의 모습이 신문기사와 방송뉴스의 보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방송뉴스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나오는 컷수(프레임)는 얼마나 되는지, 각 컷(프레임)에서 노인의 특성과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코더간 신뢰도는 각 측정변인별로 신체적 92%, 심리적 86%, 가족관계 90%, 사회적 96%, 경제적 90%, 활동력 90%, 능력 86%였다. 그리고 기사, 노인 감정 프레임도 80%가 넘었는데 수치는 각각 90%, 88%로 나타났다.

## 다. 연구방법2: 심층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는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고 있는 방송사의 실무 담당자를 선별해서 선정했다. 문화방송과 강원민방의 편성 담당자 1인씩을 인터뷰했으며, 실버TV의 경우 그 전문성과 제작 프로그램의 편수 등을 고려해서 3명을 인터뷰 했다. 인터뷰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 대상자와 접촉하여 해당 방송사를 직접 방문했다. 인터뷰는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소요된 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였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보충 인터뷰를 실시했다.

## 2. 다양한 미디어속의 노인

신문, 방송뉴스, 인터넷카페, 노인 TV프로그램

### 가. 미디어의 노인 문제 재현

매체에 따라 노인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제가 달랐다. 또한 노인문제를 재현하는 태도도 달랐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저널리즘 장르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노인 정책, 건강 등과 같은 실용적인 정책을 주로 다룬 반면, TV 교양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의 가정사나 노인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환경, 여가생활 등 노인의 일상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매체별로 노인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는 신문과 인터넷클럽은 노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 반면, 텔레비전 뉴스는 사건 기사 위주여서인지 부정적 태도가 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TV교양 프로그램은 노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 1) 노인 문제의 주제

먼저 노인대상 TV교양 프로그램과 뉴스의 노인관련 내용의 주제를 비교해보면,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그에 대한 프로그램과 노인 관련 정책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TV교양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의 가정사나 노인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환경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다른 매체에 비해서 노인의 여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필요로 하는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의 특성상 노인의 문제를 재미와 흥미, 관심사 위주로 다룬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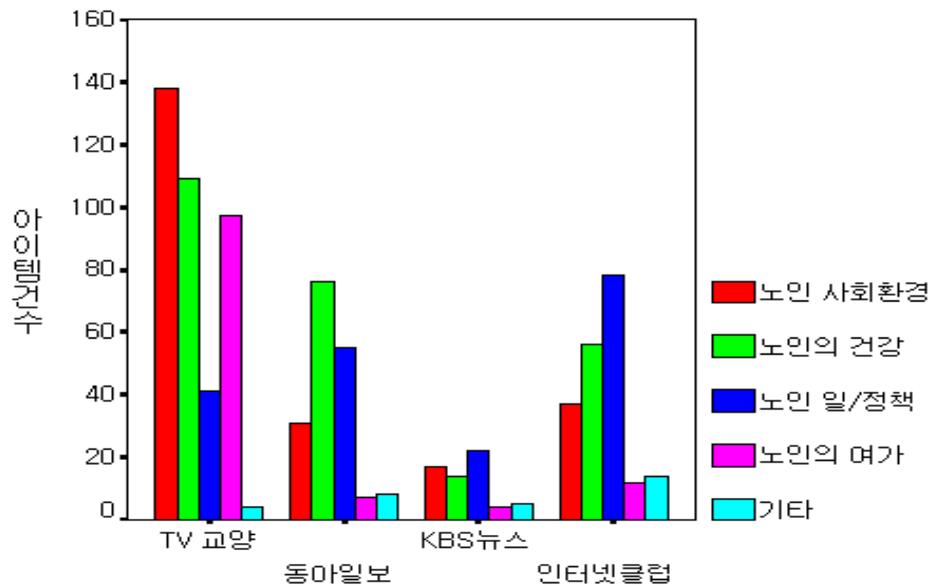
한편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넷 클럽의 경우 건강과 일자리, 정책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이 오가는 것으로 분석돼, 노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노인대상 TV프로그램의 주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3-1> 매체별 노인 주제의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노인 사회환경	138 35,5%	31 17,5%	17 27,4%	37 18,8%	223 27,0%
노인의 건강	109 28,0%	76 42,9%	14 22,6%	56 28,4%	255 30,9%
노인 일/정책	41 10,5%	55 31,1%	22 35,5%	78 39,6%	196 23,8%
노인의 여가	97 24,9%	7 4,0%	4 6,5%	12 6,1%	120 14,5%
기타	4 1,0%	8 4,5%	5 8,1%	14 7,1%	31 3,8%
소계	389 100,0%	177 100,0%	62 100,0%	197 100,0%	825 100,0%

chi-square= 161.1 ( df=6, p=.001)

<그림 3-1> 매체별 노인 주제의 차이



## 2) 노인 재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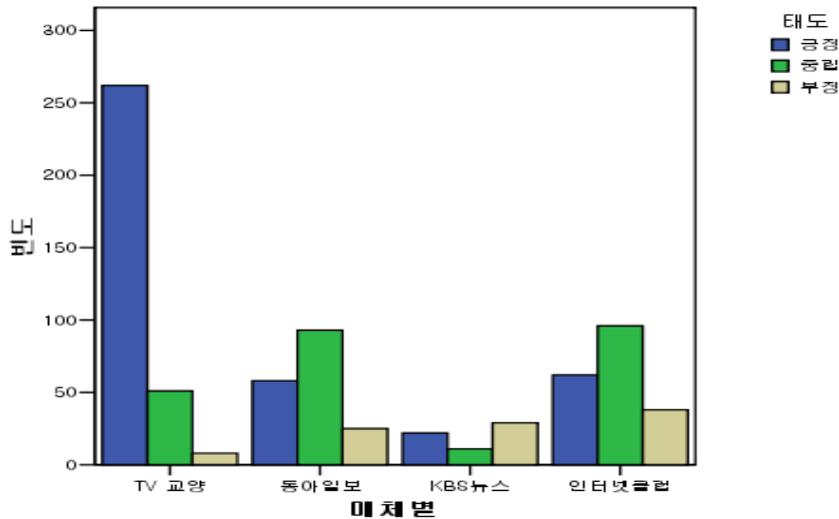
매체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체에 따라 그 태도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노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노인에 대한 속성을 표현할 때 전반적인 통계수치나 경향치, 객관적인 사실 및 상황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 인터넷 클럽 역시 노인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TV교양 프로그램은 노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인 태도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는 TV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관련 아이템 자체가 노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재미와 즐거움, 특별함과 건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TV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의 상처와 과거 고생도 봉사와 희생과 가족애로 그려내고 있으며, 현재는 희망적이고 흥겨운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TV 뉴스의 경우 중립적이기 보다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를 견지하며 다른 매체 보다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사건과 사고를 많이 다루고 사회의 문제를 짚어내는 뉴스 기사의 특성에 따라 노인문제, 즉 죽음, 질병, 노환, 고집, 외로움, 독거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노인들의 인터넷 클럽을 보았을 때는 중립적인 태도가 가장 많았다.

<표 3-2> 매체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태도	긍정	262	58	22	62	404
		81.6%	33.0%	35.5%	31.6%	53.5%
	중립	51	93	11	96	251
		15.9%	52.8%	17.7%	49.0%	33.2%
	부정	8	25	29	38	100
		2.5%	14.2%	46.8%	19.4%	13.2%
소계		321	176	62	196	755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237.4 (df=6, p=.001)

<그림 3-2> 매체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 나. 미디어의 노인 정체성 재현

매체에 따라 노인의 정체성은 다르게 재현되고 있었다. 신문은 나이가 들에 따라 몸의 불편과 질병의 발생과 같은 노인의 허약한 몸을 주로 재현해 내고 있었고, TV 교양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젊은이처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모습을 재현해 내고 있다. TV뉴스는 건강과 허약한 모습이 비등하지만, 허약하고 왜소해 보이고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실제 노인들이 참여하는 인터넷클럽은 노인의 건강한 모습과 허약한 모습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노환으로 인한 질병과 몸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 보다 두드러진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노인은 정서는 노인대상 TV 교양프로그램은 노인의 행복감을 주로 전달해 주는 반면, 인터넷 클럽에서는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타 매체보다 보다 많이 느낄 수 있고, 신문과 TV뉴스의 경우 장르 특성상 분노, 공포,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많았다.

### 1) 노인 몸의 재현

매체에 따라 노인을 묘사하는 신체적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가. 이 역시 매체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문의 경우 노인 건강과 관련하여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는 부정적 변화로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을 앓고 있는 등 허약한 모습을 주로 드러내는 반면, TV 교양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몰라도 화면에 비추이는 자체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모습이고, 설령 지팡이나 의자에 의지하는 등 조금 불편해 보인다고 해도 나이에 비하면 건강하고 젊다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노년이 자주 출연하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TV뉴스의 경우 건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허약하고 왜소해 보이고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실제 노인들이 인터넷클럽에서 나누는 내용을 보면 건강한 모습과 허약한 모습 모두 보이고 있으나, 노환으로 인한 질병과 몸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 보다 두드러진다.

TV교양의 경우 노인의 삶의 태도와 행동특성에 관한 것이, 신문의 경우 삶의 태도와 인지능력에 대한 것이 두드러졌고, TV뉴스의 경우 삶의 태도가 훨씬 부각되었으며, 인터넷 클럽에서는 삶의 태도와 행동특성이 다른 특성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3-3> 매체별 노인 묘사의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신체	외모	17 5,2%	3 3,5%	5 12,8%	6 5,8%	31 5,6%
	생리적변화	22 6,7%	28 32,9%	3 7,7%	30 28,8%	83 15,0%
건강	건강	237 72,7%	10 11,8%	9 23,1%	23 22,1%	279 50,4%
	허약왜소거동불편	5 1,5%	13 15,3%	14 35,9%	18 17,3%	50 9,0%
질병유무	질병유무	45 13,8%	21 24,7%	4 10,3%	19 18,3%	89 16,1%
	죽음		10 11,8%	4 10,3%	8 7,7%	22 4,0%
소계		326 100,0%	85 100,0%	39 100,0%	104 100,0%	554 100,0%

chi-square= 234.5 (df=15, p=.001)

## 2) 노인 심리의 재현

매체마다 노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설정도 다르게 나타났다. TV교양의 경우 노인의 삶의 태도와 행동특성에 관한 것이, 신문의 경우 삶의 태도와 인지능력에 대한 것이 두드러졌고, TV뉴스의 경우 삶의 태도가 훨씬 부각되었으며, 인터넷 클럽에서는 삶의 태도와 행동특성이 다른 특성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3-4> 매체별 노인의 심리 묘사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심리					
인지능력	21 7.4%	24 27.3%	7 16.7%	10 8.9%	62 11.8%
지혜	35 12.3%	3 3.4%		7 6.3%	45 8.5%
행동특성	72 25.3%	16 18.2%	9 21.4%	27 24.1%	124 23.5%
삶의태도	135 47.4%	43 48.9%	26 61.9%	64 57.1%	268 50.9%
성격	22 7.7%	2 2.3%		4 3.6%	28 5.3%
소계	285 100.0%	88 100.0%	42 100.0%	112 100.0%	527 100.0%

chi-square= 47.6 (df=12 , p=.001 )

결과적으로는 네 개 매체 모두 노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데, 노인이 삶에 대해 갖는 자세, 즉 삶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외부 환경과 세대 변화 등에 대해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외부와 활발하고 자연스런 교류를 하고 있는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운지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사나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노년에 갖길 기대하거나 권유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견지되는 노년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문을 제외한 매체에서 노인의 삶의 태도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노인의 행동특성으로 절약하는 습관이라든가, 새벽잠이 없는 등 노인 특유의 행동적 특성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노년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을 재확산 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판단된다. 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노인의 인지능력에 관한 내용이 두드러지는데, 사물을 지각하는 능력, 글자 해독에 관한 내용, 지식과 기억,

판단과 추리 등에 관련한 내용을 보다 많이 다룬 것이다.

### 3) 노인정서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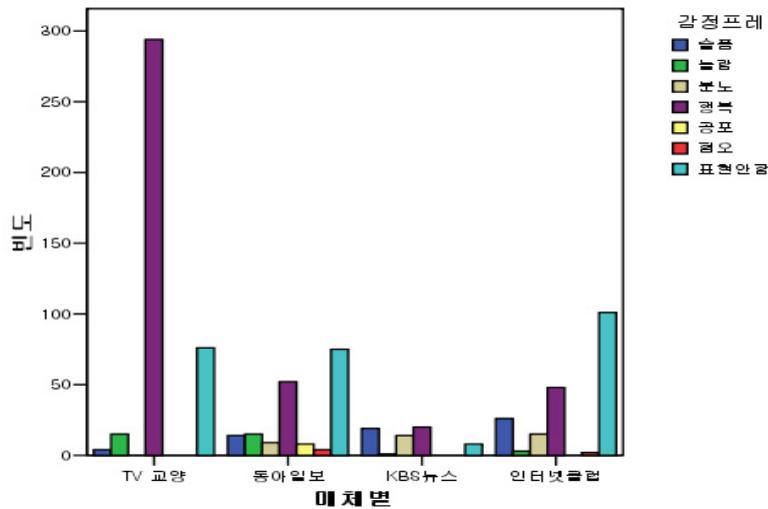
매체에 따라 수용자가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감정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대 매체 모두 행복한 모습이 주로 나타나지만 TV교양의 경우 특히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TV뉴스와 인터넷 클럽에서는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타 매체보다 보다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신문과 TV뉴스의 경우 매체 특성상 분노, 공포,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많았다.

<표 3-5> 매체별 노인의 감정 묘사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감정 프레	슬픔	4 1.0%	14 7.9%	19 30.6%	26 13.3%	63 7.7%
	놀람	15 3.9%	15 8.5%	1 1.6%	3 1.5%	34 4.1%
	분노		9 5.1%	14 22.6%	15 7.7%	38 4.6%
	행복	294 75.6%	52 29.4%	20 32.3%	48 24.6%	414 50.3%
	공포		8 4.5%			8 1.0%
	혐오		4 2.3%		2 1.0%	6 .7%
	표현안함	76 19.5%	75 42.4%	8 12.9%	101 51.8%	260 31.6%
	소계	389 100.0%	177 100.0%	62 100.0%	195 100.0%	823 100.0%

chi-square=340.3 (df=18, p=.001)

<그림 3-3> 매체별 노인의 감정 묘사 차이



## 다. 미디어의 노인 사회상황 재현

### 1) 노인 가족 상황 묘사

노인과 가족에 대한 내용도 매체마다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교양의 경우 가족관계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나, 가정생활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전해 듣는 등 노인의 부부 생활, 자녀와 형제간의 관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경우, 핵가족과 확대가족 등 가족유형과 가족관계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기사의 특성 상 핵가족, 독거노인, 조손가정, 외국인 며느리를 둔 가정 등 노인의 현재 가족 유형이 나타나는 게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V뉴스는 다른 매체 보다 노인의 가족 내 역할이 보다 많이 나타났는데, 노인이 가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나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 가족 내에 심리적 안정감이

나 불안감을 주는 경우, 노인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내용 등이 보다 많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인터넷 클럽에서는 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위의 구분이 두루두루 나타났고, 타 매체에 비해 노인이 가족을 의존하게 되거나, 가족이 노인을 의존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매체별 노인의 가족 묘사의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가족	가족유형	10 7.0%	23 42.6%	6 30.0%	18 26.1%	57 19.9%
	가족관계	127 88.8%	22 40.7%	5 25.0%	29 42.0%	183 64.0%
	가족의존	2 1.4%	5 9.3%	2 10.0%	13 18.8%	22 7.7%
	가족내역할	4 2.8%	4 7.4%	7 35.0%	9 13.0%	24 8.4%
소계	143 100.0%	54 100.0%	20 100.0%	69 100.0%	286 100.0%	

chi-square= 99.4 (df=9, p=.001)

## 2) 노인 사회관계 묘사

4개 매체 모두 그 정도는 다르나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 인맥,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것이 더 많이 노출되고, 특히 신문의 경우 그러했다. TV 교양의 경우 노인의 여가 생활에 대해 더 타 매체에 비해 좀더 많이 나타났는데, 노인의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많이 보여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신문과 TV뉴스, 인터넷 클럽은 노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모습과 없는 모습을 비슷한 비율로 그리고 있는 반면, TV교양의 경우 그 부의 정도야 어떻든 직업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가족의 도움이든 개인의 재산이든 저축액이 있어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년, 또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향유할 수 있는 각 분야 프로그램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TV 교양의 경우 가벼운 주제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현실적인 빈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주로 제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7> 매체별 노인의 사회관계 묘사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사회 여가생활	110	12	11	31	164
	47.2%	15.4%	39.3%	35.2%	38.4%
사회적관계	123	66	17	57	263
	52.8%	84.6%	60.7%	64.8%	61.6%
소계	233	78	28	88	427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25.5 (df=3 , p=.001)

<표 3-8> 매체별 노인의 경제상황 묘사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경제 경제적능력	140	31	12	40	223
	97.2%	43.7%	46.2%	49.4%	69.3%
경제적무능력	4	40	14	41	99
	2.8%	56.3%	53.8%	50.6%	30.7%
소계	144	71	26	81	322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96.3 (df= 3, p=.001)

### 3) 노인 활동과 능력 표현

전반적으로 네 개 매체 모두 노인의 일과 관련된 사회생활이 두드러진다. 활동 면에서는 무엇보다 노인의 '일 문제'가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라는 것이 이를 통해 나타난다. 그 중 TV 교양과 TV뉴스의 경우 노년의 운동 관련 이미지가 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의 건강 문제와 건강 관련 정보제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보다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터넷 클럽의 경우, 사회 활동에 대한 내용도 타 매체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노인의 일거리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운동보다는 오히려 취미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노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운동 관련 내용보다는 취미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에 따라 노인의 능력분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한 묘사가 네 개 매체 모두에서 두드러지고, 그 중 TV교양 프로그램과 인터넷 클럽은 노인의 정신 건강이나 지혜, 인생경험, 학습능력 등에 대한 부분이 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TV교양 프로그램에서 경제적 능력은 소수가 다루고 있는데, TV 교양 프로그램이 노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은 현실이 이 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9> 매체별 노인의 활동 표현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활동	휴식	15 4.7%	6 6.7%	2 6.7%	5 4.7%	28 5.1%
	취미	31 9.7%	7 7.8%	4 13.3%	24 22.6%	66 12.1%
	가족생활	53 16.6%	9 10.0%	3 10.0%	14 13.2%	79 14.5%
	봉사	12 3.8%	9 10.0%	2 6.7%	2 1.9%	25 4.6%
	사회생활	105 32.8%	49 54.4%	9 30.0%	48 45.3%	211 38.6%
	일탈행동	2 .6%	3 3.3%	3 10.0%	7 6.6%	15 2.7%
	운동	102 31.9%	7 7.8%	7 23.3%	6 5.7%	122 22.3%
	소계	320 100.0%	90 100.0%	30 100.0%	106 100.0%	546 100.0%

chi-square= 86.4 (df=18, p=.001)

<표 3-10> 매체별 노인의 능력 묘사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능력	정신적	144 43.9%	33 20.6%	5 10.9%	41 33.1%	223 33.9%
	경제적	5 1.5%	36 22.5%	12 26.1%	31 25.0%	84 12.8%
	사회적	11 3.4%	23 14.4%	7 15.2%	12 9.7%	53 8.1%
	신체적	168 51.2%	68 42.5%	22 47.8%	40 32.3%	298 45.3%
소계	328 100.0%	160 100.0%	46 100.0%	124 100.0%	658 100.0%	

chi-square=118.3 (df=9, p=.001)

## 라. 노인 재현을 위한 미디어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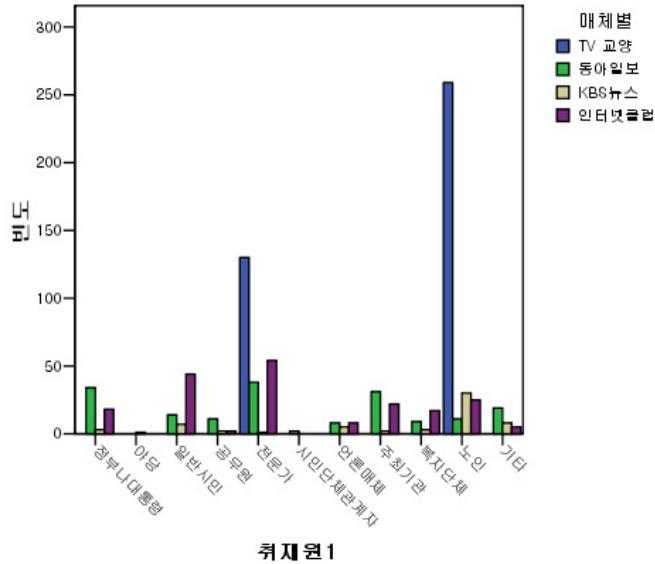
매체별로 취재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TV교양의 경우 노인이 주 취재원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인터뷰 장면도 꽤 있었으나 이 경우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취재하고 그러한 장면에서 노인을 설명하는 정도로 삽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의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문의 경우 노인보다는 주최기관이나 정부발언이 주로 취재되었고, TV뉴스의 경우 노인과 일반 시민을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클럽의 경우 그 특성 상 노인 스스로가 글의 작성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이 취재원이 되는 경우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3-11> 매체별 노인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

		매체별				전체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취재원	정부나대통령	0 .0%	34 19.2%	3 4.8%	18 9.2%	55 6.7%
	야당	0 .0%	0 .0%	1 1.6%	0 .0%	1 .1%
	일반시민	0 .0%	14 7.9%	7 11.3%	44 22.6%	65 7.9%
	공무원	0 .0%	11 6.2%	2 3.2%	2 1.0%	15 1.8%
	전문가	130 33.4%	38 21.5%	1 1.6%	54 27.7%	223 27.1%
	시민단체관계자	0 .0%	2 1.1%	0 .0%	0 .0%	2 .2%
	언론매체	0 .0%	8 4.5%	5 8.1%	8 4.1%	21 2.6%
	주최기관	0 .0%	31 17.5%	2 3.2%	22 11.3%	55 6.7%
	복지단체	0 .0%	9 5.1%	3 4.8%	17 8.7%	29 3.5%
	노인	259 66.6%	11 6.2%	30 48.4%	25 12.8%	325 39.5%
	기타	0 .0%	19 10.7%	8 12.9%	5 2.6%	32 3.9%
전체	389 100.0%	177 100.0%	62 100.0%	195 100.0%	823 100.0%	

chi-square= 548.9 (df=30, p=.001)

<그림 3-4> 매체별 노인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



매체 모두 노인을 주인공으로 주로 다루고 있다. 신문과 TV뉴스는 그 특성상 주인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TV뉴스의 경우 노인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전문지식이 적은 것으로 보아 단편적 사건 기사는 있으나, 그에 비해 정보성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매체별 노인 묘사에 있어서 주인공의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동아일보	KBS뉴스	인터넷클럽	
주인 공	노인	206 53.0%	84 47.5%	37 59.7%	120 61.2%	447 54.2%
	가족		4 2.3%	4 6.5%	1 .5%	9 1.1%
	정부나 공무원		12 6.8%	5 8.1%	6 3.1%	23 2.8%
	범죄자		4 2.3%	2 3.2%		6 .7%
	사회적약자	1 .3%	9 5.1%	5 8.1%		15 1.8%
	노인관련정책 이나프로그램	180 46.3%	51 28.8%	1 1.6%	52 26.5%	284 34.5%
	봉사자	1 .3%	8 4.5%	2 3.2%	2 1.0%	13 1.6%
	외국인		2 1.1%			2 .2%
	기타(노인제외)		2 1.1%	6 9.7%	15 7.7%	23 2.8%
		1 .3%	1 .6%			2 .2%
	소계	389 100.0%	177 100.0%	62 100.0%	196 100.0%	824 100.0%

chi-square= 206.2 (df=27, p=.001)

TV교양물과 TV보도물의 화면에 주로 비치는 노인의 신체부위가 각각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TV교양의 경우, 허리 위 상반신이 주로 많이 나오고, 운동이나 일하는 모습 등을 보여줄 때 전신이 나오는 정도였다. 반면 TV뉴스의 경우, 얼굴 클로즈업이 많았다. 노인의 애기와 행동을 주로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과 사건사고를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 상 화면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3> 매체별 노인의 신체부위 묘사의 차이

		매체별		소계
		TV 교양	KBS뉴스	
신체 부위	전신	101 34.5%	19 33.3%	120 34.3%
	얼굴	3 1.0%	19 33.3%	22 6.3%
	손		2 3.5%	2 .6%
	상반신	177 60.4%	6 10.5%	183 52.3%
	하반신		1 1.8%	1 .3%
	뒷모습		9 15.8%	9 2.6%
	옆모습	11 3.8%	1 1.8%	12 3.4%
	기타	1 .3%		1 .3%
	소계	293 100.0%	57 100.0%	350 100.0%

chi-square= 164.4 (df=7, p=.001)

TV 화면에 나타나는 노인의 걸모습을 분석해 보았다. TV교양과 TV뉴스에서 보여주는 노인의 주 모습은 주름진 얼굴과 늘어진 피부, 희거나 벗겨진 머리였다. 옷차림의 경우 대부분 수수하고 소박한 평상복 차림새였으며, TV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이 공동으로 일하거나, 무대에 선다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작업복, 제복, 운동복, 무대 공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많았다. 행동적 특징에 있어서는 TV교양의 경우 건강한 모습, 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어려보이는 경우를 많이 비춰주었다. 교양물의 특성 상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주로 다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뉴스의 경우는 장애가 있거나 허리가 굽고 힘이 없어 행동에 제약이 있는 노년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화면이 더 많았다.

<표 3-14> 방송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노인의 걸모습(1)

		매체	전체
		KBS9뉴스	
걸모습1	심한 주름살	17 30.9%	17 30.9%
	지저분한 옷차림	4 7.3%	4 7.3%
	흰 머리	15 27.3%	15 27.3%
	허리가굽음	5 9.1%	5 9.1%
	느린말투	1 1.8%	1 1.8%
	빠른말투	2 3.6%	2 3.6%
	늘어진 피부	4 7.3%	4 7.3%
	벗겨진 머리	4 7.3%	4 7.3%
	환자복착용	1 1.8%	1 1.8%
	기타	2 3.6%	2 3.6%
전체		55 100.0%	55 100.0%

<표 3-15> 방송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노인의 걸모습(2)

		매체	
		KBS9뉴스	전체
걸모습2	틀니	1 6.3%	1 6.3%
	흰 머리	3 18.8%	3 18.8%
	전통의상	2 12.5%	2 12.5%
	허리가굽음	4 25.0%	4 25.0%
	느린말투	1 6.3%	1 6.3%
	빠른말투	1 6.3%	1 6.3%
	환자복착용	2 12.5%	2 12.5%
	기타	2 12.5%	2 12.5%
전체		16 100.0%	16 100.0%

<표 3-16> 노인대상 TV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외모)

		프로그램				소계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걸모 습(외 모)	주름살, 늘어진피부	58 47.9%	87 88.8%	32 61.5%	3 42.9%	180 64.7%
	틀니, 불편한치아	0 .0%	3 3.1%	0 .0%	0 .0%	3 1.1%
	흰머리, 수염, 벗겨진머리	63 52.1%	8 8.2%	20 38.5%	4 57.1%	95 34.2%
전체		121 100.0%	98 100.0%	52 100.0%	7 100.0%	278 100.0%

chi-square=52.2 (df=6, p=.001)

<표 3-17> 노인대상 TV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의복)

		프로그램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걸모습 (의복)	옷차림수수	33 25.8%	48 49.0%	15 28.8%	2 28.6%	98 34.4%
	전통한복	13 10.2%	9 9.2%	1 1.9%	0 .0%	23 8.1%
	작업복운동복제복	46 35.9%	34 34.7%	35 67.3%	2 28.6%	117 41.1%
	환자복	1 .8%	0 .0%	0 .0%	0 .0%	1 .4%
	부유세련깨끗	35 27.3%	7 7.1%	1 1.9%	3 42.9%	46 16.1%
전체	128 100.0%	98 100.0%	52 100.0%	7 100.0%	285 100.0%	

chi-square=49.7 (df=12, p=.001)

<표 3-18> 노인대상 TV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행동)

		프로그램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걸모습 (행동)	빠른말투	1 .8%	0 .0%	0 .0%	0 .0%	1 .3%
	느린말투	5 3.9%	0 .0%	0 .0%	1 14.3%	6 2.1%
	본나이보다어린, 건강한	114 88.4%	87 88.8%	52 100.0%	4 57.1%	257 89.9%
	신체제약	4 3.1%	5 5.1%	0 .0%	1 14.3%	10 3.5%
	보조도구	5 3.9%	6 6.1%	0 .0%	1 14.3%	12 4.2%
전체	129 100.0%	98 100.0%	52 100.0%	7 100.0%	286 100.0%	

chi-square=22.4 (df=12, p=.033)

### 3. 노인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

#### 가. 노인 프로그램 현황

##### 1) KBS 1TV <언제나 청춘>

<그림 3-5> KBS1 언제나 청춘



KBS 1TV <언제나 청춘>은 매주 일요일 오전 6시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방영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이재홍, 이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떴다 우리동네'는 희극인 백남봉이 전국 각지의 마을을 다니며 마을의 특산물과 주요 산업, 특장을 소개하고 그 마을 노년층과 연관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유흥을 즐기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복한 실버'는 노년을 적극적으로 보람되게 살아가는 특별한 노인을 만나 현장 취재와 스튜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도전 구구팔팔'은 각 분야 전문가의 대답을 통해 노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2) MBC TV <늘 푸른 인생>

<그림 3-6> MBC 늘 푸른 인생



MBC TV <늘 푸른 인생>은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안지용 연출, 이윤철, 강영은 아나운서 진행으로 '뽀빠이가 간다.', '찾아라 시니어스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소리'의 코너로 구성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다. <뽀빠이가 간다>는 MC 이상용이 전국 각지의 마을을 다니며 마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지역 거주 노인들의 과거사, 가족사 등을 인터뷰를 통해 재미있게 전달한다. <찾아라, 시니어스타!>는 노년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현장 취재를 통해 소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소리>는 매 회 다른 명창, 명인들이 출연하여 우리 소리를 들려준다.

### 3) MBC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

<그림 3-7> MBC 고향은 지금



MBC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김성환, 황선숙 MC의 진행으로 방송됐으며, 현재는 오전 7시 25분으로 방송 시간을 옮겼다. 주로 리포터들이 전국 각지의 특산물과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008년 11월부터는 노인대상 운동 정보 등을 추가하여 방송하고 있다.

### 4) SBS TV <백세 건강 스페셜>

<그림 3-8> 백세 건강 스페셜



SBS TV <백세 건강 스페셜>은 최영주, 박찬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월요일 오후 2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되며,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재방송된다. <백세 건강 스페셜>은 기획의도에서 '실버층을 겨냥하여 장수건강법

과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년을 앞둔 중, 장년층에게 유익한 특별한 건강 관리법을 소개하고 실버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가의 대담 형식으로 건강주제를 다루고 있다.

### 나. 노인 프로그램의 노인 문제 재현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은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 비해 주로 노인의 가정 사나 노인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환경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다른 매체에 비해서 노인의 여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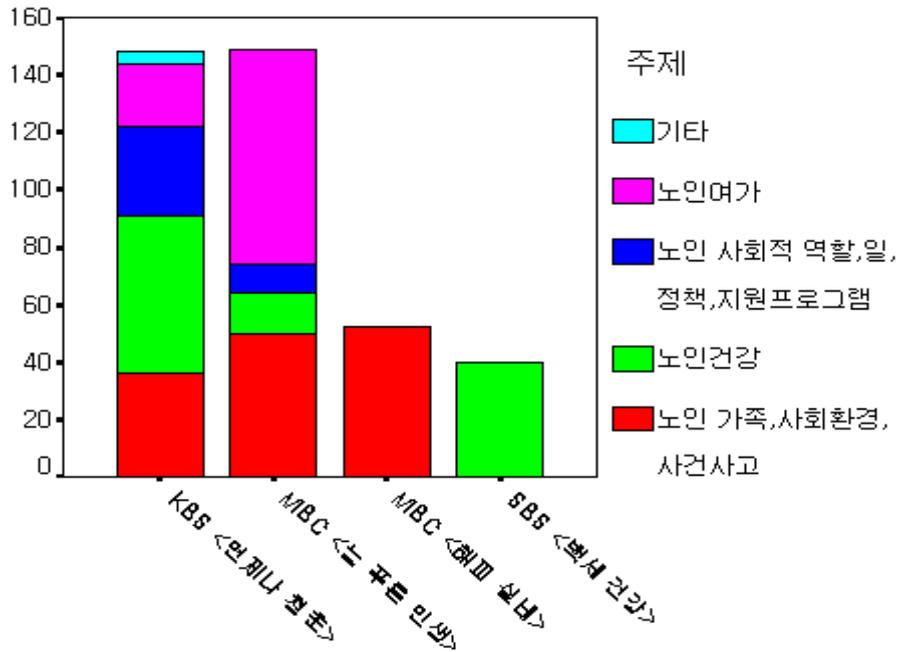
이것은 많은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필요로 하는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의 특성상 노인의 문제를 재미와 흥미, 관심사 위주로 다룬 결과로 분석된다.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 문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тем들이 가족과 잘 지내고, 젊은이처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노인들을 다루고 있다.

<표 3-19> 프로그램별 노인 주제의 차이

주제 \ 프로그램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노인 가족,사회환경,사건사고	36 24.3%	50 33.6%	52 100.0%		138 35.5%
노인건강	55 37.2%	14 9.4%		40 100.0%	109 28.0%
노인 사회적 역할,일,정책,지원프로그램	31 20.9%	10 6.7%			41 10.5%
노인여가	22 14.9%	75 50.3%			97 24.9%
기타	4 2.7%				4 1.0%
소계	148 100.0%	149 100.0%	52 100.0%	40 100.0%	389 100.0%

Chi-Square=292.9 (df =12, p= .001)

<그림 3-9> 프로그램별 노인 주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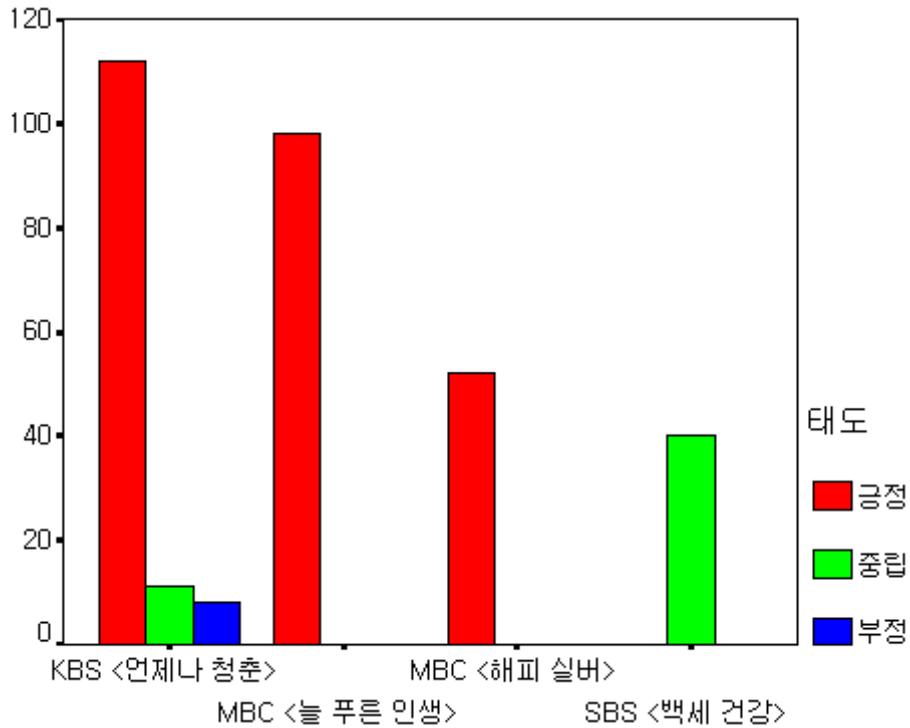


<표 3-20> 프로그램 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프로그램 \ 태도	태도			소계
	긍정	중립	부정	
KBS <언제나 청춘>	112 85%	11 8%	8 6%	131 100%
MBC <늘 푸른 인생>	98 100%			98 100%
MBC <해피 실버>	52 100%			52 100%
SBS <백세 건강>		40 100%		40 100%
소계	262 82%	51 16%	8 2%	321 100%

Chi-Square = 257.3 (df=6, p=.001)

<그림 3-10> 프로그램 별 노인 재현 태도의 차이



#### 다. 노인 프로그램의 노인 정체성 재현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TV화면 속의 노인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모습이고, 설령 지팡이나 의자에 의지하는 등 조금 불편해 보인다 해도 나이에 비하면 건강하고 젊다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노년이 자주 출연하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행복한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21> 프로그램별 노인 신체 묘사의 차이

프로그램 \ 신체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외모	2 1.5%	15 15.3%			17 5.2%
생리적변화	20 14.7%	1 1.0%		1 2.5%	22 6.7%
건강	107 78.7%	78 79.6%	52 100.0%		237 72.7%
허약왜소거동불편	1 .7%	4 4.1%			5 1.5%
질병유무	6 4.4%			39 97.5%	45 13.8%
소계	136 100.0%	98 100.0%	52 100.0%	40 100.0%	326 100.0%

Chi-Square = 323.9 (df=12, p=.001)

<표 3-22> 프로그램별 노인 심리 묘사의 차이

프로그램 \ 심리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인지능력	8 6.1%	11 11.2%	2 3.8%		21 7.4%
지혜	9 6.8%	14 14.3%	12 23.1%		35 12.3%
행동특성	36 27.3%	4 4.1%	31 59.6%	1 33.3%	72 25.3%
삶의 태도	77 58.3%	51 52.0%	5 9.6%	2 66.7%	135 47.4%
성격	2 1.5%	18 18.4%	2 3.8%		22 7.7%
소계	132 100.0%	98 100.0%	52 100.0%	3 100.0%	2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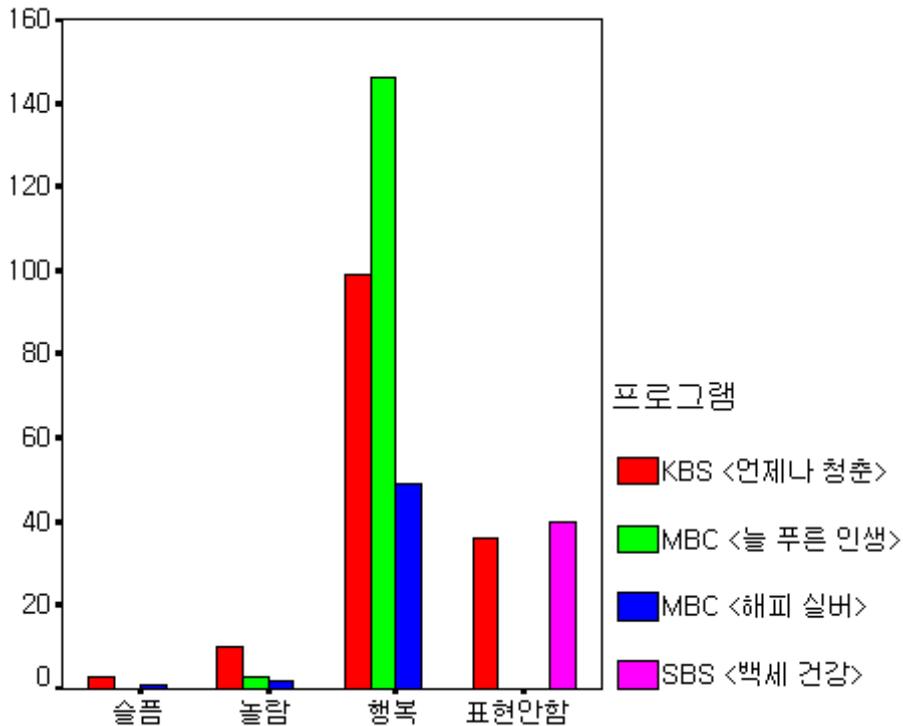
Chi-Square= 96.1 (df=12, p=.001)

<표 3-23> 프로그램별 노인 감정 묘사의 차이

프로그램 \ 감정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슬픔	3 2.0%		1 1.9%		4 1.0%
놀람	10 6.8%	3 2.0%	2 3.8%		15 3.9%
행복	99 66.9%	146 98.0%	49 94.2%		294 75.6%
표현안함	36 24.3%			40 100.0%	76 19.5%
소계	148 100.0%	149 100.0%	52 100.0%	40 100.0%	389 100.0%

Chi-Square = 227.4 (df=9, p= .001)

<그림 3-11> 프로그램별 노인 감정 묘사의 차이



## 라. 노인 프로그램의 노인 사회상황 재현

노인대상 TV프로그램의 경우 가족관계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나, 가정생활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전해 듣는 등 노인의 부부생활, 자녀와 형제간의 관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의 경우 가족관계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나, 가정생활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전해 듣는 등 노인의 부부생활, 자녀와 형제간의 관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의 경우 그 부의 정도야 어떻든 직업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가족의 도움이든 개인의 재산이든 저축액이 있어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년, 또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향유할 수 있는 각 분야 프로그램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상 TV프로그램의 경우 가벼운 주제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현실적인 빈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주로 제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노년의 운동 관련 이미지가 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의 건강 문제와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보다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24> 프로그램별 노인 가족 묘사의 차이

프로그램 가족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가족유형	6	4			10
	13.3%	4.7%			7.0%
가족관계	34	82	10	1	127
	75.6%	95.3%	100.0%	50.0%	88.8%
가족의존	1			1	2
	2.2%			50.0%	1.4%
가족내역할	4				4
	8.9%				2.8%
소계	45	86	10	2	143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49.9 (df=9, p=.001)

<표 3-25> 프로그램별 노인 사회관계 묘사의 차이

프로그램 사회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소 계
여가생활	71	39		110
	58.2%	66.1%		47.2%
사회적관계	51	20	52	123
	41.8%	33.9%	100.0%	52.8%
소계	122	59	52	233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60.9. (df=2, p=.001)

<표 3-26> 프로그램별 노인 경제상황 묘사의 차이

프로그램 경제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인생>	MBC <해피 실버>	소 계
경제적능력	56	32	52	140
	93.3%	100.0%	100.0%	97.2%
경제적무능력	4			4
	6.7%			2.8%
소계	60	32	52	144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5.8 (df=2, p=.056)

<표 3-27> 프로그램별 노인의 활동 표현 차이

프로그램 활동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휴식	15				15
	11.5%				4.7%
취미	23	8			31
	17.7%	8.2%			9.7%
가족생활	2	51			53
	1.5%	52.0%			16.6%
봉사	6	6			12

	4.6%	6.1%			3.8%
사회생활	45	8	52		105
	34.6%	8.2%	100.0%		32.8%
일탈행동	2				2
	1.5%				.6%
운동	37	25		40	102
	28.5%	25.5%		100.0%	31.9%
소계	130	98	52	40	32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334.7 (df=18, p=.001)

<표 3-28> 프로그램별 노인의 능력조사 차이

프로그램 능력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정신적	66	64	14		144
	47.8%	65.3%	26.9%		43.9%
경제적	4		1		5
	2.9%		1.9%		1.5%
사회적	6	5			11
	4.3%	5.1%			3.4%
신체적	62	29	37	40	168
	44.9%	29.6%	71.2%	100.0%	51.2%
소계	138	98	52	40	328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72.6 (df=9, p=.001)

### 마. 노인프로그램의 노인 재현과정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이 주 취재원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인터뷰 장면도 꽤 있었으나 이 경우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취재하고 그러한 장면에서 노인을 설명하는 정도로 삽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의 경우, 허리 위 상반신이 주로 많이 나오고,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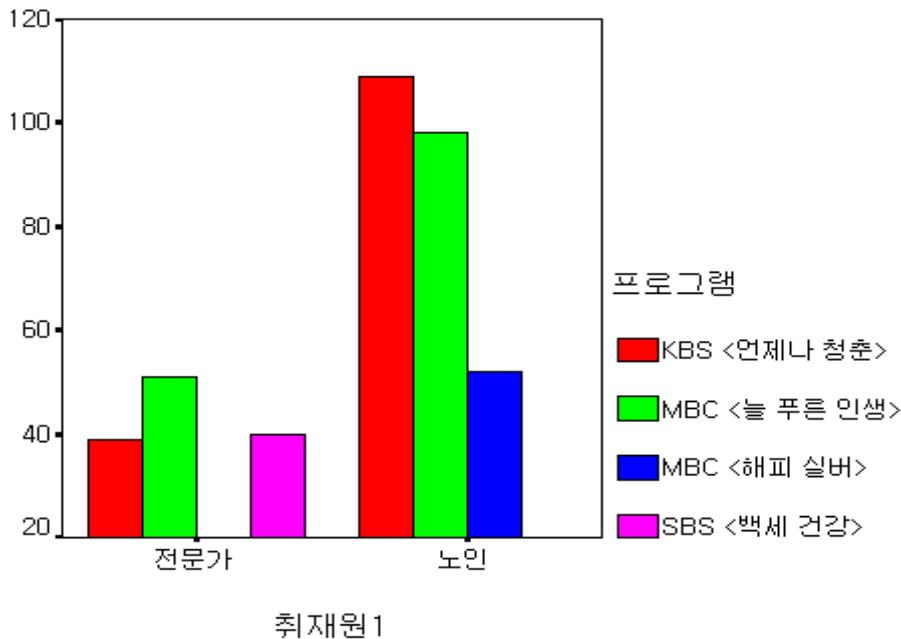
이나 일하는 모습 등을 보여줄 때 전신이 나오는 정도였다. 반면 TV뉴스의 경우, 얼굴 클로즈업이 많았다. 노인의 얘기와 행동을 주로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과 사건사고를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 상 화면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9> 프로그램별 노인 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1

프로그램 취재원1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전문가	39	51		40	130
	26.4%	34.2%		100.0%	33.4%
노인	109	98	52		259
	73.6%	65.8%	100.0%		66.6%
소계	148	149	52	40	389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109.2 (df=3, p=.001)

<그림 3-12> 프로그램별 노인 재현을 위한 취재원의 차이-1



<표 3-30> 프로그램별 노인 묘사에 있어 주인공의 차이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노인	108	98			206
	73.0%	65.8%			53.0%
사회적약자	1				1
	.7%				.3%
노인정책	37	51	52	40	180
	25.0%	34.2%	100.0%	100.0%	46.3%
봉사자	1				1
	.7%				.3%
11	1				1
	.7%				.3%
소계	148	149	52	40	389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146.0 (df=12, p=.001)

<표 3-31> 프로그램별 재현 과정에 있어 전개방식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리포터방송	49		52		101
	33.1%		100.0%		26.0%
사회자직접진행		51			51
		34.2%			13.1%
다큐멘터리형식	20	47			67
	13.5%	31.5%			17.2%
주인공직접출연	41	51			92
	27.7%	34.2%			23.7%
대담형식	35			40	75
	23.6%			100.0%	19.3%
사진활용방송	3				3
	2.0%				.8%
소계	148	149	52	40	389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488.8 (df=15, p=.001)

<표 3-32> 프로그램별 노인 신체부위 묘사의 차이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소계
전신	47	31	22	1	101
	34.6%	31.6%	42.3%	14.3%	34.5%
얼굴	3				3
	2.2%				1.0%
상반신	78	67	26	6	177
	57.4%	68.4%	50.0%	85.7%	60.4%
옆모습	7		4		11
	5.1%		7.7%		3.8%
기타	1				1
	.7%				.3%
소계	136	98	52	7	293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 16.3 (df =12, p=.178)

#### 4. 노인전문 채널 ‘실버TV’ 분석

##### 가. 실버TV 개요

###### 1) 실버TV 소개

- (1) 방송분야: 노인문화
- (2) 시험방송: 2005년 10월 1일
- (3) 방송개국: 2005년 12월 1일
- (4) 채널 공급 유형: 베이직 채널(케이블·위성)
- (5) 방송이념: 노년층 및 소외계층의 방송주권 실현,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세대 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노년층의 사회참여로 국가경쟁력 확보
- (6) 방송지표: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인, 활기찬 노후
- (7) 목표시청자: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 2) 실버TV 주요 프로그램

### (1) 행복한 새 출발, 인생 제2막

- 제작 형태: 자체 제작
- 편당 프로그램 길이: 50분
- 제작 편수: 8편(주 1회)
- 편당 제작비: 1400만원
- 프로그램내용: 현업에서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성공을 이룬 행복한 노년층을 초대하여, 인생 제2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 (2) 원더풀 IT 세상

- 제작 형태: 자체 제작
- 편당 프로그램 길이: 30분
- 제작 편수: 20편(주 1회)
- 편당 제작비: 500만원
- 프로그램내용: IT소외계층에게도 정보화의 혜택을 나누고, 개그맨 MC가 농어촌을 방문하여, 고향의 정다운 이야기도 나누는 고향방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 (3) 보면 약이 되는 TV

- 제작 형태: 외주 제작
- 편당 프로그램 길이: 50분
- 제작 편수: 20편(주 1회)
- 편당 구매비용: 500만원
- 프로그램내용: 서양의학에서부터 한방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정보와 의학 정보를 제공

### (4) 백남봉쇼

- 제작 형태: 자체 제작
- 편당 프로그램 길이: 50분
- 제작 편수: 36편(주2회)
- 편당 제작비: 1400만원

o 프로그램내용: 코미디언 백남봉의 진행과 극장쇼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꾸며지는 실버테인먼트의 대표적 프로그램

(5) 소외극복 프로젝트 ‘황혼 재혼’

o 제작 형태: 자체 제작

o 편당 프로그램 길이: 50분

o 제작 편수: 10편 (주당 1편)

o 편당 제작비: 1400만원

o 프로그램내용: 실버세대의 황혼재혼이 늘어감에 있어 이들의 재혼생활이 과연 어떠한지, 제2의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간에 벌어지는 문제부터 자녀간의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6) 초고령 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o 제작 형태: 자체제작

o 편당 프로그램 길이: 50분

o 제작 편수: 4편 (주당 1편)

o 편당 제작비: 3,500만원

o 프로그램내용: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 나. 실버TV 편성 분석

실버TV의 편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실버TV방영 프로그램의 시간대, 길이, 주제, 본방송/재방송 여부 등을 분석했다.

### 1) 프로그램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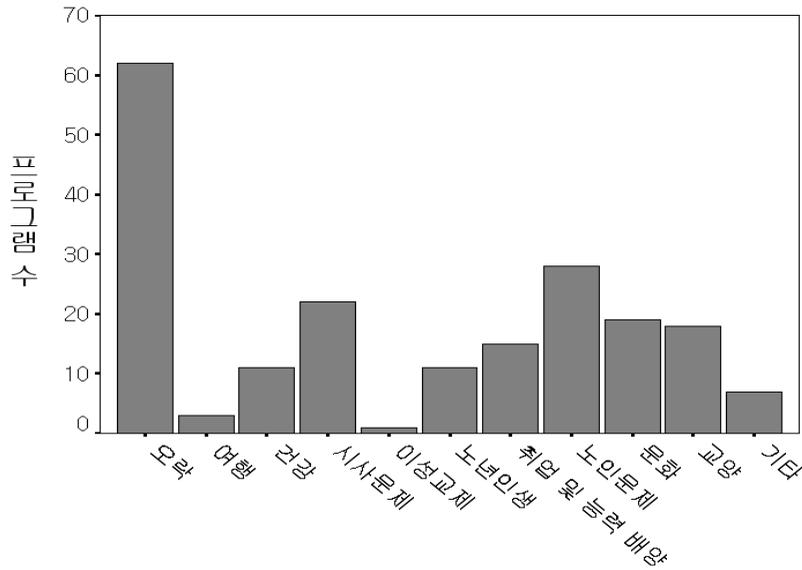
<표 3-33>과 <그림 3-13>에는 실버TV가 일주일 동안 방영했던 프로그램의 주제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한 프로그램은 ‘백남봉쇼’, ‘셀위댄스’, ‘아이 러브 트로트’, ‘빅쇼’등과 같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62건, 전체의 31.5%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는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신문고를 올려라’와 같이 노인문제의 현황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28건, 14.2%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니어 건강체조’, ‘보면 약이되는 TV’와 같은 건강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준고령자 능력개발’, ‘TV창업 성공이 보인다’ 등과 같이 노인의 취업이나 경제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은 각각 11건(5.6%)과 15건(7.6%)로 생각보다는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의 이성 교제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은 화제가 됐던 ‘소외극복 프로젝트-황혼재혼’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표 3-33> 실버TV 프로그램의 주제

프로그램의 주제	빈도	백분율
오락	62	31.5%
여행	3	1.5%
건강	11	5.6%
시사교양	22	11.2%
이성교제/재혼	1	.5%
노년인생	11	5.6%
경제문제	15	7.6%
노인문제	28	14.2%
문화	19	9.6%
기타 교양	18	9.1%
기타	7	3.6%
Total	197	100.0%

<그림 3-13> 실버TV 프로그램 주제별 빈도수



한편, <표 3-34>와 <표3-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버TV의 편성에서 본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은 64.5% 대 35.5%였고, 30분짜리 프로그램과 50분짜리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3-34> 실버TV의 본방송/재방송 비율

본방송/재방송	빈도	백분율
본방	127	64.5%
재방	70	35.5%
Total	197	100.0%

<표 3-35> 실버TV의 프로그램 당 방영 시간

프로그램 길이	빈도	백분율
20분	17	8.6%
30분	62	31.5%
40분	6	3.0%
50분	110	55.8%
80분	2	1.0%
Total	197	100.0%

## 2) 시간대 별 프로그램 주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6>에 제시되어 있다. 실버TV의 편성분석에서 앞서 RLTV의 편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4대의 시간대로 나누었는데, 오후 11에서부터 익일 오전 7시 까지를 심야/새벽 시간대로,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를 오전 시간대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후 시간대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저녁 시간대로 각각 분류했다. 분석결과, 노인들의 주 시청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오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는 오락 프로그램과 노인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5%였으나, 오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와 43.8%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문제를 다룬 프로그램도 오전 가 저녁 시간대의 25.0%와 18.8%를 차지해 전체 비중보다 이 시간대에 방영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시사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은 심야/새벽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 방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3-36> 실버TV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주제 분포

프로그램 주제	시간대				전체
	심야/새벽	오전	오후	저녁	
오락	16(21.1%)	17(47.2%)	15(28.3%)	14(43.8%)	62(31.5%)
여행	-	-	3(5.7%)	-	3(1.5%)
건강	5(6.6%)	3(8.3%)	3(5.7%)	-	11(5.6%)
시사 문제	9(11.8%)	2(5.6%)	8(15.1%)	3(9.4%)	22(11.2%)
이성 교체	-	1(2.8%)	-	-	1(.5%)
노년 인생	3(3.9%)	1(2.8%)	4(7.5%)	3(9.4%)	11(5.6%)
경제문제	10(13.2%)	1(2.8%)	-	4(12.5%)	15(7.6%)
노인문제	5(6.6%)	9(25.0%)	8(15.1%)	6(18.8%)	28(14.2%)
문화	10(13.2%)	1(2.8%)	6(11.3%)	2(6.3%)	19(9.6%)
교양	14(18.4%)	-	4(7.5%)	-	18(9.1%)
기타	4(5.3%)	1(2.8%)	2(3.8%)	-	7(3.6%)
전체	76(38.6%)	36(18.3%)	53(26.9%)	32(16.2%)	197(100.0%)

주)  $\chi^2$  (30, N = 197) = 60.523, p < .001

프로그램의 주제를 주중, 주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3-3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주중과 주말의 편성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편성은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시청자들의 생활 패턴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편성에서도 주중과 주말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7> 실버TV의 주중/주말 프로그램 주제 분포

주제	주중	주말	전체
오락	42(31.1%)	20(32.3%)	62(31.5%)
여행	3(2.2%)	-	3(1.5%)
건강	7(5.2%)	4(6.5%)	11(5.6%)
시사교양	15(11.1%)	7(11.3%)	22(11.2%)
이성교제	1(.7%)	-	1(.5%)
노년인생	8(5.9%)	3(4.8%)	11(5.6%)
경제문제	10(7.4%)	5(8.1%)	15(7.6%)
노인문제	20(14.8%)	8(12.9%)	28(14.2%)
문화	12(8.9%)	7(11.3%)	19(9.6%)
교양	11(8.1%)	7(11.3%)	18(9.1%)
기타	6(4.4%)	1(1.6%)	7(3.6%)
전체	135(68.5%)	62(31.5%)	197(100.0%)

## 5. 노인 프로그램 제작자 심층 인터뷰

### 가.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인터뷰 방식

인터뷰 대상자는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고 있는 방송사의 실무 담당자를 선별해서 선정했다. 문화방송과 강원민방의 편성 담당자 1인씩을 인터뷰했으며, 실버TV의 경우 그 전문성과 제작 프로그램의 편수 등을 고려해서 3명을 인터뷰 했다. 인터뷰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 대상자와 접촉하여 해당 방송사를 직접

방문했다. 인터뷰는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소요된 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였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보충 인터뷰를 실시했다.

<표 3-38>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연번	소속사	담당 업무	직급
1	문화방송	편성	부장
2	강원민방	편성	팀장
3	실버TV	경영	최고 경영자
4	실버TV	제작	부장
5	실버TV	편성	차장

## 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5명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노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노인 프로그램의 시장 상황, 노인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향 등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문화방송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목표 수용자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층의 시청률이 증가하면서 아예 노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늘 푸른 인생>과 <고향은 지금>이 있는데, <고향은 지금>은 처음에는 고향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자중에 노인층이 많아서 시청자층에 맞춰서 노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문화방송 편성 실무자)

노년층이 많은 지역 사회의 특성상, 지역 민방의 경우 자체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표 수용자에 기본적으로 노인층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즉 특별히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기본적으로 노인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노인 타겟이 들어가 있다. 매일 뉴스, 매거진을 제외한 휴먼 다큐, 교양 프로그램은 노인층이 주요 대상 시청자로 포함돼 있다. (중략) 춘천지역 시청률 조사 분석을 보면, 전형적인 노년층 시청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KBS <가요무대>가 방송될 때는 다른 세군데 방송사 드라마 시청률 보다 높다. 시청대에 다른 10대 쇼 편성해도 뉴스 프로그램인 <나이트 라인>의 시청률이 높다. 지역 노령층들이 뉴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원민방 편성 실무자)

또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가 커질 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한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되어 있었다.

“현재 인구분포에서 50대층 시청자들이 많아 이들이 노령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문화방송 편성 실무자)

“사실 지금도 노인들은 다양하다. 노인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도 다르고, 라이프스타일도 다르고, 따라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다르다. (중략)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노인층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변화된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할 예정이다. 사실 댄스 프로그램의 경우도 몇 년 지나서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앞당겨 제작했다.” (실버 TV 제작 실무자)

## 2) 노인 프로그램의 제작 여건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노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편성, 제작 실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과

노인층의 구매력 부족에 따른 광고 문제, 이와 연관된 제작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가) 시청률과 구매력, 광고 문제

시청자들의 구매력, 시청률, 광고를 매개로 한 시장 경쟁에서 노인 프로그램의 제작 환경은 지극히 열악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노인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구매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때 유망한 시장으로 인식됐던 실버산업도 노인층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이유로 현재 대단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 프로그램의 광고주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국 노인들은 소득이나 자산 기반 없어 구매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소외 계층 비슷한 처지이다. 장기적으로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러하므로 방송사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방송 편성 실무자)

“실제 광고가 별로 없다. 노인 프로그램의 주 광고주는 실버산업이 돼야 하는데, 실제 한국의 실버산업이 허상이다.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다. 노인의 구매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로 인백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정도이다. 그나마 보험이나 상호회사 광고는 꾸준한 편이다.” (실버TV 경영 담당자)

또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노인 문제를 노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몇 편 정도밖에 제작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제작 방향이 지나치게 시장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가 노인 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데 실무자들은 공감하고 있었다.

방송이 광고수입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층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광고주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이 노인 텔레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방송 편성 실무자)

## 나) 제작비 문제

노인 시청자들의 시청률과 구매력, 노인 프로그램의 광고주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 프로그램의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민방의 경우 안정적으로 노인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하는 것이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방송이라고 해도 지상파에서 노인만을 다루고 노인만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략) 지역방송에서는 특집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중앙사에서 해야 한다.” (강원민방 편성 실무자)

또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 시청자들의 수요는 알고 있으나, 시장이 작은 조건에서는 지역 민방이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실버TV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는 있으나 그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는 고백도 있었다.

“대구나 부산의 지역민방은 대도시니까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민방의 경우는 엄두를 내기가 힘들다.” (강원민방 편성 실무자)

“대체로 오락에 대한 요구가 많다. ‘백남봉쇼’나 ‘황혼 재혼’의 시청률도 높고. 하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실버TV 제작 실무자)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케이블 채널의 경우,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편성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상파 방송처럼 6개월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편성,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작된 유사 프로그램들로 동일한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 지상파 방송처럼 6개월 단위로 편성계획을 잡기 힘들다. 제작 여건, 특히 비용 문제 때문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띠편성, zone 편성 개념으로 간다.” (실버TV 편성 실무자)

### 3) 해결 방안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KBS와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문화방송과 민방은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 프로그램을 확대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KBS1과 같이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공영방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방송의 경우는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KBS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화방송 편성 실무자)

“KBS 1TV 등 공영방송이 일정정도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채널까지 그 역할 강제하는 것은 문제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권장 사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원민방 편성 실무자)

하지만 KBS1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만으로는 노인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급할 수없이 때문에, 노인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KBS1도 그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의 시청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점차로 다양화되고 있고, 그 양도 많아져야 되는데, 지상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전문화된 채널로서 케이블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실버TV 제작 실무자)

하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노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가의 문제가 결국 자율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노인 프로그램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하다. 방통위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비의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 프로그램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 (중략) 노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할 수 있는 노인 프로그램들이 신설되고 제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방송 편성 실무자)

“노인 프로그램의 경우는 소외계층 프로그램 제작 지원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제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강원민방 편성 실무자)

“결국 제작비 지원이 아니겠는가?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차로 증가하는데, 미디어 시장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공적인 부문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공익 채널로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실버TV 제작 실무자)

## **6. 요약: 미디어속의 노인, 미디어의 역할**

### **가. 매체의 성격에 따른 노인재현의 차이**

매체에 따라 노인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제가 달랐다. 또한 노인문제를 재현하는 태도도 달랐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저널리즘 장르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노인 정책, 건강 등과 같은 실용적인 정책을 주로 다룬 반면, TV 교양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의 가정사나 노인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환경, 여가생활 등 노인의 일상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매체별로 노인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는 신문과 인터넷클럽은 노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 반면, 텔레비전 뉴스는 사건 기사 위주여서인지 부정적 태도가 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TV교양 프로그램은 노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 **나. 노인 대상 지상파 프로그램의 문제**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TV화면 속의 노인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모습이고, 설령 지팡이

나 의자에 의지하는 등 조금 불편해 보인다 해도 나이에 비하면 건강하고 젊다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노년이 자주 출연하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행복한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다. 노인전문 채널 ‘실버TV’ 분석**

2005년 개국한 노인전문채널 ‘실버 TV’는 노년층 및 소외계층의 방송주권 실현,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세대 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노년층의 사회참여로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방송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채널의 편성 비중은 오락 (31.5%), 노인문제 해결 (14.2%) 순이고, 노인의 취업 문제 (7.6%), 건강문제 (5.6%)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화제를 모았던 ‘소외극복 프로젝트 - 황혼재혼’ 등 차별화된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은 이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시청률이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버TV의 편성에서 본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은 64.5% 대 35.5%여서 제작비 과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라. 노인 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심층 인터뷰**

노인프로그램 제작, 편성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노인방송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문화방송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목표 수용자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층의 시청률이 증가하면서 아예 노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 노인프로그램 공급 여건 열악: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노인 프로그램

을 제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편성, 제작 실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과 노인층의 구매력 부족에 따른 광고 문제, 이와 연관된 제작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공영방송 역할론: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KBS와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문화방송과 민방은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 프로그램을 확대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KBS1과 같이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공영방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노인전문채널 역할론: KBS1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만으로는 노인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급할 수없이 때문에, 노인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KBS1도 그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의 시청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IV.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문제

### 1. 연구문제: 미디어 이용과 노인복지

#### 가.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파악 및 문제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연구는 세대별 미디어 이용 차이에 관한 연구의 전통에서 비롯된 바 크다. 특히 최근 들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년층의 초점을 맞춘 미디어 이용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이용 연구는 주로 기존의 정보 격차 이론과 이용과 충족 이론에 근거하여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이 다른 세대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고, 주로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동기와 만족도에 초점을 맞췄다. 그나마 국내 연구는 선행연구가 매우 빈곤한 편이다. 노인복지와 연결된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연구는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환경 요인을 주요한 변인으로 설명을 시도했으며 노인복지 문제와 미디어 연구를 본격적으로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조사에서 미디어 이용을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변인들에 비중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다.

#### 나. 연구방법: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서베이 및 심층인터뷰

##### 1) 서베이

###### 가) 조사대상

대도시 (서울)와 중소도시 및 농촌(춘천)의 65세 이상 노령층 각 300명씩 총 600명. 표본은 지역별,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균등하게 할당 배분했다. 연령은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뉘 지역별로 1백 명씩 할당 표집했다. 결과적으로 서베이 조사한 이후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세베이 표본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4-1> 서베이 표본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분포

		연 령							
거주			65	70	75	80	85	90	소계
서울	성별	남자	46	24	24	16	15	8	133
			48.9%	45.3%	53.3%	31.4%	45.5%	47.1%	45.4%
	여자	48	29	21	35	18	9	160	
		51.1%	54.7%	46.7%	68.6%	54.5%	52.9%	54.6%	
소계		94	53	45	51	33	17	2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춘천	성별	남자	34	49	49	16	8	2	158
			46.6%	51.6%	49.5%	43.2%	50.0%	66.7%	48.9%
	여자	39	46	50	21	8	1	165	
		53.4%	48.4%	50.5%	56.8%	50.0%	33.3%	51.1%	
소계		73	95	99	37	16	3	3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분석유목

- 노인의 미디어 이용동기에 따른 미디어 이용습관의 차이
  - (1) 노인의 미디어 이용 동기는 무엇인가?
  - (2) 노인의 미디어 이용 동기에 따른 이용 습관의 차이는 어떠한가?
- 노인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미디어 이용정도의 차이
  - (1) 학력, 거주지, 수입 등 노인의 환경적 요인은 미디어 이용에 관련이 있는가?
  - (2) 노인의 소외감은 미디어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노인의 삶에 있어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1) 노인을 위한 콘텐츠 부족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미디어는 노인의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미디어 매체에 따른 노인의 개방성에 차이가 있는가?
  - (1) 사용하는 미디어에 따른 개인 생활 및 사회적 태도, 생활의 차이
  - (2) 사용하는 미디어에 따른 사회자본, 사회 참여도의 차이
- 노인층의 미디어 평가
  - (1) 사회적 노인 이미지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노인의 이미지는 차이가 있는가?
  - (2) 미디어는 과연 노인들을 현실적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다) 변인 측정

# 미디어 이용현황

: TV, 휴대폰, 인터넷 등 미디어를 각각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개방형 질문으로 분 단위 측정.

# TV 의존도

:노인들이 TV에 대해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4개의 하부항목을 중독성향, 여가시간활용 등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 TV 이용 동기

: 노인들의 TV의 이용 동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동기에 관한 서베이 문항을 9개로 지정하여 5점 척도로 각각 조사.

# 인터넷 이용 동기

: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 동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 동기에 관한 하부 문항을 12개로 지정하여 5점 척도로 각각 조사.

#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정도

: 노인들의 젊은 세대의 언어문화, 노출, 이혼문제 등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성을 알아보는 척도로 4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

# 각 미디어 별 이용 여부와 이유 및 비이용 이유

: 각 미디어 별의 이용 여부를 확인 후 즐겨보는 분야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할 것이다. 또한 각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개방형으로 적도록 할 것.

# TV 이용 만족도 (미디어 콘텐츠 만족도)

: 노인들이 TV를 이용하면서 TV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편성시간, 편성개수, 내용을 3개의 하부 항목을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

# 사회자본의 참여정도

: 노인들이 사회 자본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동창회, 종교모임, 인권단체, 지역모임, 봉사단체 등) 알기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개수를 측정.

# 사회적 고립정도

: 노인들은 현재 자신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 인구통계학적 정보

# 노인들의 이미지 측정

: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주변의 일반적인 노인 이미지, TV속에서 나타나는 노인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지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의 이미지를 각각 정신/경제/신체/사회적 등 5개 하부항목으로 분류하여 5점 척도로 조사.

# 미디어 이용 행태 구분

: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이용하는지 도구적으로 이용하는지 구분하기 위한 항목을 4지 선다형으로 문항을 책정, 그 중 하나를 택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

## 2) 노인 심층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는 1차적으로 면접 서베이 과정에서 심층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 자신의 미디어 이용 행태나 이용 동기에 대해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판단에 기초해 선정했다. 하지만 1차 선정에서 충분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종교 단체, 노인 대학, 봉사 단체 등의 노인 공동체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총 15명의 노인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인터뷰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 대상자와 접촉하여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후, 인터뷰 대상자가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했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으며, 몇 가지 주요 질문들 외에는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2.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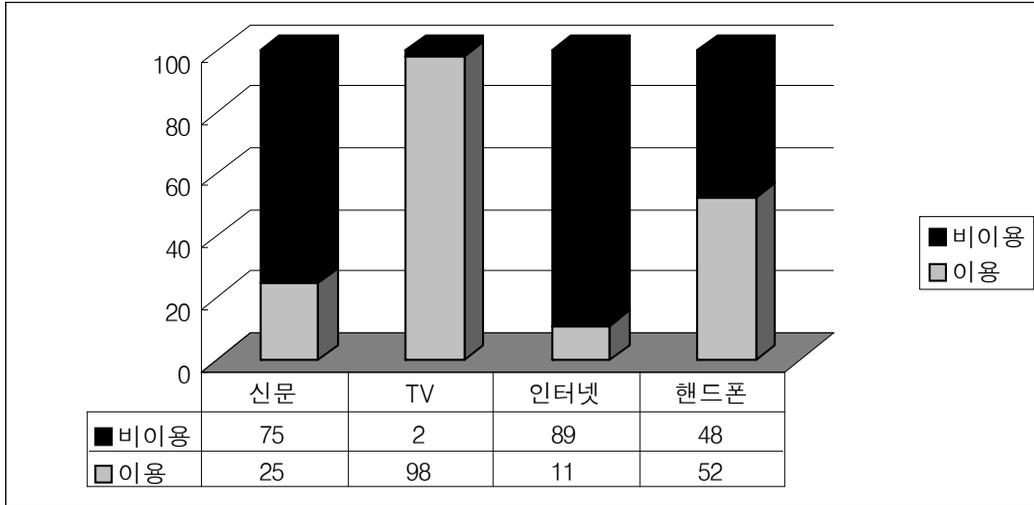
### 가. 매체별 이용 현황과 경향

#### 1) TV 의존 현상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의 매체별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노령층의 모든 연령층이 텔레비전을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문을 이용은 전체 조사대상 노령인구의 25%, 인터넷 이용은 11%,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노령층은 52%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층은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30분 동안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림 4-1> 노령층의 매체별 이용 현황



<표 4-2> 노령층의 하루 평균 매체별 이용 시간

	하루 평균 이용시간	분산
신문	30분	.6488
TV	4시간 30분	2.3047
인터넷	18분	.6479
핸드폰	2.5회	3.295

## 2) 신문과 인터넷 이용의 “70세 세대차” 현상

신문과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 60대 후반부 노령층과 70세 이상의 노령층 집단 간의 이른바 세대차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됐다. 신문의 열독률은 65세에서 69세의 연령대가 4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70대로 가면 20%, 그리고 80대에는 10%로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층의 신문 열독률이 젊은 층에 비해 오히려 높은 미국의 사례와 비교된다. 이것은 미국의 노령층에 비해 우리나라 노령층 인구가 젊은 시절 당면했던 취약한 경제 여건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내 세대차는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65세대 연령대의 23%가 인터넷 이용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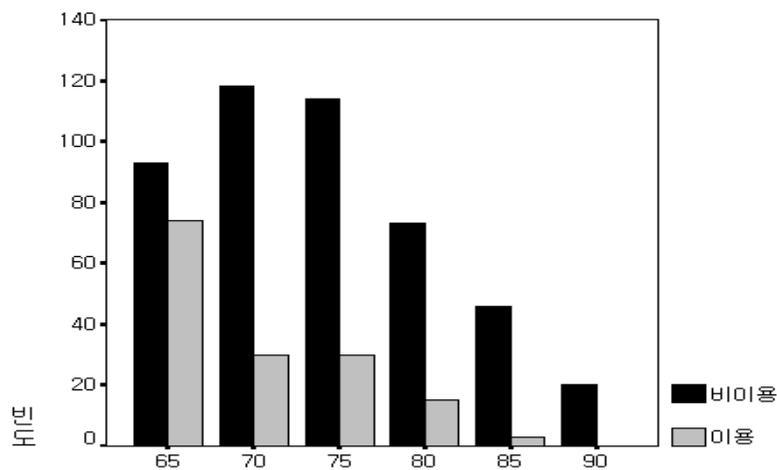
이후 세대로 가면, 한자리수의 이용률에 머무르고 있다.

핸드폰은 65세대 노령층 인구의 4명중 3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70세대는 약 절반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령별 신문 열독/비열독률

연령	열독 비열독		소계
	비이용	이용	
65	93	74	167
	55.7%	44.3%	100.0%
70	118	30	148
	79.7%	20.3%	100.0%
75	114	30	144
	79.2%	20.8%	100.0%
80	73	15	88
	83.0%	17.0%	100.0%
85	46	3	49
	93.9%	6.1%	100.0%
90	20		20
	100.0%		100.0%
소계	464	152	616
	75.3%	2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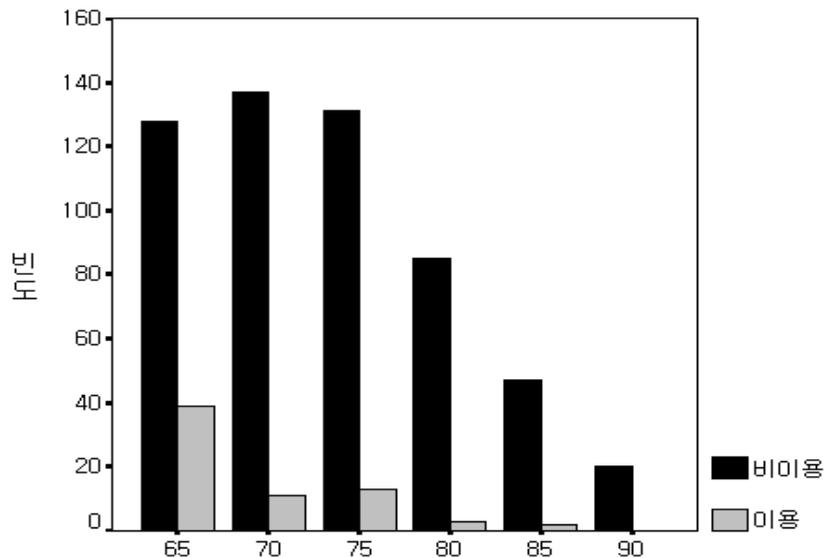
<그림 4-2> 연령별 신문 열독/비열독률



<표 4-4>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유무

연령	인터넷 사용 유무		소계
	비이용	이용	
65	128	39	167
	76.6%	23.4%	100.0%
70	137	11	148
	92.6%	7.4%	100.0%
75	131	13	144
	91.0%	9.0%	100.0%
80	85	3	88
	96.6%	3.4%	100.0%
85	47	2	49
	95.9%	4.1%	100.0%
90	20		20
	100.0%		100.0%
소계	548	68	616
	89.0%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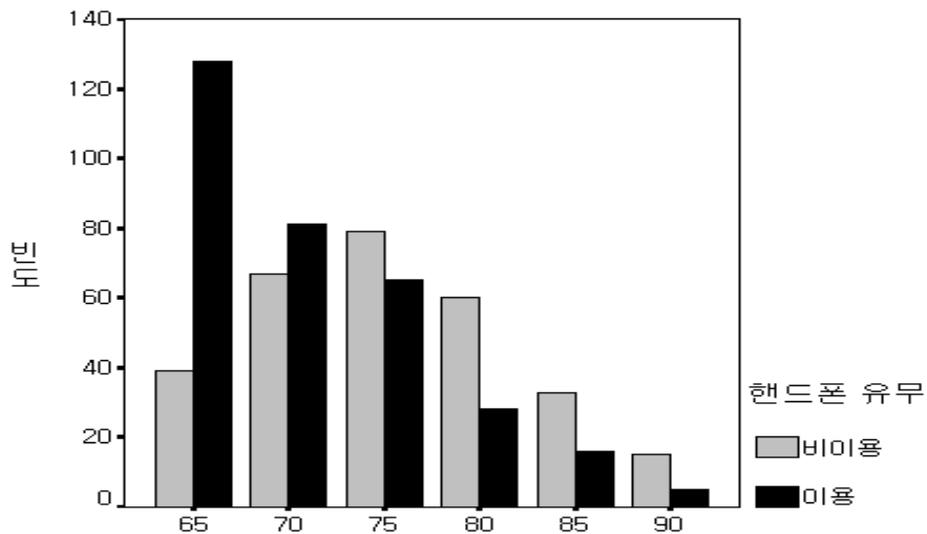
<그림 4-3>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 유무



<표 4-5> 연령대별 휴대폰 사용 유무

연령	핸드폰 유무		소계
	비이용	이용	
65	39	128	167
	23.4%	76.6%	100.0%
70	67	81	148
	45.3%	54.7%	100.0%
75	79	65	144
	54.9%	45.1%	100.0%
80	60	28	88
	68.2%	31.8%	100.0%
85	33	16	49
	67.3%	32.7%	100.0%
90	15	5	20
	75.0%	25.0%	100.0%
소계	293	323	616
	47.6%	5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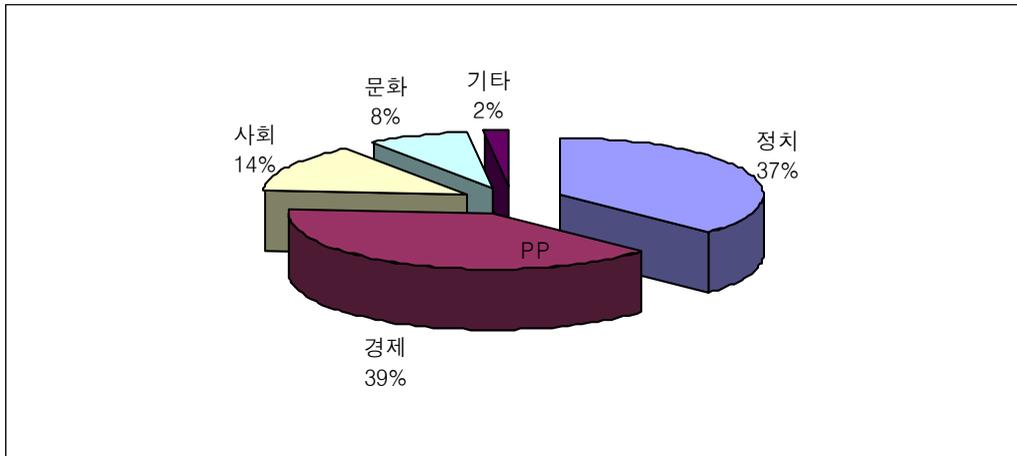
<그림 4-4> 연령대별 휴대폰 사용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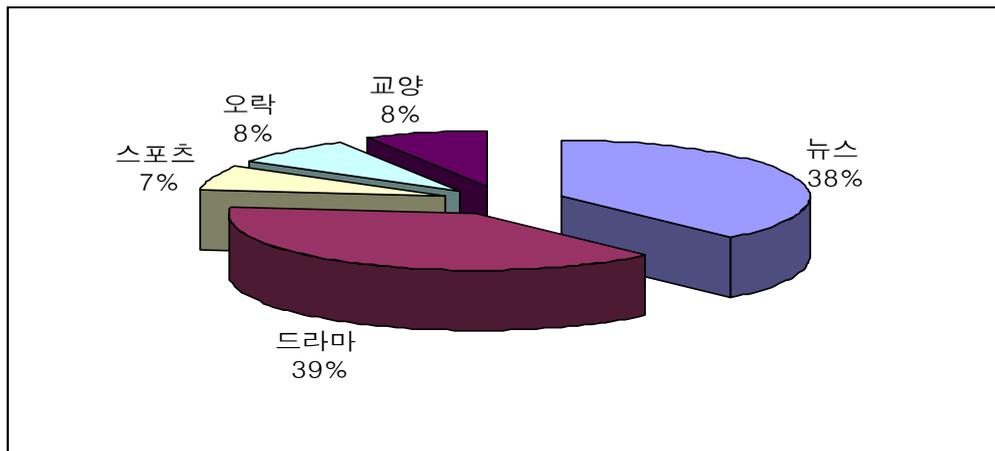
### 3) 신문은 정치 경제, TV는 뉴스 드라마

노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장르는 신문의 경우는 정치, 경제와 같은 경성 뉴스, 텔레비전의 경우는 뉴스와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신문 열독 노인들의 열독 분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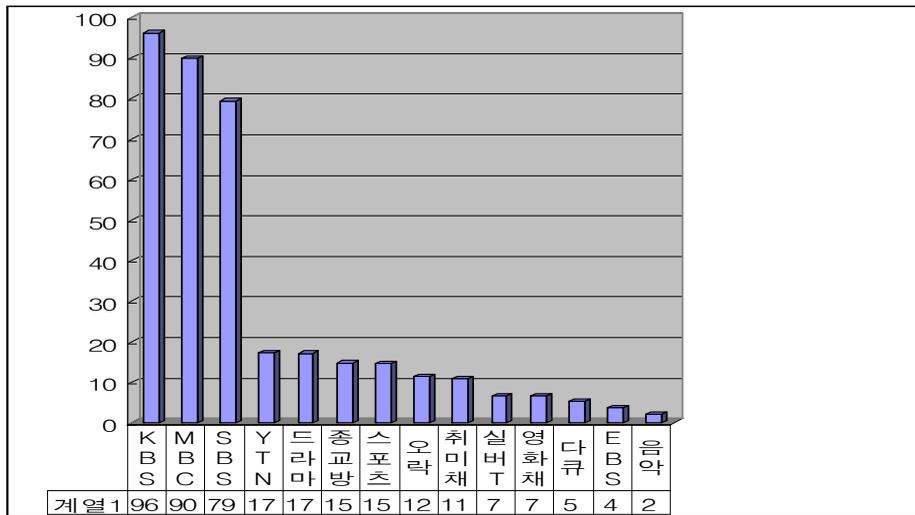
<그림 4-6> TV시청 노인들의 시청 분야 분포



#### 4) 채널 레퍼토리: 지상파 지배적

노령층 인구 개인별로 주로 보는 채널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 노령인구의 약 83%가 지상파만을 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채널별 시청률 (지난 일주일동안 20분 이상 시청한 채널)



<표 4-6> 채널 레퍼토리

집단	채널 레퍼토리	집단크기
1	KBS, MBC,	71
2	KBS, MBC, SBS	378
3	KBS	62
4	KBS, MBC, SBS, 종교, 스포츠, 취미	81
5	KBS, MBC, SBS, 뉴스, 드라마, 영화	24
소계		616

<표 4-7> 거주 지역에 따른 채널 레퍼토리

채널	채널	거주 지역		소계
		서울	춘천	
채널	K, M, S,	10	14	24

레퍼토리	뉴, 영, 드	3.4%	4.3%	3.9%
	K, M, S, 중, 스, 취	56	25	81
		19.1%	7.7%	13.1%
	K	13	49	62
		4.4%	15.2%	10.1%
	K, M, S	202	176	378
		68.9%	54.5%	61.4%
	K, M	12	59	71
4.1%		18.3%	11.5%	
소계		293	323	616
		100.0%	100.0%	100.0%

※ K:KBS , M:MBC , S:SBS , 뉴:뉴스채널 , 영:영화채널 , 드:드라마채널 ,  
중:종교채널, 스:스포츠채널 , 취 :취미채널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경우 KBS와 MBC만을 시청하는 노령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노령층의 학력과 채널레퍼토리의 다양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채널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지상파 채널, 그것도 KBS 단일 채널, 또는 KBS, MBC만을 시청할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8> 학력 집단에 따른 채널 레퍼토리

	채널	학력 집단				소계
		무학	초중	고등	대학	
채널 레퍼토리	K, M, S, 뉴, 영, 드	2	9	10	3	24
		1.7%	3.0%	6.3%	7.3%	3.9%
	K, M, S, 중, 스, 취	5	25	38	13	81
		4.3%	8.3%	24.1%	31.7%	13.1%
	K	12	30	13	7	62
		10.3%	10.0%	8.2%	17.1%	10.1%
	K, M, S	78	201	84	15	378

		67.2%	66.8%	53.2%	36.6%	61.4%
	K, M	19	36	13	3	71
		16.4%	12.0%	8.2%	7.3%	11.5%
소계		116	301	158	41	616
		100.0%	100.0%	100.0%	100.0%	100.0%

※ K:KBS , M:MBC , S:SBS , 뉴:뉴스채널 , 영:영화채널 , 드:드라마채널 ,  
 종:종교채널, 스포:스포츠채널 , 취 :취미채널

### 5) 노인 대상 프로그램 시청률 저조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노령층의 시청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최근 한 달 동안 시청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체크하도록 측정해 봤다. 조사 결과, 지상파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4개와 실버 TV의 대표 프로그램 2개의 평균 시청률은 24%로 비교적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한달에 한번 이상 보는 노령층 인구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의 시청률은 41%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층의 KBS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노인 전문 채널인 실버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의 한달단위 시청률은 14% 정도로 나타나 노인 채널이 노령층 집단들에게 상시적으로 애용되는 채널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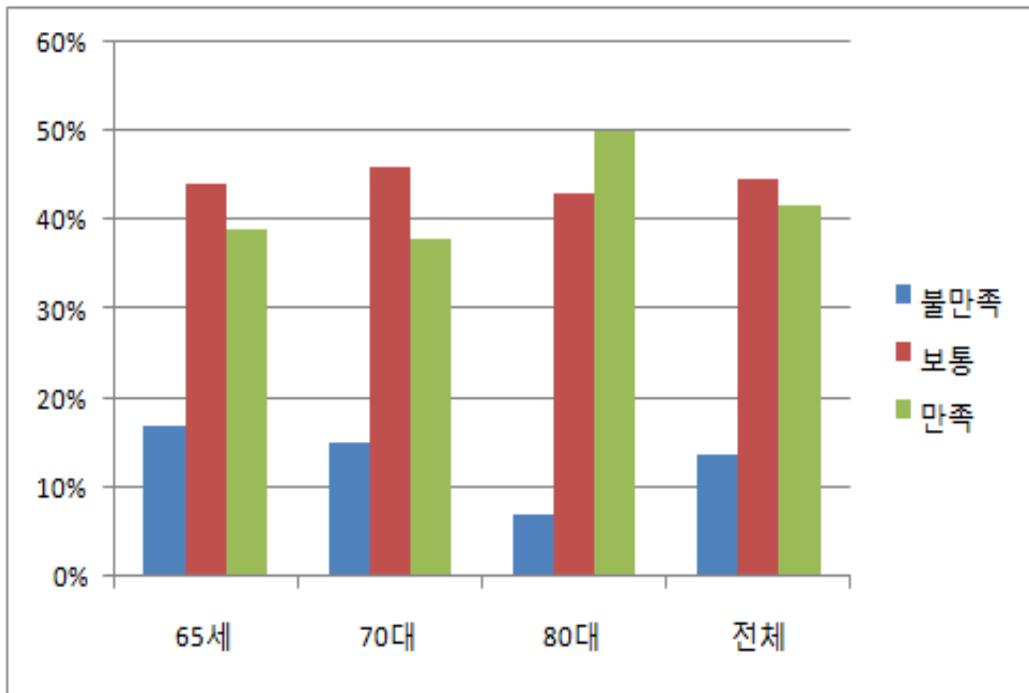
남녀 노령층간의 시청률 비교는 여성 보다는 남성의 시청률이 29% 대 2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대와 80대 노령층의 시청률이 거의 30% 전후를 보이고 있는 반면, 70대는 2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자의 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80대 노령층은 50% 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70대 이하 노인들은 40% 이하의 만족도를 보여 상반된 평가를 보였다.

<표 4-9> 노인대상 프로그램 시청률 (최근 한달간 1회 이상 시청 경우)

프로그램 시청률	KBS <언제나 청춘>	MBC <늘 푸른 인생>	MBC <해피 실버>	SBS <백세 건강>	실버 <백남봉 쇼>	실버 <황혼재 혼>	평균
전체 시청률	41%	23%	28%	23%	14%	14%	24%
남성 시청률	46%	28%	32%	25%	19%	21%	29%
여성 시청률	38%	19%	24%	21%	9%	12%	21%
65세 시청률	41%	27%	28%	29%	17%	26%	28%
70대 시청률	40%	18%	25%	17%	8%	9%	20%
80대 시청률	47%	30%	33%	27%	22%	20%	30%

<그림 4-8>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연령대별)



## 나. 노령층의 TV시청 동기, 태도, 행위

### 1) TV 시청 동기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의 시청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령층의 텔레비전 시청 동기는 ‘정보추구’ 동기, ‘사회욕구’ 동기, ‘시간소비’ 동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정보추구’ 동기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정보추구를 위해”의 변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사회욕구’ 요동기는 “이웃과의 대화소재를 위해서”, “재미있어서” 변인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소비’ 동기는 “심심해서”라는 단일 변인으로 구분됐다. 이러한 노령층의 텔레비전 시청 동기는 비노령층의 시청 동기 조사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표 4-10> 시청동기 요인분석

	요인1 정보추구	요인2 사회욕구	요인3 시간소비
시대에 발맞춤	<b>.929</b>	.067	.083
다양한 정보추구	<b>.920</b>	.119	-.034
이웃과 대화소재	.243	<b>.868</b>	.073
재미있어	-.061	<b>.739</b>	.393
심심해서	.047	.244	<b>.948</b>

\*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추출.

### 2) TV 시청 태도와 시청량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의 시청동기와 시청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조사 대상 노인들의 시청태도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시청하는 ‘선택적 시청’,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보는 ‘습관적 시청’,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TV를 켜놓고 사는 ‘일상적 시청’, 그리고 텔레비전 ‘비시청’ 으로 나눠서 조사했다.

이러한 시청태도와 시청 동기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선택적 시청태도를 가진 집단일수록 정보 추구 점수가 높았고, 반면에 습관적 시청을

할수록 사회욕구 동기와 시간소비 동기 점수가 높았다. 노령층에 특이한 현상은 텔레비전을 일상적으로 틀어 놓고 사는 ‘일상적 시청’은 정보추구 동기든 또는 시간소비 동기든 전반적으로 동기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특별한 동기없는 일상적 텔레비전 켜놓기 습관은 노령층의 외로움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추후 세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또 시청동기가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보추구 동기가 높을수록 오히려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줄고, 반대로 시간소비 동기가 높을수록 시청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욕구 동기는 시청량에 이렇다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동기가 정보추구일 경우,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청하는 시청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전반적으로 텔레비전 시청량도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노년층의 시청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 시청 태도는 노령층의 특수한 시청한 행위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표 4-11> 시청동기와 시청태도의 상관관계

시청동기	시청태도	N	Mean	S.D	F	Sig
정보추구	선택적시청	290	3.2138	1.00474	6.472	.000
	습관적시청	209	3.1388	1.11151		
	일상적시청	94	3.1489	.96951		
	비시청	23	2.2174	1.18539		
	Total	616	3.1412	1.05785		
사회욕구	선택적시청	290	3.5052	.76638	19.899	.000
	습관적시청	209	3.8062	.91305		
	일상적시청	94	3.2766	.90879		
	비시청	23	2.5435	1.28729		
	Total	616	3.5365	.90251		
시간소비	선택적시청	290	3.46	1.046	32.948	.000
	습관적시청	209	4.22	.905		
	일상적시청	94	3.80	1.022		
	비시청	23	2.61	1.406		
	Total	616	3.74	1.088		

<표 4-12> 시청 동기에 따른 TV시청 시간의 차이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3.560	.451		7.899	.000
정보추구	-.179	.089	-.082	-2.016	.044
사회욕구	-4.523E-02	.118	-.018	-.383	.702
시간소비	.402	.096	.190	4.203	.000

종속변수: TV시청량

## 다. 노인복지와 미디어 이용

### 1) 노인복지: 성공적인 노년 인생

미디어 이용과 노인복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우선 최근 노인 복지학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성공적인 노인의 삶의 기준과 미디어 이용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했다. 성공적인 노인의 삶의 기준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경제적 여유, 사회관계, 가정의 안정, 체념의 정도 등 매우 다양한 척도로 측정될 수 있다 (이주일 외, 2008).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정신적인 고독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신체 건강에 대한 세가지 질문을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과 ‘비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으로 분류했다. 군집분석 결과, 외롭지 않고 돈이 부족한 편이 아니고, 몸이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공집단’ 279명과 외롭고, 돈이 부족하고 몸도 허약한 ‘비성공집단’ 337명으로 나뉘어 졌다.

<표 4-13> 노년인생 성공/비성공 집단 군집 분석

	성공집단	비성공집단
나외로움	2	4
나돈부족	3	4
나허약	3	4
집단 구성원수	279명	337명

※ 점수: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2) 성공적 노년 삶과 미디어 이용

노인복지학에서 분류하는 성공적인 노년 집단과 비성공적 노년집단의 미디어 이용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집단의 경우는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확실히 많았으며, 핸드폰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성공 집단에 비해 비성공 집단이 오히려 더 많았다.

<표 4-14> 노년인생 성공 여부에 따른 미디어 이용

	성공여부	N	Mean	S.D	F	Sig.
신문	성공	279	.433	.6660	12.467	.000
	비성공	337	.249	.6230		
	Total	616	.332	.6488		
TV	성공	279	4.114	2.3515	4.992	.026
	비성공	337	4.529	2.2514		
	Total	616	4.341	2.3047		
인터넷	성공	279	.223	.6426	2.823	.093
	비성공	337	.135	.6506		
	Total	616	.175	.6479		
핸드폰	성공	279	3.22	3.771	28.762	.000
	비성공	337	1.82	2.686		
	Total	616	2.45	3.295		

## 3) TV시청 습관과 성공적 노년의 삶

텔레비전 시청 동기에 있어서도 비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사회욕구와 시간소비 동기에 의해, 즉 재미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보추구 동기는 성공집단과 비성공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청태도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이가 보였다. 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선택적

인 시청태도가 많았고 (55%), 비성공적 노년 집단은 습관적 시청에서 더욱 많았다 (40%).

<표 4-15> 노년 인생 성공 여부와 텔레비전 시청 동기의 차이

		N	Mean	S.D	F	Sig.
정보추구	성공	279	3.1918	1.04656	1.164	.281
	비성공	337	3.0994	1.06684		
	Total	616	3.1412	1.05785		
사회욕구	성공	279	3.4427	.85259	5.558	.019
	비성공	337	3.6142	.93597		
	Total	616	3.5365	.90251		
시간소비	성공	279	3.41	1.144	50.037	.000
	비성공	337	4.01	.960		
	Total	616	3.74	1.088		

<표 4-16> 노년 인생 성공 여부와 시청태도의 차이

시청태도	성패		소계
	성공	비성공	
선택시청	<b>153</b>	137	290
	<b>54.8%</b>	40.7%	47.1%
습관적시청	74	<b>135</b>	209
	26.5%	<b>40.1%</b>	33.9%
일상적시청	46	48	94
	16.5%	14.2%	15.3%
비시청	6	17	23
	2.2%	5.0%	3.7%
소계	279	337	616
	100.0%	100.0%	100.0%

Chi-Square=18.69 (df=3 , p=.001)

### **3. 노인 시청자 심층 인터뷰 결과**

#### **가.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인터뷰 방식**

##### **1)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인터뷰 방식**

인터뷰 대상자는 1차적으로 면접 서베이 과정에서 심층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 자신의 미디어 이용 행태나 이용 동기에 대해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판단에 기초해 선정했다. 하지만 1차 선정에서 충분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종교 단체, 노인 대학, 봉사 단체 등의 노인 공동체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총 15명의 노인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인터뷰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 대상자와 접촉하여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후, 인터뷰 대상자가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했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으며, 몇 가지 주요 질문들 외에는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2)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인터뷰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3명, 남성은 2명이었다. 인터뷰 대상의 성별이 여성에 편중될 경우 인터뷰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노년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조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연령층은 66~70세가 5명, 71~75세가 3명, 75세 이상이 7명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사별하고 독거하는 여성 노인이 8명이었고,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식과 동거하는 노인이 3명,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 4명이었다.

<표 4-17>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연번	성별	연령	주소지	배우자	동거 가족	비고
1	여	73	강원 춘천	사별	아들 가족	
2	여	77	강원 춘천	사별	독거	
3	여	67	강원 춘천	사별	독거	
4	여	72	강원 춘천	사별	독거	기초수급 생활자
5	여	77	강원 춘천	사별	독거	
6	여	79	강원 춘천	사별	독거	소규모 슈퍼 운영
7	남	69	강원 춘천		아들 가족, 부인	
8	여	70	경기 고양	사별	독거	
9	여	77	서울 강북		남편	
10	여	70	서울 강북	사별	독거	
11	여	77	강원 춘천	사별	딸	
12	남	76	강원 춘천		아내	
13	여	70	강원 춘천	사별	아들 가족	
14	여	76	강원 춘천		남편, 손자	
15	여	71	강원 춘천	사별	독거	

## 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15명의 노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시청 시간이  
나 주 시청 시간대, 주 시청 프로그램의 유형, 시청 동기, 수용, 원하는 프로  
그램 등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텔레비전 중심의 미디어 이용

어떤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텔레비전을 주로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신문을 정기 구독한다고 응답한

인터뷰 대상자는 두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몇 년 전까지 신문을 정기 구독했다거나 현재 비정기적으로 신문을 구독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극소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인터뷰 대상자는 한 명 뿐이었고, 이 또한 인터넷 게임을 가끔씩 이용하는 정도였다. 인터넷은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인터넷 이용에 대한 관심 수준도 지극히 낮았다.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인터뷰 대상자가 현재 케이블TV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주 시청 채널은 지상파 방송, 그 중에서도 KBS를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채널의 브랜드보다는 채널 번호나 시청 프로그램으로 주 시청 채널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운영하는 드라마 전문 케이블 채널과 지상파 채널을 혼동하고 있었다.

## 2) 오전과 저녁으로 고정된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

주 시청 시간대는 오전과 저녁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아래에 제시된 응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나, 자녀와 가까운 곳에 독거하는 경우, 가사와 손자 손녀 양육으로 인해 낮 시간대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집안 일 끝내면 2시간 정도 본다. 그 후에는 교회에 나가고, 교회 다녀와서는 경로당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저녁에도 저녁 식사 준비 해놓고 보고, 자기 전까지 본다.”(맞벌이 아들 부부, 손자 손녀와 동거하는 73세 여성)

“아침 6시뉴스부터 보기 시작해서 아침마당, 드라마 큰언니, 12시뉴스까지 보고, 낮에는 가까이 사는 딸네 집으로 가서 아이 좀 봐주고, 돌아와서 잘 때까지 계속 TV를 본다.”(독거하는 70세 여성)

가사와 양육에서 자유로운 응답자들도 오후 시간대에는 종교 활동이나 사교 활동, 레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고 있었다.

“낮에는 노인대학도 가야 되고, 봉사활동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기 때문에 바쁘다. 텔레비전은 주로 저녁 시간에 본다.”(독거하는 67세 여성)

“몸이 안 좋아 낮에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운동(탁구)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는 TV를 보지 않는다.”(아들 부부, 손녀들과 동거하는 69세 여성)

결국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외부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전후로 오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텔레비전 시청을 즐기는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사회 활동이나 가사보다 텔레비전 시청을 우위에 두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주 시청 프로그램은 뉴스와 드라마, 토크쇼, 가요 프로그램**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너는 내운명’과 같은 저녁 가족 드라마, 9시 뉴스, ‘가요무대’나 ‘전국노래자랑’ 같은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침에 하는 ‘TV소설’ 드라마, ‘아침마당’이나 ‘6시 내 고향’과 같은 중장년층 대상의 정보 토크쇼,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중장년 상대 가요 프로그램 등이 시청 목록에 추가되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미니 시리즈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그 시청의 빈도나 정기성이 상당히 낮았다.

### **4) 오락과 정보추구, 시간 보내기의 시청 동기**

뉴스의 경우 대부분 정보추구가 주 시청 동기였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사회 활동의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 뉴스를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뉴스 시청 동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추구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아래 응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 그 자체의 실용성보다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뉴스를 시청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집에만 있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 뉴스라도 봐야 세상일을 알 수 있다.” (70세 독거 여성)

“거의 매일 뉴스 본다. 궁금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서 어떤 거는 알아듣고, 어떤 거는 뭘 소린지 모르고 그러면서 본다.”(67세 독거 여성)

‘아침마당’과 같은 중장년 대상 토크쇼의 시청 동기는 정보추구 동기와 오락적 동기가 복합되어 있었다.

“아침마당 같은 데 보면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옛날에 미처 몰랐던 거-사랑하는 방법, 자녀를 대하는 태도 등 새삼 배울 게 많아 유익하다. 내가 이미 늙어 진작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하면서도 배우고 싶다. 보면서 책이나 노트에 많이 적는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딸과 동거하는 77세 여성)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은 주로 오락적 동기로 시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는 그냥 보긴 보는데, 그다지 재미있지가 않다. 또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도 문제다. 가끔은 중간에 보다가 꺼버리는 경우도 있다. (중략) 서로 너무 못되게 군다거나,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걸 말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너무 심하게 한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미니를 구박하고, 결국에 감옥에 가기도 하는 등등.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하다.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본다. 그래서 재미가 있고, 계속 보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노인들이 주로 시청하는 아침 드라마와 저녁 시간대의 가족 드라마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을 소재로 한다. 이들 드라마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일탈적인 방식으로 갈등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방영시간대와 그 소재의 친숙함으로 인해 두 가지 드라마를 거의 고정 시청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기호에 맞는 대표적 프로그램들인 이들 가족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유발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많은 독거노인들의 경우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주목해서 시청하지 않으면서 저녁 내내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고,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 볼 일이 없었다. 나이 들고 일을 관두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텔레비전을 하루에 10시간 정도 봤었다.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외롭고, 손자 손녀들도 나이 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저녁에는 항상 텔레비전을 켜두었었다.”(77세 독거 여성)

“쓸쓸해서 (텔레비전을) 본다. 혼자 사는데다가,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밖에 잘 못나간다. 주로 집에 머물러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텔레비전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 특별히 재미있어서 보는 건 아니다.”(가내에 독거하는 72세 여성)

“낮에는 특별히 볼 게 있으면 보고 안 그러면 켜다가 저녁 무렵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켜놓는다. 저녁 식사 후에는 누워서 보다가 자다가 하면서.”(69세 독거 여성)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웃고 떠드니까 그냥 좋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보니 같이 웃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같다.”(코미디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70세 독거여성)

결국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독거노인들에게 텔레비전은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위안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지만, 텔레비전의 불륨을 높이고 있어야 집안에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고 외로움도 덜해진다는 것이다.

## 5)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노인에 대한 평가

가) 서글픔과 부러움: 텔레비전 속 노인에 대한 상반된 감정이입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노인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드라마 속 노인의 배역이나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서 독거노인, 질병이나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이 묘사될 경우, 자신의 현재나 미래 모습을 투영하여 공감하는 것이다.

“주위에서 보는 것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다. 뉴스에서 독거노인들 보면 가슴이 아프다.”

“노인들이 아픈걸 보면 ‘나도 나이가 더 들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다들 못 배우고 없이 살고...”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서 아파서 허리 못쓰고 다니는 노인들 이 나왔는데 처량했고 나라면 어떻게하는 생각을 했다. 나도 다리 관절염이 있어 운동하고 나면 많이 아플 때가 있다. 그래서 아픈 노인들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나도 저럴 것인데 하는 마음에 서글프다.”(아내와 동거하는 76세 남성)

특히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공감하거나 특히 서글픔을 느끼는 정도가 컸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 노인이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노인에게서는 부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종의 역할 모델로 삼아, 그들의 삶의 자세나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며칠 전 길병원 원장이 나왔는데, 70도 넘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젊을까, 좋은 일 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아내와 동거하는 69세 남성)

“혼자 사는 농촌 벽지 노인의 삶을 보면서 장하다, 용감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며 감탄한다.”

“노인도 할 때는 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운동, 사업, 자선활동에 관심 많다. 특히 봉사하는 거 남 도와주는 거는 나 자신은 못해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TV에서 노인들 운동에 대한 정보, 교육 도움 된다.”

## **6) 부모-자식 간의 갈등에 대한 상반된 평가**

인터뷰 대상자들이 시청 중 감정이입을 가장 크게 느끼는 대상은 텔레비전에 드라마 속의 부모-자식 간의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갈등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반됐다. 먼저 드라마 속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드라마에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큰소리치고 괴롭히고 하는 것 보면, 어쩌면 자식에게 저렇게 당당할까 생각한다. 나는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편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기죽어 살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은 나도 저렇게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난 죽어라 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왔다. 근데 TV에 보면 나오는 요즘 노인 중에는 나 같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

하지만 그러한 부러움과는 별개로 부모-자식 간의 갈등, 특히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드라마에서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게 나오면, 어떤 경우는 비현실적이지만 비슷한 경우도 많다.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노인네는 노인 연금을 자식이 빼앗아 가서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며느리가 시어미니를 구박하고, 결국에 감옥에 가기도 하는 등등.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하다.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본다. 그래서 재미가 있고, 계속 보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기대로 이어졌다. 즉 최소한 텔레비전에서만이라도 부모-자식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TV에서는 대개 불쌍한 노인이 많다.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지만 가족 특히 부모자식간의 정이 메마르고 차가워졌다. 옛날 노인 같은 따뜻한 정감을 지닌 노인의 모습이 그림자.”

“건강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 그것을 알아주는 자식의 모습이 나오는 따뜻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다른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 시청자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당위(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 7) 황혼재혼에 대한 엇갈린 평가

노인 시청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실버TV의 황혼재혼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예외적으로 황혼재혼에 대해서 ‘부럽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으며,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인터뷰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인터뷰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했던 경우였다.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다. 춘천에는 명동 지하상가 분수대에 가면 노인네들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등산도 가고 한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례들도 재밌고,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나도 혼자

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한 번 출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67세 독거 여성)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은 황혼재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롭다고 평가했지만, 자신의 일로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에 따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재혼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인간은 혼자는 외로우니까) 실제로는 늙어서 무슨 좋을 게 있겠나 싶다.”

“이야기는 재미있는데, 별로 공감하지는 않는다. 결혼생활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다시 결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주위에 테이트하는 거 많이 보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다.”

“황혼재혼은 주위에 보면 끝이 안 좋더라. 남자는 필요하겠지만, 여자는 골치만 아프고 재미없다. 뭐 하러 가서 고생하나, 취미 없다.”

## 8) 필요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뷰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혹은 원하는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오락과 정보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었다.

### 가) 오락적 요구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과 같이 오락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진한 향수를 내비쳤다. 즉 자신들이 잘 아는 텔런트들이 등장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스토리가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에 관해서 과거 지향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옛날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옛날 가수나 텔런트들이 나오는 경우가 그다지 없다.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가요무대는 옛날 가수들이 나와서 옛날 노래 불러서 재미있었는데.”

“예전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옛날 노래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예전 사람들이 나오면 재미있다. 노래도 그렇듯이, 드라마에도 박근형이나 김자옥 같은 텔런트가 나오면 더 재미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라마가 예전만큼 재미가 없다. ‘여로’ 같은 드라마는 얼마나 재미있었나? 지금도 아침 드라마나 8시 30분 드라마는 재밌게 보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옛날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 옛날에 재미있었던 드라마들이 그렇다. 옛날 가수나 텔런트들도 그렇고.”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한 규범과 결합되어 있었다. 단순히 과거의 스타가 등장하면 더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드라마가 부정적인 반면 과거의 드라마는 건전하고 긍정적이었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옛날 코미디, 불륜이나 잔인하거나 파괴적이지 않은 건전한 내용의 가족 휴먼 드라마, 유익한 정보가 있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이면 좋겠다.”

“연속극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악역이 많다. 그렇지 않은 드라마가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 전원일기 같은 거 얼마나 훈훈하고 가슴 따뜻하고 좋았나?”

“재미있는 연속극이 있었으면. ‘엄마가 뽀났다’ 처럼 내용이 좋아야 한다. 가족 간의 사랑과 애환 같은 부분에 대해 묘사가 잘된 드라마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드라마는 특하면 때리고 싸우고 시끄러운 게 좋을 리 없다. 좋지 않은 건 안 나오고 좋은 것만 좀 나왔으면 합니다.”

## 나) 정보적 요구

인터뷰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로는 의외로 건강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응답도 많았지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 두 번째로, 경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그냥 지금 크게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살고, 또 이리저리 최소한으로는 돈이 생기니까 별 관심은 없다.”

“경제문제에 관심은 많지만,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이랑 모아둔 돈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으니,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도 별로 없고 또 일하려면 뭘 새로 배워야 되는데 배울 곳도 없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취업 관련해서 정보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면 좋겠다.”

현재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노인에게 특화된 경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재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두 번째와 연관된 것으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그냥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놀기만 하니까.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많이 심심하고 재미없다.”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노인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부터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한다. 설사 돈을 못 벌더라도,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다. 그런 걸 소개해주고 그렇게 건전하고 보람있게 사는 노인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3. 요약: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과 노인 복지**

#### **가.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특성 몇 가지**

서베이 조사 결과,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TV의존 현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의 매체별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노령층의 모든 연령층이 텔레비전을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문을 이용은 전체 조사대상 노령인구의 25%, 인

터넷 이용은 11%,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하는 노령층은 52%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신문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노령층내 세대차 현상이 발견됐는데, 가령, 신문의 열독률은 65세에서 69세의 연령대가 4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70대로 가면 20%, 그리고 80대에는 10%로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층의 신문 열독률이 젊은 층에 비해 오히려 높은 미국의 사례와 비교된다. 이것은 미국의 노령층에 비해 우리나라 노령층 인구가 젊은 시절 당면했던 취약한 경제 여건과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내 세대차는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65세대 연령대의 23%가 인터넷 이용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그 이후 세대로 가면, 한자리수의 이용률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령층의 선호 장르는 경성 뉴스와 TV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장르는 신문의 경우는 정치, 경제와 같은 경성 뉴스, 텔레비전의 경우는 뉴스와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노령층의 텔레비전 이용 특성 발견

첫째, 노령층은 텔레비전 의존 현상을 보이면서도 정작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노령층의 시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4개와 실버 TV의 대표 프로그램 2개의 평균 시청률은 24%로 비교적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한달에 한번 이상 보는 노령층 인구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의 시청률은 41%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층의 KBS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노인 전문 채널인 실버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의 한달단위 시청률은 14% 정도로 나타나 노인 채널이 노령층 집단들에게 상시적으로 애용되는 채널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자의 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둘째, 노령층의 시청동기와 시청태도간의 상관관계는 선택적 시청태도를 가진 집단일수록 정보 추구 점수가 높았고, 반면에 습관적 시청을 할수록 사회

욕구 동기와 시간소비 동기 점수가 높았다. 노령층에 특이한 현상은 텔레비전을 일상적으로 틀어 놓고 사는 ‘일상적 시청’은 정보추구 동기든 또는 시간소비 동기든 전반적으로 동기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특별한 동기없는 일상적 텔레비전 켜놓기 습관은 노령층의 외로움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추후 세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 **다. 성공적인 노년의 삶과 미디어 이용의 연관성**

미디어 이용과 노인복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정신적인 고독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신체 건강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과 ‘비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으로 분류했다. 군집분석 결과, 외롭지 않고 돈이 부족한 편이 아니고, 몸이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공집단’ 279명과 외롭고, 돈이 부족하고 몸도 허약한 ‘비성공집단’ 337명으로 나뉘어 졌다.

성공 집단의 경우는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확실히 많았으며, 핸드폰도 자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성공 집단에 비해 비성공 집단이 오히려 더 많았다.

텔레비전 시청 동기에 있어서도 비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사회욕구와 시간소비 동기에 의해, 즉 재미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청태도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이가 보였다. 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선택적인 시청태도가 많았고, 비성공적 노년 집단은 습관적 시청에서 더욱 많았다.

### **라. 노인의 TV 이용과 평가: 심층인터뷰**

o 텔레비전이 중심매체: 서베이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우선, 노인들은 인터뷰에서 텔레비전 중심의 미디어 이용 현상을 증언하였다. 주 시청 시간대는 오전과 저녁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복지학에서 분류하는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

한 집단으로 나뉘었을 때,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집단들은 비성공 집단에 비해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았고, 텔레비전 시청도 능동적인 선택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너는 내운명’과 같은 저녁 가족 드라마, 9시 뉴스, ‘가요무대’나 ‘전국노래자랑’ 같은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침에 하는 ‘TV소설’ 드라마, ‘아침마당’이나 ‘6시 내고향’과 같은 중장년층 대상의 정보 토크쇼,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중장년 상대 가요 프로그램 등이 시청 목록에 추가되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미니 시리즈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그 시청의 빈도나 정기성이 상당히 낮았다.

o 텔레비전속의 노인과 정체성 공감: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노인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드라마속 노인의 배역이나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서 독거노인, 질병이나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이 묘사될 경우, 자신의 현재나 미래 모습을 투영하여 공감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공감하거나 특히 서글픔을 느끼는 정도가 컸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 노인이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노인에게서는 부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종의 역할 모델로 삼아, 그들의 삶의 자세나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o 부모-자식 간의 갈등에 관심: 인터뷰 대상자들이 시청 중 감정이입을 가장 크게 느끼는 대상은 텔레비전에 드라마 속의 부모-자식 간의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갈등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반됐다. 먼저 드라마속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러움과는 별개로 부모-자식 간의 갈등, 특히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기대로 이어졌다. 즉 최소한 텔레비전에서만이라도 부모-자식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o 황혼재혼에 대한 상반된 반응: 노인 시청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실버 TV의 황혼재혼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예외적으로 황혼재혼에 대해서 ‘부럽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으며,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인터뷰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인터뷰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했던 경우였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은 황혼재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롭다고 평가했지만, 자신의 일로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o 프로그램의 오락적 수요: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과 같이 오락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진한 향수를 내비쳤다. 즉 자신들이 잘 아는 텔런트들이 등장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스토리가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에 관해서 과거 지향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한 규범과 결합되어 있었다. 단순히 과거의 스타가 등장하면 더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드라마가 부정적인 반면 과거의 드라마는 건전하고 긍정적이었던 인식이 깔려있었다.

o 프로그램의 정보적 수요: 인터뷰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로는 의외로 건강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응답도 많았지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 두 번째로, 경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노인에게 특화된 경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재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두 번째와 연관된 것으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 V. 결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 1. 연구 요약

#### 가.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아이디어 및 사례

##### # 노인복지와 미디어 정책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와 연결된 노인과 미디어 관계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노년학(gerontology)과 커뮤니케이션학(communication)의 통섭을 필요로 한다. (Hilt & Lipschultz, 2005).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노인복지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짐에 따른 사회적 약자가 된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물질·정신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서비스 중심의 공식적 지원과 가족·친척·친구와 이웃 등의 사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지원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을 위한 사적인 지원은 도구적 지원·정서적 지원·정보지원으로 분류된다. (Antonucci, 1990; Weinberger, Hiner, and Tierney, 1987). 도구적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호의적이고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하며, 정보지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적 지원은 심리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분야에 해당될 것이다. 노년층이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 통신 등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노인 미디어 정책의 목표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 복지를 위한 미디어 역할은 첫째, 미디어가 노년층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미디어가 얼마나 노년층의 정서적 삶에 보탬

이 되고, 둘째, 미디어가 노령층과 얼마나 소통하고 또 노령층간의 소통을 얼마나 잘 도와서 노령층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 미디어 정책은 특히 노령층의, 노령층내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 텔레비전의 비중과 역할론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인 복지에서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Ofcom의 2008년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의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은 301분으로 라디오의 184분, 인터넷의 90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없으면 가장 아쉬워할 미디어 이용은 TV시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5 - 74세 노인층에서는 69%, 7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77%로 나타나, 성인 전체의 5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노인층은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TV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약 70%의 노령층의 텔레비전 시청을 하루 일과중 가장 중요한 레저라고 꼽았고, 노인 인구 80% 이상이 텔레비전을 가장 재미있고 편안한 매체로 생각하고 있다.

### # 노인을 위한 텔레비전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층의 TV 의존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TV 서비스는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디지털화로 채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무수히 등장한 전문 채널 중에서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TV 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청장년층에 비해 구매력이 낮은 노인층은 목표 시청자로서의 매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의 비중 또한 점차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시급한 정책적 관심은 여

전히 노인의 빈곤, 건강 문제 등에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관해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정책적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노인을 위한 특화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겨냥한 극소수 전문 채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실버TV라는 노인 전문 채널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선진국 사례로는 미국의 Retirement Living TV (RLTV)를 들 수 있다. RLTV의 경우 실버TV와 그 방송 지표나 이념, 채널 운영 방식 등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 미국 RLTV의 사례

미국의 RLTV는 미국 전후 세대(Baby Boomer)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주류 미디어 산업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자 일종의 대안 채널로서 등장했다. 이 채널은 노인 문제, 특히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LTV는 삶의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고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하는데 매체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노인 관련 단체(예: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전미은퇴자협회), 공공기관 등과 제휴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공공 캠페인을 전개해, 노인을 위한 시민 저널리즘, 옹호 저널리즘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채널은 노인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 나.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현황

#### # 매체의 성격에 따른 노인재현의 차이

매체에 따라 노인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제가 달랐다. 또한 노인문제를 재현하는 태도도 달랐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저널리즘 장르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노인 정책, 건강 등과 같은 실용적인 정책을 주로 다룬 반면, TV 교양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의 가정사나 노인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환경, 여가생활 등 노인의 일상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매체별로 노인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는 신문과 인터넷클럽은 노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 반면, 텔레비전 뉴스는 사건 기사 위주여서인지 부정적 태도가 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TV교양 프로그램은 노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 # 노인 대상 지상파 프로그램의 문제

노인대상 TV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TV화면 속의 노인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모습이고, 설령 지팡이나 의자에 의지하는 등 조금 불편해 보인다 해도 나이에 비하면 건강하고 젊다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노인이 자주 출연하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행복한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 노인전문 채널 '실버TV' 분석

2005년 개국한 노인전문채널 '실버 TV'는 노년층 및 소외계층의 방송주권 실현,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세대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노년층의 사회참여로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방송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채널의 편성 비중은 오락 (31.5%), 노인문제 해결 (14.2%) 순이고, 노인의 취업 문제 (7.6%), 건강문제 (5.6%)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화제를 모았던 '소외극복 프로젝트 - 황혼재혼' 등 차별화된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은 이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시청률이나 사회적 영향력면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버TV의 편성에서 본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은 64.5% 대 35.5%여서 제작비 과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 노인 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심층 인터뷰

노인프로그램 제작, 편성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노인방송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o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문화방송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목표 수용자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층의 시청률이 증가하면서 아예 노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o 노인프로그램 공급 여건 열악: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노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편성, 제작 실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과 노인층의 구매력 부족에 따른 광고 문제, 이와 연관된 제작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o 공영방송 역할론: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KBS와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문화방송과 민방은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 프로그램을 확대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KBS1과 같이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공영방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o 노인전문채널 역할론: KBS1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만으로는 노인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급할 수없이 때문에, 노인 전문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KBS1도 그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의 시청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다.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노인 복지**

### **#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특성 몇가지**

서베이 조사 결과, 노령층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TV의존 현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의 매체별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노령층의 모든 연령층이 텔레비전을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문을 이용은 전체 조사대상 노령인구의 25%, 인터넷 이용은 11%,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하는 노령층은 52%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신문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노령층내 세대차 현상이 발견됐는데, 가령, 신문의 열독률은 65세에서 69세의 연령대가 4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70대로 가면 20%, 그리고 80대에는 10%로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층의 신문 열독률이 젊은 층에 비해 오히려 높은 미국의 사례와 비교된다. 이것은 미국의 노령층에 비해 우리나라 노령층 인구가 젊은 시절 당면했던 취약한 경제 여건과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내 세대차는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65세대 연령대의 23%가 인터넷 이용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그 이후 세대로 가면, 한자리수의 이용률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령층의 선호 장르는 경성 뉴스와 TV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장르는 신문의 경우는 정치, 경제와 같은 경성 뉴스, 텔레비전의 경우는 뉴스와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 # 노령층의 텔레비전 이용 특성 발견

첫째, 노령층은 텔레비전 의존 현상을 보이면서도 정작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노령층의 시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4개와 실버 TV의 대표 프로그램 2개의 평균 시청률은 24%로 비교적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한달에 한번 이상 보는 노령층 인구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의 시청률은 41%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층의 KBS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노인 전문 채널인 실버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의 한달단위 시청률은 14% 정도로 나타나 노인 채널이 노령층 집단들에게 상시적으로 애용되는 채널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자의 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둘째, 노령층의 시청동기와 시청태도간의 상관관계는 선택적 시청태도를 가진 집단일수록 정보 추구 점수가 높았고, 반면에 습관적 시청을 할수록 사회욕

구 동기와 시간소비 동기 점수가 높았다. 노령층에 특이한 현상은 텔레비전을 일상적으로 틀어 놓고 사는 ‘일상적 시청’은 정보추구 동기든 또는 시간소비 동기든 전반적으로 동기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특별한 동기없는 일상적 텔레비전 켜놓기 습관은 노령층의 외로움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추후 세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 #성공적인 노년의 삶과 미디어 이용의 연관성

미디어 이용과 노인복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정신적인 고독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신체 건강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과 ‘비성공적인 노년인생 집단’으로 분류했다. 군집분석 결과, 외롭지 않고 돈이 부족한 편이 아니고, 몸이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공집단’ 279명과 외롭고, 돈이 부족하고 몸도 허약한 ‘비성공집단’ 337명으로 나뉘어 졌다.

성공 집단의 경우는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확실히 많았으며, 핸드폰도 자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성공 집단에 비해 비성공 집단이 오히려 더 많았다.

텔레비전 시청 동기에 있어서도 비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사회욕구와 시간소비 동기에 의해, 즉 재미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청태도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이가 보였다. 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선택적인 시청태도가 많았고, 비성공적 노년 집단은 습관적 시청에서 더욱 많았다.

### # 노인들이 말하는 TV 이용과 평가

o 텔레비전이 중심매체: 서베이어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우선, 노인들은 인터뷰에서 텔레비전 중심의 미디어 이용 현상을 증언하였다. 주 시청 시간대는 오전과 저녁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복지학에서 분류하는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뉘었을 때,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집단들은 비성공 집단에 비해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았고, 텔레비전 시청도 능동적인 선택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

었으나,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너는 내운명’과 같은 저녁 가족 드라마, 9시 뉴스, ‘가요무대’나 ‘전국노래자랑’ 같은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침에 하는 ‘TV소설’ 드라마, ‘아침마당’이나 ‘6시 내고향’과 같은 중장년층 대상의 정보 토크쇼,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중장년 상대 가요 프로그램 등이 시청 목록에 추가되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미니 시리즈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그 시청의 빈도나 정기성이 상당히 낮았다.

○ 텔레비전속의 노인과 정체성 공감: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노인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드라마속 노인의 배역이나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서 독거노인, 질병이나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이 묘사될 경우, 자신의 현재나 미래 모습을 투영하여 공감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공감하거나 특히 서글픔을 느끼는 정도가 컸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 노인이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노인에게서는 부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종의 역할 모델로 삼아, 그들의 삶의 자세나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 부모-자식간의 갈등에 관심: 인터뷰 대상자들이 시청 중 감정이입을 가장 크게 느끼는 대상은 텔레비전에 드라마 속의 부모-자식 간의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갈등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반됐다. 먼저 드라마속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러움과는 별개로 부모-자식 간의 갈등, 특히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기대로 이어졌다. 즉 최소한 텔레비전에서만이라도 부모-자식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 황혼재혼에 대한 상반된 반응: 노인 시청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실버

TV의 황혼재혼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예외적으로 황혼재혼에 대해서 ‘부럽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으며,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인터뷰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인터뷰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했던 경우였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은 황혼재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롭다고 평가했지만, 자신의 일로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프로그램의 오락적 수요: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과 같이 오락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진한 향수를 내비쳤다. 즉 자신들이 잘 아는 탤런트들이 등장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스토리가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에 관해서 과거 지향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한 규범과 결합되어 있었다. 단순히 과거의 스타가 등장하면 더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드라마가 부정적인 반면 과거의 드라마는 건전하고 긍정적이었던 인식이 깔려있었다.

○ 프로그램의 정보적 수요: 인터뷰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로는 의외로 건강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응답도 많았지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 두 번째로, 경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노인에게 특화된 경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재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두 번째와 연관된 것으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 2.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 가. 노인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1) 문제: 노령화로 수요 증대, 공급 열악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사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광고수익 중심의 방송 시장에서 노령층을 만족시켜줄만한 프로그램은 태부족이다. 지상파들은 한두개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그나마 대부분 노인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재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과 위성의 노인 전문 채널이 있지만 아직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열악한 제작환경에 놓여 있다.

#### 2) 방안: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적 지원 정책

미국 등 선진국 처럼 노령층의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노인프로그램이 시장을 통하여 성공하고 번성하여 노인의 미디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무리이다. 우선은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 노인 프로그램의 소외현상을 해소할 공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방송의 공적 예산이랄 수 있는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노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관한한 노인층은 소외계층임에 틀림없고, 앞으로는 이런 노인 소외계층이 다수가 되는 노령사회,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과 맞물려서 노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KBS 역할론을 주장할 수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프로그램에 관한 공영방송의 역할 처럼, 노인 프로그램에 관한 공영방송인 KBS는 상당부분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사영방송의 경우는 시장 논리에 따라 방송을 편성 운영한다하더라도 여전히 방송의 공적 기능 역할 차원에서 노인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재원 보전을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방송사들의 노인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거주자의 시청자간 미디어 복지 균형 차원에서도 실현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상파 이외에 노인 전문채널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 **나. 노인의 미디어 이용 교육**

### **1) 문제: TV의존, 정보격차 현상**

급속도로 고령 인구로 편입된 현재의 노령층 인구들은 대부분 하루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 할애 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TV를 심심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됐든 텔레비전 시청이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심심함 등을 해소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를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여전히 취미생활이라도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그래서 덜 외롭고 더 행복한, 이른바 성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노령층 집단일수록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적고, 그것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는 선택적 TV 시청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노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문과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노인집단간에 정보격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노인집단내에서 연령, 학력, 수입, 거주지 등에 의한 미디어 이용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 **2) 방안: 이용자 교육, 정보격차 해소 정책**

TV에 대한 수동적 의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의 증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도 현실문제와 재미를 곁들이면서 노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인이 실제로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텔레비전 이용 교육은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절대적인 TV시청량을 줄이고, 대신에 텔레비전을 떠나서 있는 off-TV 시간 활용 방법을 학습하는 쪽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노인 대상 사회프로그램 또는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노인과 비노인간 세대격차 및 노인집단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노령 집단의 경우 특히 새로운 매체 이용과 비이용 집단의 간극이 존재하고, 한번 학습한 집단이 계속 매체 이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의한 격차의 확대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다. 노인전문 채널 정책 방안**

### **1) 문제: 열악한 초기 단계**

노인전문 채널 ‘실버 TV’의 경우, 나름대로 사명감과 봉사정신, 직업정신을 가지고 개국하였지만, 아직까지 방송사 경영과 편성, 노인 특화 프로그램의 제작 등에서 열악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전문채널과 미국의 노인 전문채널을 비교해 보기 위해, 실버TV와 RLTV의 프로그램 주제와 본방송/재방송 비율을 분석하여 비교했다. <표 5-1>에 제시된 주제 비교 결과를 보면, 실버TV의 오락 프로그램 비율이 31.5%로 RLTV의 11.7%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버TV의 건강 프로그램의 비율은 5.6%로 22.4%의 RLTV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노년 인생의 역할 모델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비율도 실버TV는 5.6%로 RLTV의 27.8%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주류 미디어 서비스에서 소외된 노인층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RLTV의 주시청자인 미국의 전후세대와 실버TV의 주시청자인 한국의 노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제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RLTV의 경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

면, 실버TV는 취업이나 창업과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5-1> 실버TV와 RLTV의 프로그램 주제 비교

프로그램 주제	채널		전체
	실버TV	RLTV	
연예 오락	62(31.5%)	26(11.7%)	88(21.0%)
여행 정보	3(1.5%)	2(.9%)	5(1.2%)
건강	11(5.6%)	50(22.4%)	61(14.5%)
시사교양	22(11.2%)	17(7.6%)	39(9.3%)
이성교제 재혼	1(.5%)	10(4.5%)	11(2.6%)
노년인생	11(5.6%)	62(27.8%)	73(17.4%)
경제/능력배양	15(7.6%)	31(13.9%)	46(10.1%)
노인문제	28(14.2%)	25(11.2%)	53(12.6%)
문화	19(9.6%)	-	19(4.5%)
교양	18(9.1%)	-	18(4.3%)
기타	7(3.6%)	-	7(1.7%)
전체	197(46.9.0%)	223(53.1%)	420(100.0%)

주)  $\chi^2 (10, N = 420) = 132.128, p < .001$

<표 5-2> 실버TV와 RLTV의 본방/재방 비율 비교

채널	본방/재방		전체
	본방	재방	
실버TV	127(65.1%)	70(31.1%)	197(46.9%)
RLTV	68(34.9%)	155(68.9%)	223(53.1%)
전체	195(46.4%)	225(53.6%)	420(100.0%)

주)  $\chi^2 (10, N = 420) = 48.539, p < .001$

실버TV와 RLTV의 본방송/재방송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실버TV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방송의 비율이 65.1%에 이르는 반면, RLTV의 경우 34.9%에 지나지 않는다. 실버TV의 경우 통상적으로 동일 프로그램이 재방송되는 경우가 주 1회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RLTV의 경우 재방송이 최대 주 6회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본방/재방 비율 차이는 채널의 질과 경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당 제작비와 수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실버TV의 경우 다수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채널의 전반적인 질은 RLTV에 비해 높을 수 있으나 전체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의 압박이 RLTV에 비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 **2) 방안: 공적 지원 및 노인방송 전문성 확보**

지금 단계에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전문채널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역할 또한 증대될 것이므로 외부의 공적 지원과 내부의 역량 강화가 큰 과제라고 할 있다

##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층 수용자들은 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방송통신 등 미디어는 노인층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재현해 내고 있는지에 관한 고령층의 미디어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 방안, 즉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를 위한 미디어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노인층 재현과 노인층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빈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령화사회에 먼저 도달한 선진국의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노인을 위한 미디어 사례를 정리해 검토했고, 둘째, 방송뉴스, 노인전문 케이블채널, 노인 전문 블로그 등에서 노인들의 삶과 정체성, 사

회복지의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노인들의 방송, 인터넷, 신문, 모바일 등 미디어 이용 실태를 노인복지 개념과 연결시켜 서베이와 심층인터뷰를 했다.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고령화사회를 맞은 우리나라가 구현할 수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미디어 정책 방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이 연구도 성과에 비해 한계의 여집합이 훨씬 방대한 편이다. 우선 당초 우리나라 보다 한층 먼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미디어 복지 정책의 사례를 검토해 보려했으나, 많은 문헌들이 문제점만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미디어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선례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선진국의 미디어 정책이 실제로 그러할 수도 있고,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력으로 진행된 이 연구의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경향을 추적하여 우리의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의 발전을 도모할 일이다.

또한 내용분석과 서베이 분석에 있어서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분석 대상의 표본의 범위가 협소하고, 양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 미디어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도모하는데 자그마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 참 고 문 헌 >

- 강미은 (2000) .인터넷과 기존 매체 이용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제50호, 129-208
- 경제 기획원 (199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 경제 기획원, (1962). 한국 통계 연보.
- 구자순 (2002, 가을). 노인과 인터넷 문화,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4-155
- 구자순(1987), 노인여성과 사회적 차별문제, 여성문제연구 15권, 133~148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구자순(1992), 한국 사회노년학 연구와 이론적 발전, 한국노년학 12권 1호, 9  
7~113.
- 구자순(1994), 가정복지활동과 노인참여, 한국노년학 14권 1호, 219~234.
- 구자순(1995), 신세대와 문화 갈등, 사회이론 14권, 211~237.
- 구자순(2002), 『노인과 인터넷 문화』, 한국노인과과학술단체연합회.
- 구자순(2003), 인터넷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여성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사  
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16회 정보문화의 달 특별세미나 논문발표집,  
67~88.
- 구자순(2005), 고령층의 온라인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 16호(2005-2), 241~272.
- 구자순(2007), 고령층여성의 디지털격차에 관한 연구, 정보와 사회 11호, 1~26.
- 김나민(2001),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시장 세분화 연구",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미혜 · 유 경(1996), 노인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 - 노인복지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 국노년학. 16(1). 1-17.
- 김미혜(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 오마이 뉴스를 중심  
으로, 한국노년학 제 23권 1호, 13~30.
- 김미혜(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 오마이 뉴스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미혜·원영희(1999), 새로운 노인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인광고: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9권 2호, 193~214.
- 김미혜·유경(1996), 노인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노인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6권 1호, 1~17.
- 김성권(2004).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중첩세대 R&D모형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22(3), 183-210.
- 김수영(2000), 노인을 위한 인터넷 정보활용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2000 여름호, 61~93.
- 김순옥 (2001).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민 (2001). "노인들의 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범, 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 김영주·정재민 (2006). 노인과 미디어 :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과 복지. 한국언론재단.
- 김영주·정재민(2007), 노인과 미디어, 한국언론재단
- 김재휘·김지호·신상화(2002),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4집, 67-91.
-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창숙 (2000). 『인터넷 이용자의 매체간 GS와 GO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3),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혜경(2002), 『노인정보화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김훈·권순일(1999),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 탐색적 연구”, 「경영학연구」, 제28권 제 2호.
- 노진선 (2001).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 · 이영숙(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621-647.
- 박경숙(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4), 101-132.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선희(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 언론의 가능성: 오마이뉴스  
기사분석, 한국언론학보
- 박춘옥 (2002). "한국 노인의 여가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배지연(2004), 노인자살에 관한 사례 분석: 신문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복  
지연구 23호 (2004년 봄호), 65~82.
- 배진한 (1995).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보건 복지부 (2003).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병숙 · 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 설재순 (1998).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따른 충족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희자, 전보경(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  
논총, 13(2), 151-169.
- 손연기(2000),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노인복지연구」, 8(여름),  
7-29.
- 송경희 (1998). 케이블 TV에 대한 틈새시장 분석연구, 『한국언론학보』,  
42(3), 100-136.

- 송원영·이명희(2001), "인터넷 쇼핑에서의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연구 - 인터넷 이용자를 중심으로 -", 복식문화 연구기술 연합회.
- 송현애·문혜숙(2002), 인터넷상 노인전용사이트의 노년기교육에의 활용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002겨울호, 165~184.
- 안미리 (2001, 봄/여름).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노인 정보화교육과  
사이버 문화의 확산, 『사회이론』, 147-171
- 오영희 외 5명(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1~27
-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유재홍 (1992, 봄). 광고수용자로서의 노인계층 특성 연구, 『광고연구』,  
63-81.
-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은혜정,나은영(2002, 여름). 인터넷에서 추구하는 충족(GS)과 획득된  
충족(GO) 및 이용행동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214-251.
- 이가옥 (1994).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소
- 이경희 (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127-130.
- 이금룡(2002),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Vol.5 No.2, 1-22.
- 이금룡(2007),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노년기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37호 (2007 가을호), 7~30.
- 이기홍 (2006).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노인의 삶과 질> 한림대  
출판부.
- 이상철(2003). 문화자본과 국가발전. 동서언론, 7, 1-73.
- 이영자, 김태현 (1999). 단독가수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이재혁(1996). 신뢰, 거래 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30(1), 519-543.

- 이주일 (2004). 노인의 대인애착 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 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1-29.
- 이주일, 박군석, 유경, 김영범, 장숙량, 윤현숙, 유희정, 김동현 (2008). 성공적인 한국 노인의 삶: 다학제간 심층인터뷰 사례. 박학사.
- 이혜원 (1995). 서울시 거택보호노인의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15호, No. 2, pp. 140-156.
- 이혜자, 김윤정(2004).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4), 197-214.
- 이흥수 (1994). 앤더슨-뉴만 모형을 이용한 여성의 치과의료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 구강 보건 학회지, 18 (2). 513-525.
- 전미애 (2006). 공적 사적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 연구: 서울(대도시)과 춘천 지역(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정선주(2003), 청·장·노년기의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영숙, 한성덕, 박충선(1999). 주거만족도와 노년의 삶의 질- 노인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소비문화연구, 2(1), 85-100.
- 정재민·김영주 (2007). 노인층의 텔레비전 이용행태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3, 172 ~200. 한국언론학회.
- 정재민·김영주(2007), 노인층의 텔레비전 이용행태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172~200.
- 조돈문(2005).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한국사회학, 39(2), 1-33.
- 최선헌(2001).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최성재·장인협 (2003).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영완 (2001). "한국 노인의 여가활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 위논문.
- 최정신(1999), 농촌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3호, 121~139.
- 통계청 (1984). 고용 구조 조사 보고서.
- 통계청 (2002). 한국 사회 지표 2001.

- 통계청(2004). 2004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05). GNI·GNP 등 주요 지표.
- 하근영, 홍달아기(1999).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한국노년학연구, 8, 75-90.
- 한경혜·윤성은 (2004).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 27권 2호.
- 한경희 (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inews.org/>
-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2006).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한림대학교출판부.
- 한준 (2001). 신뢰와 조직간 연결망. 신뢰연구, 11(통합호), 143-183.
- 현자영(2003).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홍명신(2003), 노인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초기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3권 2호, 187~203.

- Anheier, H. K., Gerhards, J., & Romo, F. P.(1995). Forms of capital and social structure in cultural fiel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4), 859-903.
- Antonucci, T., (1990).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pp. 205-226 in Binstock, R. and L George (Ed.), 1990,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ition), Academic Press.
- Aschaffenburg, K., & Maas, I.(1997). Cultural and educational careers: The dynamics of soci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573-587.
- Atkin, D. J., L. W. Jeffres & K. A. Neuendorf (1998). "Understanding Internet Adoption as Telecommunications Behavior", Journal of

-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4), 475-490.
- Baudrillard, J.(1981).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St. Louis: Telos Press.
- Becker, G.(1964).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rggren, N., & Jordahl H.(2005, January). Free to trust? Economic freedom and social capital.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Issue No. 2). Beyer G. & M. Woods (1958). "Living and Activity Patterns of Aged", Research Report No.6, NY: Center for Housing and Environment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pp.13-16. (Schramm, W. (1969). "Aging and Mass Communication" in Riley M. W., J. W. Riley & M. E. Jonson eds., Aging and Society, Vol.2,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352- 376에서 재인용
- Bjørnskov, C.(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 3-16.
- Blau, P. M., & Duncan, O. D.(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Bogart, L. (1965). "The Mass Media and the Blue-Collar Worker" in Bennen & W. Gomberg(eds.) *The Blue Collar World*,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Palmgreen P. & J. D. Rayburn II (1979). "Uses and Gratifications and Exposure to Public Television: A Discrepancy Approach", *Communication Research*, 6(2), 161.
- Bourdieu, P.(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 Nice, 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pp. 241-258).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rt, R. S.(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39-365.
- Chaffee, S. & D. Wilson (1975). "Adult Life Cycle Changes in Mass

- Media Use”, Presented to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Ottawa, Canada(Rubin A. M. & R. Rubin (1982). Older Prson’s Viewing Patterns and Motiv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9(2), April, p.289에서 재인용).
- Cogwill, D. O. & Holmes, L. D.(1972). Aging and Mordernization, NY: Meredith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79-125.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 S95-S120.
- Coleman, J.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s, R. H. (1971). “Television and the Older Adult”, Journal of Broadcasting No.15, 153-159.
- Dieter, S. (2000). SeniorNet Internet Survey, SeniorNet,
- Dutton, W. H., E. M. Rogers & Suk-Ho Jun (1987). “Diffusion and Social Impacts of Personal Computers”, Communication Research, 14(2), 219-250.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London: Hamish Hamilton.
- Furlong, M. S. (1989). An Eletronic Community for Older Adults: The SeniorNet Network,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145-153.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ney, M. J. & Graney, E. E. (1974). Communication Activity Substitution in Aging, Journal of Communication, 24(4), 88-96
- Greenberg B. S. (1974). “Gratification of Television Viewing and Their Correlates for British Children,” In J. G. Blumler & E. Katz(eds),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s: Current Perspectives on

- Gratifications Research,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Halle, D. J.(1993). *Inside culture: Art and class in the American ho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nson, B. S. & Ostergen, P. O. (1987). Different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nervous problems and insomni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on some results from the Population Study 'Men Born in 1914', Malmö, Swed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5, 845-859.
- Hanson, B. S. & Ostergen, P. O. (1987). Different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nervous problems and insomni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on some results from the Population Study 'Men Born in 1914', Malmö, Swed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5, 845-859.
- Hess, B. B. (1974). "Stereotypes of the Aged", *Journal of Communication*, 24(4), 76-85
- Hilt, Michael L. & Lipschultz, Jeremy H. (2005). *Mass Media,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aby Boomers*. New Jersey: LEA.
- James, M. L., C. E. Edward, & E. J. Forrest (1995). "An Exploratory Study of the Perceived Benefits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Use and Their Impact on Other Communication Activiti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9(1), 30-50.
- Jeannotte, M. S.(2003). Singing alone? The contribution of cultural capital to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9(1), 35-49.
- Jeffres, L. & D. Atkin (1996). "Predicting Use of Technologies for Communication and Consumer Need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0(3), 318-330.
- Katz E., J. E. Blumler & G. Gurevitch (1974). "Utilization of M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In J. G. Blumler and E. Katz(eds.). *The Use Mass Communication: Current*

- Perspectives on Gratification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Kilbride, K. M.(2000).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human, social, cultural capital of immigran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ith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CERIS Working Paper Series, (Issue No. 13), Toronto: Joint Centre of Excellence for Research on Immigration and Settlement.
-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Lew, J. (1987). "A Descriptive Study of Mass Media in the Lives of an Elderly Population in Seoul, Korea",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peech and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Oregon.
- Lin, C. A. (1998). "Explor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dynamic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1), 95-112.
- Lometti G. E., B. Reeves & C. R. Bybee (1977). "Investigating the Assumptions of Uses and Gratifications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4(1), 321-338.
- Ostman, R. E. & Jeffers, D. W. (1983). Life Stages and Motives for Television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7, 315-322
- Palmgreen P. & J. D. Rayburn II & L. A. Wenner (1980). "Relations Between Gratifications Sought and Obtained: A Study of Television News", *Communication Research*, 7(4), 161-192.
- Palmgreen P. & J. D. Rayburn II & L. A. Wenner (1981). "Gratification Discrepancies and News Program Choice", *Communication Research*, 8(4), 451-478.
- Palmgreen P. & J. D. Rayburn II (1979). "Uses and Gratifications and Exposure to Public Television: A Discrepancy Approach", *Communication Research*, 6(2), 155-180.
- Palmgreen P. & J. D. Rayburn II (1984). "Merging Uses and Gratifications

- and Expectancy-Value Theory”, *Communication Research*, 11(4), 537-562.
- Paxton, P.(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eterson, M. (1973). "The Visibility and Image of Old People on Television", *Journalism Quarterly*, 50, 569-573
-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eagan, J. (1987). Classifying Adopters and Nonadopters for Technologies Using Political Activity, Media Use and Demographic Variabl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4, pp.3-16
- Rose, R. (2000). How much does social capital add to individual health? A survey study of russia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1(9), 1421-1435.
- Rosengren, K. E.(1985). "Growth of Research Tradition: Some Concluding Remarks," in Rosengren, K. E., L. A. Wenner & p. Palmgreen(eds.), *Media Gratifications Research: Current Perspectives*, Beverly Hills:Sage, 275-284.
- Rubin, A. M. & Rubin(1982). "Older Person's TV Viewing Patterns and Motiv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9(2), 287-312.
- Schramm, W.(1969), "Aging and Mass Communication" in Riley M. W., J. W. Riley & M. E. Jonson eds., *Aging and Society*, Vol.2, NY:Russell Sage Foundation, 352-376.
- Trevino, L. K. & J. Webster(1992). "Flow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lectronic Mail Voice Mail Evaluation and Impacts,", *Communication Research*, 19(1)
- Uslaner, E. M(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berger, M., Hiner, S. L., and Tierney, W. M. (1987).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derly adul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5, 1049-1055.
- Wenner, L. (1976). "Functional Analysis of TV Viewing for Older Adults". *Journal of Broadcasting*, 20, 77-88
- Whiteley, P. F.(2000).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Political Studies*, 48(3), 443-466.
-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Zak, P. J., & Knack, S.(2001). Trust and growth. *Economic Journal*, 111(470), 295-321.

## <부록>

### 부록A. 내용분석 Code Book/ Protocol

■ 코더 ID ①\*\*\* ② \*\*\*

■ 아이템의 아이디 : (매체1자리)(날짜 4자리)(고유번호2자리)

#### 1. 매체/ 프로그램

- 1) KBS 1TV <언제나 청춘> - ① 떴다 우리동네 ② 행복한 실버 ③ 도전 구구팔팔
- 2) MBC TV <늘 푸른 인생>-①뽀빠이가간다 ②찾아라시니어스타 ③내가좋아하는우리소리
- 3) MBC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 - ① 통합
- 4) SBS TV <백세 건강 스페셜> - ① 통합

#### 2. 방영 날짜(\*\*\*\*)

2-1. 아이템 방영 길이(\*\*\*): ( )분

#### 3. 아이템의 주제(2개 복수 응답)

- ①노인복지정책 및 제도
- ②노인의 건강
- ③노인의 사회적 역할, 노동
- ④노인의 경제적 상황
- ⑤노인과 가족관계
- ⑥노인의 권리
- ⑦노인의 여가생활

- ⑧사고·사건, 노인의 사회 환경 (마을)
- ⑨노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지원, 노인 프로그램 소개
- ⑩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⑪죽음
- ⑫늙음
- ⑬노인산업
- ⑭기타

### 3-1. 아이템 전개방식의 노인에 대한 태도

- ①긍정 ②중립 ③부정 ④표현안함.

## 4. 노인에 대한 이미지

[다음의 7가지 항목(변인)에 모두 코딩 해당사항 없을 시 0으로 코딩]

### 1) 신체 : ①외모

- ②생리적 변화
- ③건강
- ④거동 불편
- ⑤질병유무
- ⑥죽음

### 2) 심리 : ①인지능력

- ②지혜
- ③행동특성
- ④삶의 태도
- ⑤성격

### 3) 가족관계 : ①가족유형

- ②가족관계
- ③가족의존

#### ④가족 내 역할

- 4) 사회 : ①여가생활  
②사회적 관계
- 5) 경제 : ①경제적 능력  
② 경제적 무능력
- 6) 활동 : ①휴식 ② 취미 ③가족생활 ④봉사 ⑤사회생활  
⑥일탈행동 ⑦운동
- 7) 능력 : ①정신적 ②경제적 ③사회적 ④신체적 능력

5. 정서·감정 프레임 -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감정

- ① 슬픔 ② 놀람 ③ 분노 ④ 행복(즐거움) ⑤ 공포 ⑥ 혐오감 ⑦표현안함

7. 취재원의 신분 (2개까지 복수 선택): 누구를 주로 만나고 얘기를 듣고 있는가.

- ① 정부 및 대통령 ② 야당 ③ 여당 ④ 일반시민 ⑤ 공무원 ⑥ 전문가  
⑦시민단체 관계자 ⑧ 언론매체 ⑨주최기관 ⑩복지단체 ⑪노인 ⑫기타

8. 아이템의 전개방식

- ① 리포터의 방송  
② 사회자의 직접 출연  
③ 다큐멘터리  
④ 주인공 출연  
⑤ 대담  
⑥사진기사  
⑦기타

## 11. 아이탬의 주인공

- ①노인 ②가족 ③정부, 공무원 ④범죄자 ⑤사회적 약자(장애우,저소득층)
- ⑥노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전문지식
- ⑦ 봉사자 ⑧외국인 ⑨기타 - 노인을 제외한 마을 사람 등

### \* 영상분석

#### 3. 화면(한 컷)에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부위

[아이탬 방영 내에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신체 부위]

- ① 전신
- ② 얼굴 ③ 손
- ④ 상반신 ⑤ 하반신
- ⑥ 뒷모습 ⑦옆모습
- ⑧기타

#### 3-1.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각 분야 당 1개씩 응답)

[아이탬 방영 내에서 주로 보여지거나 특징있게 보여지는 모습]

외모: ①심한 주름살 & 늘어진 피부 ②틀니를 낀 & 이가 불편한  
③흰 머리색 & 수염이 있는 & 벗겨진 머리

의복: ④옷차림이 수수하거나 촌스러운 - 평상복

- ⑤전통한복차림 ⑥작업복을 입은 - 단체복, 무대복, 제복, 운동복
- ⑦환자복을 입은 ⑧부유하고 세련된 의복 - 양복, 갖춰입은, 옷에 신경 쓴

행동: ⑨빠른 말투 ⑩느린 말투 ⑪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동안, 건강한 모습

- ⑫신체 제약이 있는(장애, 힘이 없는, 행동에 제약이 있는, 허리 굽은)
- ⑬보조용구를 사용하는(지팡이, 안경, 보청기, 휠체어)

#### 4. 노인이 살고 있는 곳

[나타나지 않으면 0으로 코딩,

화면에 나오는 주소를 기준.

광역시 이상은 대도시, 그 외 시지역은 중소도시,

주소가 시 지역이라고 해도 보여지는 것이 농어촌이고, '00시 00면' 처럼 보여지는 것과 주소가 확실히 농어촌이면 농어촌으로 표시]

①대도시(광역시 이상) ②중소도시 ③농어촌(읍면포함) ④해외 ⑤기타

## <Code Book Protocol>

### 신문, 방송, 인터넷 공통 code book

■ 코더 ID ①\*\* ② \*\*\*

■ 아이템의 아이디 : (매체1자리)(날짜 4자리)(고유번호2자리)

#### 1. 매체/ 프로그램

##### 1) KBS 1TV <언제나 청춘> - ① 떴다 우리동네 ② 행복한 실버 ③ 도전 구구팔팔

KBS 1TV <언제나 청춘>은 매주 일요일 오전 6시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방영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이재홍, 이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떴다 우리동네'는 희극인 백남봉이 전국 각지의 마을을 다니며 마을의 특산물과 주요 산업, 특장을 소개하고 그 마을 노년층과 연관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유희를 즐기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복한 실버'는 노년을 적극적이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특별한 노인을 만나 현장 취재와 스튜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도전 구구팔팔'은 각 분야 전문가의 대답을 통해 노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MBC TV <늘 푸른 인생>-①뽀빠이가간다 ②찾아라시니어스타 ③내가 좋아하는우리소리

MBC TV <늘 푸른 인생>은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안지용 연출, 이윤철, 강영은 아나운서 진행으로 '뽀빠이가 간다', '찾아라 시니어스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소리'의 코너로 구성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다. <뽀빠이가 간다>는 MC 이상용이 전국 각지의 마을을 다니며 마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지역 거주 노인들의 과거사, 가족사 등을 인터뷰를 통해 재미있게 전달한다. <찾아라, 시니어스타!>는 노년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현장 취재를 통해 소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소리>는 매 회 다른 명창,명인들이 출연하여 우리 소리를 들려준다.

3) MBC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 - ① 통합

MBC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김성환, 황선숙 MC의 진행으로 방송됐으며, 현재는 오전 7시 25분으로 방송 시간을 옮겼다. 주로 리포터들이 전국 각지의 특산물과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008년 11월부터는 노인대상 운동 정보 등을 추가하여 방송하고 있다.

4) SBS TV <백세 건강 스페셜> - ① 통합

SBS TV <백세 건강 스페셜>은 최영주, 박찬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월요일 오후 2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되며, 일요일 오전6시부터 재방송된다. <백세 건강 스페셜>은 기획의도에서 '실버층을 겨냥하여 장수건강법과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년을 앞둔 중, 장년층에게 유익한 특별한 건강 관리법을 소개하고 실버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탐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가의 대담 형식으로 건강주제를 다루고 있다.

## 2. 방영 날짜(4자리)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방송된 네 개 프로그램의 모든 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_1 아이TEM 방영 길이(세자리) : (            )분

아이TEM의 방영 길이는 분을 기준으로, 초는 반올림하였다.

## 3. 아이TEM의 주제(2개 복수 응답)

### ①노인복지정책 및 제도

-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노인과 관련된 법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을 경우

### ②노인의 건강

-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주제면 모두 포함. 노인의 건강 상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치료법 등이 포함된다.

### ③노인의 사회적 역할, 노동

- 노인의 직업, 일 등이 주제로 나타났을 경우

### ④노인의 경제적 상황

- 노인의 부나 가난 등이 부각되었을 경우

### ⑤노인과 가족관계

- 노인의 부부관계, 자녀 관계 등 가족관계가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 ⑥노인의 권리

- 인권, 노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노인의 권리자체를 주제로 선정하는 경우

### ⑦노인의 여가생활

- 직업이 아닌 취미생활, 노인의 의식주가 다루어지는 경우

⑧사고·사건, 노인의 사회 환경 (마을)

- 노인이 등장하는 마을소개, 노인이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일어난 일 등 사회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졌을 경우, 노인 관련 각종 사고, 사건 소식

⑨노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지원, 노인 프로그램 소개

- 민간단체나 복지기관이 주최가 되는 프로그램,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비가 필요하지만 노인에게 유용한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경우

⑩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노인에 대한 타인이나 사회의 주된 생각이 주제로 나타날 경우

⑪죽음

⑫늙음

⑬노인산업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산업이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다루었을 경우

⑭기타

**※이를 네 개로 줄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과 가족관계, 사회 환경, 사건사고

- 노인 주변 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노인과 직접 연관된 가족관계에서 오는 일,

노인의 부부관계, 자녀 관계 등 가족관계가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노

인이 등장하는 마을소개, 노인이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일어난 일 등 사회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졌을 경우, 노인 관련 각종 사고, 사건 소식, 노인 권리와 관련된 정보가 중심으로 다루어진 경우

② 노인 건강

-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주제면 모두 포함. 노인의 건강 상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치료법 등 포함. 노화와 죽음 관련 주제 포함

③ 노인의 사회적 역할, 일, 정책

- 노인의 직업, 일,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노인과 관련된 법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을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산업이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다루었을 경우

④ 노인의 여가

- 직업이 아닌 취미생활, 노인이 율령에 따라 여가처럼 즐기는 의식주가 다루어지는 경우

⑤ 기타

**3-1. 아이템 전개방식의 노인에 대한 태도**

[긍정: 노인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긍정적인 속성, 가령 지혜, 경험, 가족애, 희생, 봉사 등의 속성을 주로 언급하는 경우.

부정: 노인의 부정적인 속성, 가령 죽음, 질병, 늙음, 고집, 외로움, 독거 등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우.

중립: 노인의 속성을 얘기하되, 전반적인 통계수치나 경향치, 객관적인 사실 및 상황 등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경우.

표현안함 : 노인의 속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①긍정

②중립

③부정

④표현안함.

#### 4. 노인에 대한 이미지

[다음의 7가지 항목(변인)에 모두 코딩 해당사항 없을 시 0으로 코딩]

- 1) 신체 : ①외모 - 외모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
  - ②생리적 변화 -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는 노년의 변화, 노안, 관절염 등
  - ③건강 - 허약하지 않고, 특별한 질병이 보이거나 언급되지 않는 경우
  - ④거동 불편 - 거동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왜소해 보이거나 허약한 경우
  - ⑤질병유무 - 노인이 가진 질병이 드러나거나, 치매 등 정신적인 질병 나타남
  - ⑥죽음
  
- 2) 심리 : ①인지능력 - 사물관별, 글자해독, 지식, 기억, 지각, 판단, 추리 등이 부각
  - ②지혜 - 살아오면서 쌓여진 삶의 방법(지혜)으로 어떤 일을 바르게 처리, 그것을 후대에 전달함
  - ③행동특성 - 노인 특유의 행동적 특성. 특별한 절약, 새벽잠이 없음 등
  - ④삶의 태도 - 노인이 삶에 대해 갖는 자세, 라이프스타일. 유연, 적극, 소극, 개방, 폐쇄, 교류, 자유, 도전 등
  - ⑤성격 - 노인의 성격이 확실히 언급되고 부각되는 경우. 고집, 급함 등
  
- 3) 가족관계 : ①가족유형 - 노인의 현재 가족 유형이 드러남. 조손가정, 외국인며느리 등
  - ②가족관계 - 노인의 부부, 자녀, 형제관계가 드러나거나 중심되는 경우

③가족의존 - 노인이 가족을 의존하게 되거나, 가족이 노인을 의존하는 상황

④가족 내 역할 - 노인의 가족 내 책임, 역할이 부각되는 경우

4) 사회 : ①여가생활 -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는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

②사회적 관계 - 일, 인맥, 단체 노동, 사회적 위치 등

5) 경제 : ①경제적 능력 - 직업 있음, 경제활동, 저축, 돈

② 경제적 무능력 - 경제적 어려움, 빈곤

6) 활동 : ①휴식 - 일반적인 쉼, 유흥(춤과 노래)

② 취미 ③가족생활 ④봉사 ⑤사회생활 - 일 ⑥일탈행동

⑦운동 - 마라톤, 등산 등. 웃음치료 등 정신적인 운동 포함

7) 능력 : ①정신적 : 지혜, 학습, 인생경험, 의존성, 자기 낙인

②경제적 : 용돈, 선물, 궁핍, 생활보호대상자

③사회적 : 사회적 위치, 명성, 권력, 직위, 일

④신체적 능력 : 건강함, 부지런함, 허약함, 간병/보호대상자

5. 정서·감정 프레임 -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감정

① 슬픔 ② 놀람 ③ 분노 ④ 행복(즐거움) ⑤ 공포 ⑥ 혐오감 ⑦표현안함(건강정보 등)

7. 취재원의 신분 (2개까지 복수 선택): 누구를 주로 만나고 얘기를 듣고 있는가.

★꼭 2개일 필요없음.

① 정부 및 대통령 ② 야당 ③ 여당 ④ 일반시민 ⑤ 공무원 ⑥ 전문가

⑦시민단체 관계자 ⑧ 언론매체 ⑨주최기관 ⑩복지단체 ⑪노인 ⑫기타

## 8. 아이템의 전개방식

- ① 리포터의 방송 - '땀다! 우리동네(백남봉)', '해피실버 고향은 지금' 형식
- ② 사회자의 직접 출연 - '뽀빠이가 간다'처럼 MC가 사회보며 이끄는 형식
- ③ 다큐멘터리 - 직접 취재, 성우 목소리의 다큐형식
- ④ 주인공 출연 - 주인공의 스튜디오 출연, 1:1인터뷰
- ⑤ 대담 - 스튜디오에서 사회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주로 전문가의 강연, 질문 형식
- ⑥사진기사 - 사진을 위주로 화면이 구성되는 형식
- ⑦기타

## 11. 아이템의 주인공

- ①노인 ②가족 ③정부, 공무원 ④범죄자 ⑤사회적 약자(장애우,저소득층)
- ⑥노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정책, 프로그램,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문지식
- ⑦ 봉사자 ⑧외국인 ⑨기타 - 노인을 제외한 마을 사람 등

## \* 영상분석

### 3. 화면(한 컷)에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부위

[아이템 방영 내에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신체 부위]

- ① 전신
- ② 얼굴 ③ 손
- ④ 상반신 ⑤ 하반신
- ⑥ 뒷모습 ⑦옆모습
- ⑧기타

3-1.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걸모습(각 분야 당 1개씩 응답)

[아이템 방영 내에서 주로 보여지거나 특징있게 보여지는 모습]

외모: ①심한 주름살 & 늘어진 피부 ②틀니를 낀 & 이가 불편한  
③흰 머리색 & 수염이 있는 & 벗겨진 머리

{외모에서는 1번과 3번이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 코더 간 신뢰도를 위해 이럴 경우 1번으로 코딩했으나, 특별히 희거나 벗겨진 머리가 두드러지거나 수염이 특징인 경우 3번으로 코딩했고,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것에 유의할 필요 있음}

의복: ④옷차림이 수수하거나 촌스러운 - 평상복

⑤전통한복차림 ⑥작업복을 입은 - 제복, 운동복, 단체복, 무대 공연복 포함

⑦환자복을 입은 ⑧부유하고 세련된 의복 - 정장, 갖춰 입은 옷, 옷에 신경쓴 스타일

행동: ⑨빠른 말투 ⑩느린 말투 ⑪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동안, 건강한 모습

⑫신체 제약이 있는(장애, 힘이 없는, 행동에 제약이 있는, 허리 굽은)

⑬보조용구를 사용하는(지팡이, 안경, 보청기, 휠체어)

4. 노인이 살고 있는 곳

[나타나지 않으면 0으로 코딩,

화면에 나오는 주소를 기준.

광역시 이상은 대도시, 그 외 시지역은 중소도시,

주소가 시 지역이라고 해도 보여지는 것이 농어촌이고, '00시 00면' 처럼 보여지는 것과 주소가 확실히 농어촌이면 농어촌으로 표시]

①대도시(광역시 이상) ②중소도시 ③농어촌(읍면포함) ④해외 ⑤기타

## 부록B. 서베이 문항

### ◎ 서베이 ◎

안녕하십니까? 한국 언론학회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하여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결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적 숫자로 처리 될 것이므로 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033-248-1921)

1. 기본사항: 성별 (남, 여), 연세 (65, 70, 75, 80, 85, 90세), 거주 (서울, 춘천)
2. 귀하의 하루 중 일이나 가사에 할당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시간 (                    ) 분
3. 귀하의 하루 중 여가에 할당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시간 (                    ) 분
4. 다음 매체에 대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가. 신문                    (                    ) 시간 (                    ) 분  
나. TV                    (                    ) 시간 (                    ) 분  
다. 인터넷                    (                    ) 시간 (                    ) 분  
라. 핸드폰                    (                    ) 회
5. 신문 이용 시 즐겨보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1.이용하지 않음  
신문을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2. 정치 3. 경제 4. 사회
- 5. 문화 6 기타

6. TV 이용 시 즐겨보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1.이용하지 않음  
TV를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7번으로  
이동)  
( )

- 2. 뉴스 3. 드라마 4. 스포츠
- 5. 오락 6. 교양 6. 기타

7. 지난 1주일 동안 다음의 텔레비전 채널들 중에서 20분 이상 시청  
하신 채널 있으시면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1. KBS ( ) 2. MBC ( ) 3. SBS ( ) 4. EBS 교육방송 ( )
- 5. YTN,MBN ( )
- 6. 종교방송(기독교 채널,평화방송,불교방송.) ( )
- 7. 케이블이나 위성 영화채널 ( )
- 8. 케이블 위성 드라마 채널 ( )
- 9. 다큐멘터리 채널 ( )
- 10. 오락 채널 ( )
- 11. 음악채널 ( )
- 12. 기타: 직접 기입해 주세요. ( )

8. 귀하께서 TV를 시청하시는 태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1.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청한다
- 2. TV를 습관적으로 시청하는 편이다
- 3. 일상생활 중 거의 TV를 켜놓고 있다.
- 4. TV를 안보는 편이다.

다음은 TV를 보는 이유에 관한 것들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미있어서	1	2	3	4	5
2) 심심해서	1	2	3	4	5
3)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1	2	3	4	5
4) 새롭게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고	1	2	3	4	5
5) 방송을 보고난 뒤 주변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1	2	3	4	5

TV 이용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노인을 배려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는 편이다.	1	2	3	4	5
3) TV를 보며 가족과 대화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4) TV에서 본 내용에 대해 자주 주위사람들과 이야기한다.	1	2	3	4	5
5) TV를 보고 있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	1	2	3	4	5
6)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낸다.	1	2	3	4	5
7) TV를 보고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9. 선생님께서는 최근 한달 동안 다음의 노인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1)

- 2)
- 3)

10. 대체로 텔레비전의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만족 또는 불만족스럽습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2)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3) 그저 그렇다
- 4) 다소 불만스럽다 5) 매우 불만스럽다.

11.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요 (☞ 15으로 이동)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2.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 )

- 1. 정보검색    2. 뉴스를 본다    3. E-mail    4. 금융    5. 카페(동호회)
- 6. 오락    7. VOD (TV 다시보기)    8. 기타 ( )

13. 인터넷 이용 방법을 배운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독학    2. 친지, 지인을 통해서    3. 인터넷 가정방문교사
- 4. 사설학원이나 인터넷교육    5. 노인복지회관    6. 기타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요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	1	2	3	4	5
2) 요즘 여성들은 노출이 너무 심하다.	1	2	3	4	5
3) 성형 수술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4) 젊은이들의 머리염색은 꼴불견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5) 요즘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은 왜 웃기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4. 평소에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귀하께서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없으면, 0이라고 기입해 주세요.

1. 동창회 ( )개      4. 종교모임 ( )개  
 2. 환경/소비자/인권 단체( )개      5. 지역모임, 향우회, 종친회 ( )개  
 5. 사회복지, 자원봉사( )개      6. 온라인상 카페, 클럽 ( )개  
 7. 기타( )

15. 귀하는 하루에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1. 집      2. 경로당, 마을회관      3. 복지센터      4. 노인대학  
 5. 직장      6. 기타 ( )

16. 현재 귀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1. 건강문제      2. 경제력 부족      3. 소외감  
 4. 무기력      5. 가족문제      6. 고민거리 없음  
 7. 기타 ( )



20. 실례지만,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무학(한글 모름) 2. 무학(한글 해독가능) 3. 초등(중퇴, 졸업)  
4. 중등(중퇴, 졸업) 5. 고등(중퇴, 졸업) 6. 대학교이상

21. 실례지만, 귀하의 용돈을 포함한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 )원

22. 현재 또는 예전에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무직 2. 농, 축, 수 산업 3. 자영업 4. 공무원 5. 일용직  
6. 회사원 7. 서비스업 8. 주부 9. 전문기술직 10. 기타 (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부록C. 노인 시청자 심층인터뷰 녹취록

### 1.

성명: 이옥수

나이: 73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거주 형태: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와 동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하루에 4-5시간 정도 본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젊었을 때부터 보지 않았다. 인터넷은 손자 손녀들이나 하지, 전혀 할 줄 모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텔레비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본다. 그런데 바빠서 텔레비전 볼 시간이 별로 없다.

Q: 시청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집안 일 끝내면 2시간 정도 본다. 그 후에는 교회에 나가고, 교회 다녀와서는 경로당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저녁에도 저녁 식사 준비 해놓고 보고, 자기 전까지 본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를 주로 보는 편이다. GTB랑 SBS도 가끔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아침에는 'TV소설' 하고, '아침마당' 같은 거 본다. 저녁을 준비해 놓고는 '6시 내고향' 보고, 집안 일 다 끝나고 나면 8시 30분에 하는 드라마와 9시

뉴스까지 보고 잔다.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주로 오락 프로그램, 특히 이야기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연들이 공감이가고 재미있다. 옛날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 얼마 전에 코미디언 구봉서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참 재미있게 봤다. '6시 내고향'은 항상 보는데,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고 웃고 떠드는 게 재미있다. 아침에 하는 'TV소설'도 좋아하는데, 옛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미있다.

Q: 뉴스를 시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심심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니까 빠뜨리지 않고 본다.

Q: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정치 뉴스에 관심이 크다. 항상 정당들이 싸우고 하기 때문에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치 뉴스가 재미있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주로 그 시간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외에는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액션 영화나 젊은 애들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은 봐도 재미가 없어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막의 글자가 작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영화는 봐도 이해가 안 된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알고는 있지만, 바빠서 못 본다. 일요일 아침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백남봉 쇼는 재밌게 본다.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옛날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하지만 9시 뉴스 끝나면 보통 자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씩 볼 수 있을 때는 재미있게 본다.

Q: 드라마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일단 더 재미있다. 옛날 배우들이 등장하면 무척 반갑고, 연기도 더 잘하는 것 같다.

Q: 드라마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나하고는 처지가 그다지 비슷한 거 같지 않다.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본 생각들은 비슷할 거 같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않으니까, 지금도 괜찮다. 다만 프로그램이 좀 더 재미있으면 좋겠다. 드라마는 그냥 보긴 보는데, 그다지 재미있지가 않다. 또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도 문제다. 가끔은 중간에 보다가 꺼버리는 경우도 있다.

Q: 어떤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것인가?

A: 서로 너무 못되게 군다거나,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걸 말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나이 들면 여기 저기 다 아프니까. 그런 내용들은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글루코사민 광고가 기억에 남는다. 나도 자식들이 사줘서 많이 먹었다.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옛날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옛날 가수나 탤런트들이 나오는 경우가 그다지 없다.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가요무대는 옛날 가수들이 나와서 옛날 노래 불러서 재미있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니까 못 보게 돼서 아쉬웠었다.

## **2.**

성명: 김화자

나이: 77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거주 형태: 아파트에서 독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예전에는 하루 10시간 넘게 봤는데, 지금은 하루에 4-5시간 정도 본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정기 구독했었는데, 지금은 가끔씩 보긴 하지만 정기 구독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은 할 줄 모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고,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 볼 일이 없었다. 나이 들고 일을 관두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텔레비전을 하루에 10시간 정도 봤었다.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외롭고, 손자 손녀들도 나이 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저녁에는 항상 텔레비전을 켜두었었다. 지금은 성당에 나가니까 낮에는 텔레비전을 안 본다.

Q: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주로 저녁에 본다. 아침에는 일찍 성당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마실 나가서 놀기도 하고, 찜질방도 자주 간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을 보게 된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새벽 2-3시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많이 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노인네들이 8시 30분에 하는 드라마는 보는 것 같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드라마를 본 경우도 많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드라마 채널을 주로 보고, KBS 많이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도 좋아한다.

Q: 어떤 드라마를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드라마는 거의 다 본다. 특히 역사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리고 '전설의 고향'도 자주 본다. 요즘 드라마는 너무 나쁜 일만 나와서 교훈이 별로 없는데, 역사 드라마하고 '전설의 고향'을 보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8시 30분에 하는 드라마도 좋아하는 편이다. 요즘은 바빠서 아침에 하는 드라마는 못 본다.

Q: 10시 넘어서 하는 드라마는 어떤가?

A: 가끔씩 보긴 하는데, 재미가 없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서 그럴 것이다.

Q: 코미디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

A: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웃고 떠드니까 그냥 좋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보니 같이 웃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같다.

Q: 뉴스를 시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고 보곤 했는데,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나와서 보기가 싫다. 그리고 뉴스를 봐야할 필요성도 이젠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뉴스 본다고, 뭐가 그리 달라지겠는가.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쇼 프로그램은 안보는 편이다. 교훈이 없어서 그렇다.

Q: 드라마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Q: 어떤 경우가 전혀 다른가?

A: 드라마에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큰소리치고 괴롭히고 하는 것 보면, 어쩔면 자식에게 저렇게 당당할까 생각한다. 나는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편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기죽어 살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은 나도 저렇게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

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글썄, 잘 모르겠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적게 보려고 노력하니까.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필요하고,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아침에 하는 건강체조도 따라 했었다. 치매예방에 관한 것도 나오면 좋을 것이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그냥 지금 크게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살고, 또 이리저리 최소한으로는 돈이 생기니까 별 관심은 없다.

### **3.**

성명: 정청자

나이: 67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거주 형태: 아파트에서 독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보통 5-6시간 정도 보는데, 잠 안 오는 경우는 밤새도록 보는 때도 있다.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낮에는 노인대학도 가야되고, 봉사활동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기 때문에 바쁘다. 텔레비전은 주로 저녁 시간에 본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inet을 자주 본다. 그리고 tvn도 본다. 드라마 채널도 자주 본다. 뉴스는 드문 드문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노래와 춤을 좋아해서 실버예술단에서 활동하는데, 여기서 가요, 민요, 판소리, 그리고 춤을 춘다. 흘러간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inet의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된다. 전국 노래자랑이랑 가요무대도 자주 본다. tvn에 나오는 재미있는 실화들도 좋아하고,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도 자주 본다. 드라마도 좋아한다.

Q: 뉴스나 드라마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주위에서 보는 것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다. 뉴스에서 독거노인들 보면 가슴이 아프다. 드라마에서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게 나오면, 어떤 경우는 비현실적이지만 비슷한 경우도 많다.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노인네는 노인 연금을 자식이 빼앗아 가서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Q: 드라마에 노인들이 많이 등장하면 더 재미있는가?

A: 아무래도 예전 사람들이 나오면 재미있다. 노래도 그렇듯이, 드라마에도 박근형이나 김자옥 같은 텔런트가 나오면 더 재미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라마가 예전만큼 재미가 없다. ‘여로’같은 드라마는 얼마나 재미있었나? 지금도 아침 드라마나 8시 30분 드라마는 재밌게 보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모른다.

Q: 백남봉 쇼나 황혼재혼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는가?

A: 재밌게 보고 있다. 아무래도 백남봉 같은 옛날 코미디언이 나와서 하면 재밌으니까. 예전 코미디언들이 그립다.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다. 춘천에는 명동 지하상가 분수대에 가면 노인네들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등산도 가고 한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례들도 재밌고,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나도 혼자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한 번 출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는가?

A: 장애인이나 나와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기는 한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따라하지, 나는 그냥 보기만 한다. 수명이 130세까지로 늘어날 거라는 말도 있는데,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좀 볼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경제문제에 관심은 많지만,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이랑 모아둔 돈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으니,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 4.

성명: 강재열

나이: 72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거주 형태: 다세대 주택 독거, 기초수급 생활자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보통 2시간 정도 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쓸쓸해서 본다. 혼자 사는데다가,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밖에 잘 못 나간다. 주로 집에 머물러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텔레비전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 특별히 재미있어서 보는 건 아니다.

Q: 그런데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너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A: 별 필요도 없고 돈이 아까워서 케이블을 안 본다. KBS, MBC를 보는데, 그나마도 화면이 흐릿하게 나와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볼만한 프로그램 몇 가지만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특별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별 관심도 없다. 그냥 가요무대나 인간극장, 전국노래자랑을 자주 본다. 가요무대는 옛날 가수들이 나와서

옛날 노래를 부르니까 좋고,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연들도 괜찮다. 전국노래자랑에는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재밌게 노니까, 보면 즐겁다. 송해가 나오는 것도 좋아하는 이유이다. 뉴스는 매일 본다.

Q: 뉴스를 매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아무래도 집에만 있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 뉴스라도 봐야 세상일을 알 수 있다.

Q: 오후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주로 만화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재미가 없다.

Q: 몸이 불편한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아침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던데, 집에서 혼자하는 기도시간이랑 겹쳐서 잘 안 보게 된다.

## 5.

성명: 진복례

나이: 77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거주 형태: 아파트에서 독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하루에 4-5시간 정도 본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보지 않고, 인터넷은 할 줄 모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니까 본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Q: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아침하고 저녁에 주로 본다. 특히 저녁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전까지 계속 텔레비전을 본다.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자주 하지는 않는데,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요즘에는 아침에 하는 TV소설 '큰 언니' 이야기를 많이 한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를 주로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정해져 있다. 아침에는 TV소설, 아침마당, 저녁에는 8시 30분에 하는 드라마하고 뉴스를 본다. 주말에는 전국노래자랑을 항상 보고, 가끔씩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는데, 계속 보지는 않는다. 성당에 다니니까 평화방송도 자주 본다.

Q: 어떤 드라마를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아침에 하는 TV소설이 재미있다. 아무래도 예전 이야기를 하니깐. 근데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보기 싫고,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

Q: 어떤 경우가 그러한가?

A: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너무 심하게 한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미니를 구박하고, 결국에 감옥에 가기도 하는 등등.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하다.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본다. 그래서 재미가 있고, 계속 보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Q: 8시 30분에 하는 드라마나 10시 넘어서 하는 드라마는 어떤가?

A: 8시 30분 드라마는 재밌게 본다. 10시 드라마도 가끔씩 보긴 하지만, 재미가 없다. 드라마가 예전처럼 재미있는 게 없다.

Q: 실버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가?

A: 백남봉 쇼하고 황혼재혼 같은 거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 코미디를 좋아 하는 편인데, 요즘 코미디 프로그램은 전혀 이해가 안돼서 보지 않는다. 옛날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하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 고춘자 장소팔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하지만 요즘 코미디는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거의 보지 않는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예전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었다.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은 어떤가?

A: 이야기는 재미있는데, 별로 공감하지는 않는다. 결혼생활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다시 결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주위에 데이트하는 거 많이 보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Q: 드라마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부관계가 나빠도 텔레비전에서 그려지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여주니까 문제다. 그걸 보고 무얼 배우겠는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예전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옛날 노래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Q: 건강이나 경제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 **6.**

성명: 김향숙

나이: 79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거주 형태: 작은 슈퍼마켓 운영, 독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가게를 보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기는 한다. 하지만 제대로 보는 것은 하루에 3-4시간 정도일 것이다.

Q: 어느 채널의 어느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는 편인가?

A: KBS를 주로 보고, 드라마하고 뉴스를 꼬박꼬박 보는 편이다. 가요무대도 자주 봤었는데, 요즘은 잘 안본다.

Q: 어떤 드라마를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아침 드라마하고 8시 30분에 하는 드라마가 재미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다른 드라마에 비해 이야기가 익숙하고 보기 편하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익숙하다는 것인가?

A: 배우들도 낯익은 사람들이고, 옛날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감이 간다.

Q: 뉴스를 꼬박꼬박 시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뉴스를 주목해서 보는가?

A: 세상일을 알아야 하니까 뉴스를 보고, 주로 정치 뉴스와 경제 뉴스를 본다. 경제 뉴스는 아무래도 가게를 하다 보니까 봐야 된다.

Q: 드라마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Q: 어떤 경우가 그러한가?

A: 나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다. 가게에 붙어 혼자 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옛날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 옛날에 재미

있었던 드라마들이 그렇다. 옛날 가수나 텔런트들도 그렇고.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잘 모르겠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경제 뉴스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당장의 문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Q: 어떤 문제를 말하는가?

A: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도 별로 없고 또 일하려면 뭘 새로 배워야 되는 데 배울 곳도 없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취업 관련해서 정보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면 좋겠다.

## 7.

성명: 지용화

나이: 69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금호 APT 202-304

거주 형태: 아들 내외, 손녀 3, 부인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아침, 저녁으로 2시간 동안 뉴스를 보고 1시간 동안 오전 연속극(큰언니)을 시청한다. 하루에 평균 TV를 3시간동안 시청한다.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아침 9시에 뉴스를 본 후 아침연속극(큰언니)를 시청한다. 저녁에는 9시 뉴스를 시청한다.

Q: 다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몸이 안 좋아 노인복지관에 가서 운동(탁구)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는 TV를 보지 않는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이용하지 않는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뉴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본다. 연속극은 재미 있기 때문에 본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를 주로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저녁 9시 뉴스와 오전 연속극(큰언니)을 주로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뉴스를 가장 즐겨본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는 게 재미있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시간이 없어서 보는 것만 본다.

Q: 뉴스를 시청하는가?

A: 뉴스를 시청한다.

Q: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경제와 정치 뉴스를 관심있게 본다.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뉴스에서 나오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얘기한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알고 있다.

Q: 실버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가?

A: 실버TV는 보지않고 매일 라디오에서 하는 노인 방송을 듣는다(KBS-2라디오에서 오전 4시에 하는 지금은 실버시대).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그런 프로그램도 좋아한다.

Q: 백남봉 쇼나 황혼재혼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는가?

A: 백남봉 쇼는 봤다.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노인들이 아픈걸 보면 나도 나이가 더 들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비슷한 것도 있다. 다들 못 배우고 없이 살고...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나를 비롯한 많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복지관에 다니는데 노인들끼리의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람 사는 얘기나 늙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는가?

A: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를 가끔 보는데 좋은 것 같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하루에 1시간씩 보면 됐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괜찮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사람 사는 이야기나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같은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늙으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특히 허물없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 8.

성명: 서정화

나이: 70세

성별: 여

주소: 경기도 고양시

거주 형태: 16평 오피스텔, 독거(2년 전 아들 며느리에게서 분가)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아침 6시뉴스부터 보기 시작해서 아침마당, 드라마 큰언니, 12시뉴스까지 보고, 낮에는 가까이 사는 딸네 집으로 가서 아이 좀 봐주고, 돌아와서 잘 때 까지 계속 TV를 본다. 하루 10시간~12시간 정도 TV를 켜놓는다. 혼자 사니까.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주로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본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혼자 살면서부터 구독을 안 하는데, 구독료가 부담스러워서. 거의 매일 딸네 집에 가는데 거긴 경제 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곤 한다. 인터넷은 아들네에서 따로 나와서 살면서부터 설치를 안해 못한다. 전엔 직장생활하면서 컴퓨터 잘했는데 이젠 컴맹이다. 딸네 집에 가도 컴퓨터를 하게 되지 않는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TV를 안보면 책 보는 것 밖에 없는데, 돋보기 쓰고 책 보면 머리가 많이 아프다. TV는 보기도 편하고 보면서 혼자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면서 볼

수 있어 훨씬 좋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를 많이 보는데 뉴스는 MBC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MBC를 본다. SBS는 꼭 보는 드라마만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6시내고향, 저녁 8시 반 드라마, 시사토론, 아침마당, 주말연속극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연속극이 재미있다. 근데 여자들이 왜 그렇게 특하면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은지 참 보기싫다. 문제다. 그리고 노인네들도 술 마시고 손잡고 춤추고 노는 게 많이 나오는데 노인네지만 남들 위해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맨날 이혼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만 보여주는데 드라마가 좀 건전했으면 좋겠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별 일도 없고 처녀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꼭 챙겨본다.

Q: 뉴스를 시청하는가?

A: 거의 매일 뉴스를 본다. 이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힘든 때 대통령하느라 고생한다. 그런 생각 하면서 늘 뉴스로 채널이 돌아간다.

Q: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정치뉴스, 요즘 같이 국회에서 싸질만 하는걸 보면 국회의원 세비 나가는 게 아깝다 하면서 본다.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내 친구들은 별로 TV 얘기 하지 않는다. 그래도 저녁 8시 반 드라마 얘기는 좀 한다.우린 다른 할 얘기가 너무 많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케이블을 신청 안 해서 다른 채널은 모른다.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꼭 챙겨본다. 옛날 노래 웅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고, 참 좋다.

Q: 백남봉 쇼나 황혼재혼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는가?

A: 쇼 프로, 오락 프로, 이런 건 잘 안 본다.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황혼재혼은 주위에 보면 끝이 안 좋더라. 남자는 필요하겠지만, 여자는 골치만 아프고 재미없다. 뭐하러 가서 고생하나, 취미 없다.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몇일 전 길병원 원장이 나왔는데, 70도 넘었는데 어찌면 저렇게 젊을까, 좋은 일 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TV에 노인들이 나오면 좀 더 보게 된다.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요새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나 생각하며 본다.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난 죽어라 하면서도 새끼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왔다. 근데 TV에 보면 나오는 요즘 노인 중에는 나 같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건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 그것을 알아주는 자식의 모습이 나오는 따뜻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는가?

A: 아침 마당 같은데 보면 건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열심히 본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노인들이 할게 없다. 자식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 그게 대부분이다. 조금

이라도 활동해서 교통비라도 나오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노인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부터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한다. 설사 돈을 못 벌더라도,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다. 그런 걸 소개해주고 그렇게 건전하고 보람있게 사는 노인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9.

성명: 이인숙

나이: 77세

성별: 여

주소: 서울 강북구 창2동

거주 형태: 아파트. 배우자(할아버지)와 동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아침 3시간, 저녁 5시간 정도. 낮에는 1주일에 3-4일은 외출하니까 잘 못 본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조선일보 구독하고 있고, 인터넷은 모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뉴스 보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교양 프로그램도 보고, 연속극도 재밌으니까 보고 그런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 SBS, MBC, EBS 주로 보는데 케이블 방송으로 70 몇 번까지 나오니까 여기저기 돌리면서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뉴스, 연속극 너는 내 운명, 가요무대, 사극, 주말연속극도 보고.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너는 내 운명, 아내의 유혹, 큰 언니를 재밌게 보는데 사람 인생살이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흘러가고 그런 것들에 호기심이 생기고 재미있고 속상하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며 보게 된다. 옛날 우리 시대에는 울고 나오는 영화가 제일이었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아침 드라마 큰 언니. 삼형제 고생하며 사는 내용인데 어떻게 끝나나 하고 자꾸 보게 된다. 너는 내 운명도 고아로 고생하며 자라 부잣집 시집살이 하는 얘기가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계속 찾아 본다.

Q: 뉴스를 시청하는가?

A: 거의 매일 뉴스 본다. 궁금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서 어떤 거는 알아듣고, 어떤 거는 뭘 소린지 모르고 그러면서 본다.

Q: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다 본다. 스포츠 뉴스까지도.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 보긴 보는데 잘 모르겠다. 재미있으면 보고 아님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니까.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흘러간 노래들 나오는 거 참 좋다. 요즘 노래가 아니니까.

Q: 백남봉 쇼나 황혼재혼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는가?

A: 난 쇼 프로 같은 거 별로 안 본다.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흥미없다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노인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있나?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별로 생각 안 해봤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별로 생각 안 해봤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는가?

A: 보면 뭐하나. 금새 잊어버리는 거. 난 나대로 관리한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이미 많이 있잖은가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뭘 아나... 되는대로 사는거지...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사극

**10.**

성명: 전찬욱

나이: 70

성별: 여

주소: 서울시 도봉구 창2동

거주 형태: 아파트. 독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10-11시간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아침 8시-12시까지, 낮에는 특별히 볼 게 있으면 보고 안그러면 껐다가 저녁 무렵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켜 놓는다. 저녁 식사 후에는 누워서 보다가 자다가 하면서.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중앙일보 구독하는데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인터넷은 배우긴 했는데 고스톱 게임만 할 줄f 알고 다른 건 안 해서 잊어버려 못한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난 드라마를 별로 안본다. 특히 아침 드라마는 전혀 안본다.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데서 교양, 상식, 지식 등을 얻는 게 유익하고 재밌다. 여기저기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연예인 소식을 보더라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낫다. 모든 게 뉴스거리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기본 KBS, MBC, SBS 외에 요리 프로 때문에 EBS도 좀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오전엔 아침마당을 꼭 보고, 저녁엔 6시 내고향, 7-8시대 드라마 좀 보다가 8시나 9시 뉴스 챙겨 보고 다시 10시대 드라마 그때그때 흥미있는 거 돌려가며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얻는 게 많다. 6시 내고향 같은 것도 계절별 시기별 특산물이 소개되는데 시장 볼 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우리말 겨루기 같은 퀴즈 프로그램도 같이 풀면서 나도 하는데 네가 틀리면 되냐 하고 말하면서 재밌게 본다. EBS 요리 프로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꼭 챙겨 보고 새로운 건 적어두었다가 해본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정보가 많고 상식, 교양이 풍부해지니까 유익해서 좋아한다.

Q: 뉴스를 시청하는가?

A: 매일 챙겨 본다.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지.

Q: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스포츠는 관심 없으니까 채널 돌리지만 다른 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어떤 친구들은 모였을 때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얘기하면 잘 통하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거리가 다 다르다. 그때그때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연예인 얘기, 자식 얘기, 남편 얘기...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있다고는 하는데 케이블 기본 채널에는 없는 거 같다. 채널이 많아도 어찌다 돌려보지 잘 보게 안된다.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흘러간 노래 프로 참 좋다. 근데 그것도 어떨 때 딱 맞는 노래들이 나올 때가 있고, 매번 좋은 건 아니다.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그게 어떤 사람은 꽤찮은 케이스가 더러 있기도 하지만 어떤 건 영 아니올시다, 아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서...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아무래도 자기 나이 사람이 나오면 좀 더 마음이 간다. 하지만 노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은가. 배역에 따라 다르지.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이라고 해서 다른 눈으로 보진 않는다. 어떨 때는 아, 그게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가지만, 아니 뭐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때고 있고... 그렇지만 고부간이 나오면 아무래도 며느리보다는 시어머니 입장에 서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내 경우 드라마는 볼 게 없어 하는 수 없이 보게 된다. 건강 관련, 음식, 운동, 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나이 되니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제일 관심사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운동, 음식조절, 식이요법 같은 정보, 교육이 유용하겠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벌겠나?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젊은 애들 노래는 가사도 못알아 듣겠다. 요새 코미디는 도대체가 뭘소린지 재미가 없다. CF도 뭘지 모르겠다. 이젠 젊은애들 프로그램을 잘 못보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옛날 코미디, 불륜이나 잔인하거나 파괴적이지 않은 건전한 내용의 가족 휴먼 드라마, 유익한 정보가 있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이면 좋겠다.

## 11.

성명: 안동주

나이: 77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거주 형태: 아파트. 40대 딸과 둘이서.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4시간 정도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아침 8시 드라마 큰 언니, 아침마당 보고 교회 갔다가 낮에는 전혀 안보고 다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드라마 본다.

Q: 다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낮 시간대엔 볼 게 없어 TV 안보고 거의 기도하고 성서 쓰고 한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아무 것도 안 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그냥 재미로 본다. 내용은 별로 상관없다. 별로 좋은 내용도 없지만 그냥 시간되면 켜고 보게 된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아침드라마 큰 언니, 아침마당, 저녁 8시반 드라마 너는 내 운명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가요무대. 7080콘서트. 노래 좋아해서 듣다가 같이 따라 부르곤 한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아침마당 같은 데 보면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옛날에 미처 몰랐던 거-사랑하는 방법, 자녀를 대하는 태도 등 새삼 배울 게 많아 유익하다. 내가 이미

늙어 진작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야했는데 하는 후회를 하면서도 배우고 싶다. 보면서 책이나 노트에 많이 적는다. 잊어 버리지 않으려고.

Q: 뉴스를 시청하는가?

A: 가끔 본다. 거의 안본다.

Q: 뉴스별로 안보는 이유?

A: 신통한 소식이 별로 없다. 안듣는 게 편하다. 좋은 소식도 없으니... 그래도 궁금해서 가끔 보긴 하는데... 범죄 사건 뉴스같은 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아침마당 같은 데서 배운 사랑하는 법, 아이 잘키우는 방법 같은 걸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 준다. 드라마 줄거리나 주인공 얘기도 많이 한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모른다

Q: 실버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가?

A: 모른다

Q: 백남봉 쇼나 황혼재혼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는가?

A: 전에 본 적은 있는데...잊어버렸다.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때에 따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재혼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인간은 혼자 사는 외로우니까) 실제로는 늙어서 무슨 좋을 게 있겠나 싶다. 그냥 방송에서 나오니까 볼 뿐 별 관심 없다.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혼자 사는 농촌 벽지 노인의 삶을 보면서 장하다, 용감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며 감탄한다. 드라마 엄마가 빨랐다는 볼게 많았다. 요새는 별로

볼 게 없다.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TV에서는 대개 불쌍한 노인이 많다.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지만 가족 특히 부모자식간의 정이 메마르고 차가워졌다. 옛날 노인 같은 따뜻한 정감을 지닌 노인의 모습이 그립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글썄....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노인대학 다니는데 거기서도 많이 배운다.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TV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더는 필요 못느낀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있으면 좋죠. 편하게 놀기만 하니까.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이 많이 심심하고 재미없다.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재미있는 연속극이 있었으면. 엄마가 빨났다처럼 내용이 좋아야 한다. 가족 간의 사랑과 애환 같은 부분에 대해 묘사가 잘된 드라마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드라마는 특하면 때리고 싸우고 시끄러운 게 좋을 리 없다. 좋지 않은 건 안 나오고 좋은 것만 좀 나왔으면 합니다.

## **12.**

성명: 최재순

나이: 76세

성별: 남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거주 형태: 아파트. 배우자(할머니).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하루 4-5시간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아침에는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느라 TV 전혀 못보고, 오후 4시 이후 밤 10시까지 보는데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켜다 껐다 한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매일 구독해서 보고, 인터넷은 못한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할 일도 없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려니 초조하고 심심해서 TV 보게 된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 i-net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뉴스, 연속극, 노래 프로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흘러간 옛날 대중가요 프로그램(가요무대)을 좋아하는데 노래를 워낙 좋아하는데다가 집에서 시간도 넉넉하고 심심하니까 옛날 대중가요 프로를 찾아 보게 된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SBS 6시 드라마, KBS 8시반 드라마를 매일 챙겨 보는데 재미있는데다가 드라마 취미가 있다.

Q: 뉴스를 시청하는가?

A: 시국 돌아가는 거 궁금해서. 특히 경제 관련해서 이 험한 시절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이 많다.

Q: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YTN뉴스 많이 본다. 특히 경제 관련 보도에 관심 많다.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대전에서 이사 와서 여기서는 얘기할 친구가 없다. 매일 헬스 가는데 운동이나 하지 대화는 별로 않는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66번 채널이다. 잘 안다.

Q: 실버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가?

A: 넘버원쇼? 백남봉 나오는 거, 트로트 음악 프로 본다.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많이 본다.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서 아파서 허리 못쓰고 다니는 노인들 이 나왔는데 처량했고 나라면 어떻게하는 생각을 했다.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나도 다리 관절염이 있어 운동하고 나면 많이 아플 때가 있다. 그래서 아픈 노인들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나도 저럴 것인데 하는 마음에 서글프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노인 건강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그것도 좋겠지.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연속극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악역이 많다. 그렇지 않은 드라마가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 전원일기 같은 거 얼마나 훈훈하고 가슴 따뜻하고 좋았나?

**13.**

성명: 서종여

나이: 70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거주 형태: 아파트. 아들, 손녀 동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5시간 정도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TV는 아침 6시뉴스 때 켜는데 보다가 아침 식사 차리고, 식구들 나가고 나서 8시반부터 아침마당 제대로 보고, 집안일(청소, 빨래, 설거지)하고 12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노인정 가서 한나절 있다가(거기선 TV 안봄) 저녁에 돌아와 저녁식사 준비하고 7시뉴스, 8시반 드라마, 9시뉴스까지 보면 끝난다.

Q: 다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집안 일하느라 별로 TV 볼 시간이 없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인터넷은 못하고, 신문은 가끔 얻어 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노인네도 세상 돌아가는 거, 누가 옳고 그른 것도 알아야 하니 뉴스라도 봐야하고, 드라마 같은 데는 고부간 갈등도 있고 느끼는 게 많다,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침마당 같은 프로에 박사님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데 옳은 말만 하시고 그래 바빠도 보는 거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

Q: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국회, 정치 얘기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옹고 그른 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다.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 어떤 운동이 좋은지, 노인식사 등등 TV에서 보고 들은 얘기 해준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들어는 봤지만 보지는 못했다.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별로 안본다.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노인도 할 때는 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운동, 사업, 자선활동에 관심 많다. 특히 봉사하는 거 남 도와주는 거는 나 자신은 못해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TV에서 노인들 운동에 대한 정보, 교육 도움된다.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고부갈등 저 정도까지는 안해야 할텐데, 세대차이가 지나친 거 보면 아니지 싶다.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연속극 시간 맞춰 못보는 사람 있으니까 재방... 특별히 없는 거 같은데... 아침마당 같은 프로 참 좋은 거 같다. 고부갈등, 부부관계, 노인 건강, 음식 정보 같은 거 배울 게 많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손녀 키우는 데 도움 많이 된다. 애 키우는 태도, 방법, 특히 말하는 법을 고치게 되고, 애 교육에 대해서도 배운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는가?

A: 아침마당 후 노인건강에 대해 나온다. 일요일 아침 뽀빠이 아저씨 나오는 노인 건강 장수 프로도 있다. 자식한테 피해 안주고 미리 건강 챙기려고 열심히 보고 배우는 거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요새 국가에서 보인 복지 많이 해주는 거 한달에 8만원씩 주는 데 참 도움이된다. 다들 애들 교육비,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뭐든지 아껴야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위한 복지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좋아졌다. 버림받은 독거노인 참 불쌍하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각 가정에서 노인들을 돌보게 해야 한다고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극단적인 거, 악한 거는 애들한테 안보였으면 한다.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노인이 출연하는 드라마 보기 싫지 않다. 대신 서로 화합하고 좋은 관계의 드라마였으면 좋겠다.

#### **14.**

성명: 김창길

나이: 76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거주 형태: 아파트. 배우자(할아버지), 손자와 동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12시간 정도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7시에 아침 식사하는데 그 전에 켜서 10시 교회 갈 때까지 본다. 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저녁에 5시부터 밤늦게 12시까지 보는 거 같다.

Q: 다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집안 일하느라 별로 TV 볼 시간이 없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아무 것도 안 본다.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보다보면 보고 배울 게 좀 있다. 젊은 가수나 연예인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람들 보면 마음에 들고 보기 좋은 게 있다. 드라마 바람의 나라 같은 건 고구려 역사를 배울 수도 있고 얻는 게 있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 MBC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뉴스같은 거 봐야죠. 아무 것도 모르지만 경제 어렵다는 소리 들을 때마다 답답하긴 하지만 좀 나아졌나 싶어 또 보고 그렇네요. 드라마, 젊은 사람들 나오는 드라마도 보고, 무한도전 같은 것도 재밌게 봐요.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나이든 여자들 노래하는 거 잘 안봐요. 나이 먹었지만 젊은 애들 가수, 텔런트들 나름대로 자기 재주껏 나와서 잘하는 거 보면 재밌다. 무한도전, 바람의 나라. 난 사극을 좋아한다.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아침드라마 큰언니 보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얘기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 같다.

Q: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뉴스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뉴스 나오는 건 서로 트러블 있는 것밖에 없으니... 그냥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달해주는 것만 본다. 나라 경제가 떨어지니까 신경 쓰인다. 아이들 세대가 잘 살아야 할텐데 걱정이다.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중요한 건 서로 얘기 나눈다. 보면서 기분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안좋은 뉴스 들으면 안타까워 하며 얘기 나눈다. 다른 TV 프로 얘기는 별로 안한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전혀 모른다.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더러 보긴 한다. 난 전국노래자랑은 싫다. 안본다. 그보다는 요새 젊은 애들 노래 프로 잘 본다. 그리고 장구 타령 같은 것도 싫어한다.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뭐 잘살건 못살았건 황혼이혼 하잖아요? 근데 이혼한 데서 끝나야지 나이 들어 재혼하는 거 잘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남은 세상 혼자 깨끗이 살 것이지 ...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노인네들 나와서 건강 운동한다고 설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어짜피 나이 먹은 거 운동을 하건 않건 제 명대로 살다 가는 거지 구태여 유난스럽게 요란떨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난 내 건강 지키기 위해 하루 얼마씩 걷고 그런다. 그럼 되는 거지 뭘...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내 나이 된 사람들 아무리 TV에 잘 차려 입고 나와도 나이 속일 수 없다. 자기 나이대로 보여주고 하면 되는 거지 난 꾸미는 거 별로다. 드라마에서 노인 역 하는 연기자들 참 잘한다. 자기 나이 맞게 나이 든 모습 보여주면서 어른 노릇 잘하는거 존경스럽다. 정월일기나 엄마가 뿔났다 같은 데 나오는 노인들 얼마나 보기 좋은가.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아무리 그래봤자 노인이지. 나이에 맞게, 노인에게 맞는 방송이어야 한다. 너무 꾸미지 말고 나오고. 노인들 젊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노인이라고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잘 지내는 모습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는가?

A: 노인네들 체조 가르치고 이따금 나오잖아요. 난 나대로 그냥 건강 챙기며 산다.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자식 있어도 혼자 따로 사는 노인들 많잖아요. 따로 나와 살아도 잘사는 자식 있는 집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모르고 그런 집까지 돌볼 필요는 없는 데... 그렇잖아도 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거 잘 알아서 있는 집은 괜히 지원해줄 필요 없으니까...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노인들이 경로당 가고 하지만 젊은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프로가 있었으면 해요. 노인 젊은 사람 위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프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 15.

성명: 류만춘

나이: 71세

성별: 여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거주 형태: 아파트. 독거.

Q: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A: 5-6시간 정도

Q: 주로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오전에 3-4시간, 낮엔 전혀 안보고, 저녁엔 7시부터 9시반까지 본다.

Q: 다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낮엔 집에 없어 TV 볼 시간이 없다.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책 보고 그러지 TV 안본다

Q: 신문이나 인터넷은 이용하는가?

A: 신문은 딸네 가면 좀 보는 정도.

Q: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A: 뉴스도 좀 보고 연속극 재미있으면 보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

까 심심하다. 좋은 연속극 재미 붙이면 챙겨서 보게 되고 그런 것 같다.

Q: 어느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가?

A: KBS, MBC, SBS 다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가?

A: 연속극, 뉴스, 노래-홀러간 노래 나오는 프로 본다

Q: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음악 프로-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노래를 좋아하니까.

Q: 항상 고정된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는가?

A: SBS 저녁 8시 15분 드라마. 시어머니 구박 재밌다.

Q: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가?

A: 매일 본다. 경제, 정치 뉴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야 하니까. 경제가 잘되어야 우리도 좋으니까.

Q: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A: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살게 구는 것도 얘기하고 그런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A: 봤다. 재밌던데...

Q: 실버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가?

A: 노인네들 나와서 즐겁게 스포츠댄스 하는 거 봤다. 늙어도 참 멋있게 사는구나 했다.

Q: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A: 나이 먹었으니까 아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

Q: 백남봉 쇼나 황혼재혼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는가?

A: 그전엔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별로 안본다. TV 돌리다 나오면 보긴 하는데..

Q: 황혼재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가끔 본다. 어떤 건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저렇게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한다.

Q: TV에 노인들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A: 노인들이 멋지게 사는 거 보면 좋다. 늙어서도 멋있구나, 80 넘어도 저렇게 운동을 잘하고...

Q: TV 속 노인들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A: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멋지게 사는데 나는 못그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Q: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A: 즐겁게 사는 거 보여주는 프로가 좋더라 . 노래하면서, 댄스하면서, 게임도하고...

Q: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는가?

A: 걷고 뛰고 많이 보고 듣고 배우려고 한다. 어제도 목욕탕에서 72세 된 사람이 요가를 어찌나 잘하던지 멋있어 보였다. 그 사람 말이 연습하면 다 된다고 그러더라. 늙어도 건강 지키며 살 수 있게 자꾸 보고 배우고 따라 하면 좋으니까.

Q: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은가?

A: 있는 사람은 멋지게 사는 거고, 없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사는거다.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사는 동안 건강 지키며 열심히 살면 되는거지...

Q: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A: 며느리와 며느님, 엄마가 빨났다 같이 내 또래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참 재밌다. 지나온 세월도 돌이켜 볼 수 있고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 나이 먹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 노래도 나이먹은 사람이 좋아하는 프로가 나오는 프로가 많았으면 한다.

## 부록D. 노인 프로그램 제작 전문가 심층인터뷰 녹취록

### 1.

성명: 백중문

직위: 문화방송 편성부장

Q: 문화방송은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타방송사보다 1개가 더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현재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늘 푸른 인생>과 <고향은 지금>이 있는데, <고향은 지금은>은 처음에는 고향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자층에 노인층이 많아서 시청자층에 맞춰서 노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Q: 노령층 시청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가.

A: 시청률 분석에서 60세 이상으로만 잡아서 분석하기 때문에 그 이후 노령층에 대해 세분화된 분석은 없다. 다만, 현재 인구분포에서 50대층 시청자들이 많아 이들이 노령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우리나라 노인층은 외국과 성격이 달라 보이는데....

A: 그런데 한국 노인들은 소득이나 자산 기반 없어 구매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소외 계층 비슷한 처지이다. 장기적으로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러하므로 방송사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Q: 노령층 시청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요즘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불평이 많다.

A. 방송이 광고수입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층이 중요한 것

이 사실이다. 광고주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이 노인 텔레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Q. 지상파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다루고 오락 편중이 심한 것 같다. 시청률을 의식한 것인가.

A. 그 시간대는 시청률을 의식하는 시간대는 아니다. 노인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라도 밝고 희망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Q. 노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영방송 역할론이 있다.

A. 문화방송의 경우는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KBS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Q. 노인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이나, 정책적인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하다. 방통위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비의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 프로그램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노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할 수 있는 노인 프로그램들이 신설되고 제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 2.

성명: 김경원

직위: 강원민방 편성팀장

Q: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역 방송 프로그램도 그만큼 노인 대상의 성격이 많겠다.

A: 지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노인 타겟이 들어가 있다. 매일 뉴스, 매거진을 제외한 휴먼 다큐, 교양 프로그램은 노인층이 주요 대상 시청자로 포함돼 있다. 장수무대와 같은 쇼 같은 프로그램 말고는 지역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지역 시청률 조사 분석을 보면, 전형적인 노년층 시청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KBS <가요무대>가 방송될 때는 다른 세군데 방송사 드라마 시청률 보다 높다. <나이트 라인> 시청대에 다른 10대 쇼 편성해도 뉴스 프로그램인 <나인트 라인>의 시청률이 높다. 지역 노령층들이 뉴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Q: 노인들이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A: 제작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지역에 노인이 많다고 하지만 지역 방송이 모두 노인 프로그램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지역 민영방송은 휴먼 다큐 정도를 주로 만드는데, <사람사는 세상> <전국탐10 가요쇼> (공동제작)이 노인대상 프로그램인 셈이다. <생방송 투데이> 등 교양 프로그램은 전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오락 프로그램이 특별히 노인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데, 지역 방송사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는 거다. 대구나 부산의 지역민방은 대도시니까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민방의 경우는 엄두를 내기가 힘들다.

Q: 방통위에서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가.

A: 어린이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이 어린이나 노인 문제를 주제로 다룬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이 보는 프로그램이 기준인 것 같다.

평가 항목에서 그전에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프로그램을 평가해 줬는데, 금년부터 평가부터 '어린이' '장애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노인 프로그램도 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익성 평가 때는 가점을 해 줘야 한다.

노인 프로그램의 경우는 소외계층 프로그램 제작 지원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제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Q: 노인 프로그램 제작시 어려운 점은.

A: <사람사는 세상> 등 노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노인들이 출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노인 본인이 쉽게 출연을 승낙하는데, 가족들, 특히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반대가 많아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Q: 노인 프로그램이 정작 노인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지역방송이라고 해도 지상파에서 노인만을 다루고 노인만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장애와 문제를 풀어 나가게 도와주듯이 노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스로 풀어나가게 만드는 노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도 중앙사에서 현실적으로 맡아줘야 한다. 지역방송에서는 특집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중앙사에서 해야한다. ..

Q: 노인 프로그램에 관한 공영방송 역할론에 대해서는..

A: KBS 1TV 등 공영방송이 일정정도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채널까지 그 역할 강제하는 것은 문제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권장 사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 3.

성명: 노태훈

직위: 실버TV CEO

Q: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방향 혹은 방송 지표는 무엇인가?

A: 노인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첫 번째는 건강문제이다. 질병을 예방,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는 경제문제이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감소하니까 빈곤이 큰 문제가 된다. 노인들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나 소외 문제이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식들과 분가할 경우, 단란한 노후를 보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이 큰 문제가 된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노인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빈곤문제나 건강문제는 방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세 번째, 즉 외로움을 달래주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Q: 실버TV를 알고 시청하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A: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약 1,000만 가구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보다 실버TV를 시청하는 노인의 비중이 더 크다. 사실 지상파는 노인의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다.

Q: 실버TV라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즉 노인 프로그램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A: 사실 노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니, 광고 수입도 크지 않다. 2005년 개국

이후 거의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150억 정도가 투입됐고, 현재 적자도 대부분 사채를 출연해 메우고 있다. 하지만 2011년쯤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Q: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A: 외부로부터의 기부나 협찬은 거의 없다. 채널의 브랜드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판매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시청료 수입과 광고 수익이 전부인데, 비율로 보자면 SO에서 분배하는 라이선스 fee가 20% 정도, 광고 수익이 80% 정도 된다. 다른 케이블 채널에 비해 라이선스 fee 비율이 5% 정도 높다.

Q: 광고는 잘 들어오는가?

A: 실제 광고가 별로 없다. 노인 프로그램의 주 광고주는 실버산업이 돼야 하는데, 실제 한국의 실버산업이 허상이다.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다. 노인의 구매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로 인맥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정도이다. 그나마 보험이나 상조회사 광고는 꾸준한 편이다.

Q: 정부의 지원이 절실할 것 같은데.

A: 일단 민간이 하면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실버TV가 공익채널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의무사항에 비해서 혜택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기본 채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채널로 공익채널이 둘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SO입장에서는 그 중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점유율이 50%밖에 안된다.

Q: 가장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A: 우리의 경우 자체 제작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를 많이 지원해줬으면 한다.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제작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제작 지원비가 3억 원 정도 된다. 주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것인데,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 4.

성명: 엄주태

직위: 실버TV 제작부장

Q: 지상파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실버TV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지상파는 노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화재거리에 집착한다. 아마도 시청률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노인의 시각에서 접근한다. 또한 노인들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문제들인 외로움 문제, 경제적 빈곤 문제,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해주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Q: 자체 제작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A: 정규직원인 22명이고, 몇몇 프로그램은 외주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 단체나 기업과 연계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예를 들면 ‘원더풀 IT 세상’의 경우 KT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다.

Q: 프로그램에 제작에 필요한 외부 인적 자원은 충분한가? 예를 들면 노인 전문가와 같은.

A: 그 부분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주로 노인 상담 전문가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과 같이 현장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단체들도 제작에 다양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Q: 미국의 노인 전문 채널 RLTV의 경우 예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

더라.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이제 다양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

A: 사실 지금도 노인들은 다양하다. 노인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따라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다르다. 미국의 예도 들었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층은 많이 다르다. 베이비 부머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교육수준도 높고, 여전히 사회를 주도하는 연령층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노인층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변화된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할 예정이다. 사실 댄스 프로그램의 경우도 몇 년 지나서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앞당겨 제작했다.

Q: 시청자 조사는 하는가? 그 결과는 어떤가?

A: 정기적으로 하는 편이다. 시청자들이 직접 전화해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많다. 대체로 오락에 대한 요구가 많다. ‘백남봉쇼’나 ‘황혼 재혼’의 시청률도 높고. 하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Q: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사소한 것으로는, 출연자들이 노인들이다보니 제작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힘들어 한다.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도 잦은 편이다.

Q: 노인 프로그램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가?

A: 지상파는 시장 경쟁 문제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다. 의무적으로 노인 프로그램을 강제할 경우 편성권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일정 정도 이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말했

듯이,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점차로 다양화되고 있고, 그 양도 많아져야 되는데, 지상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전문화된 채널로서 케이블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Q: IPTV의 경우 어떤가?

A: IPTV의 경우 노인들의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나도 지금 집에서 IPTV를 보고 있는데, IPTV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한달 이상 걸렸다. 노인들은 리모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노인들이 IPTV 시청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넘을 수 없는 장벽같은 것인데, 그래서 IPTV가 근본적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본다.

Q: 실버TV와 같은 노인 전문 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A: 결국 제작비 지원이 아니겠는가?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차로 증가하는데, 미디어 시장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공적인 부문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공익 채널로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 **5.**

성명: 임은정

직위: 실버TV 편성팀장

Q: 주간 편성표를 봤는데, 같은 시간대에 요일별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편성의 일관성이 잘 안 보인다.

A: 우리같은 경우 지상파 방송처럼 6개월 단위로 편성계획을 잡기 힘들다. 제작 여건, 특히 비용 문제 때문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띠편성, zone 편성 개념으로 간다. 시간대별로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가령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음악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한다.

Q: 미국의 노인 전문 채널인 RLTV를 보니 재방송 비율이 상당히 높던데, 실버TV는 재방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A: 재방송을 내보내면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나 시청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재방송이 본방송보다 더 많은 채널이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공익 채널로 지정됐기 때문에 본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있다.

Q: RLTV와 실버TV를 비교해 봤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먼저 실버TV의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던데.

A: 건강 프로그램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노인 체조 프로그램 정도밖에 없다. 앞으로 늘릴 계획이다.

Q: 반면 실버TV는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 실버테인먼트의 경우 오락과 교양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가령 ‘웰 위 댄스’의 경우 오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건강 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고, 교양으로 볼 수도 있다.

## 부록E. 실버TV 편성표

실버TV 주간 편성표(2008. 12. 1 ~ 7)

12월 1일 월요일				
시간	프로그램 명	본/재방	방영시간	장르
05:00	시니어 건강체조	본방	30분	건강
05:40	아름다운 사람들	재방	30분	교양
06:20	희망리포트-공감	재방	30분	교양
07:00	시니어리더를 만나다	본방	55분	교양
08:00	보면 약이되는 TV	본방	50분	건강
09:00	소외극복 프로젝트 - 황혼재혼	재방	50분	교양
10:00	신바람 노래교실	본방	50분	음악
11:00	백남봉쇼	재방	50분	오락
12: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음악
13: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육
14:00	실버다큐세상	본방	50분	다큐
15:00	국악한마당	본방	20분	음악
15:30	명장성공스토리	재방	20분	교양
16:00	실버TV특집 - 세대공감쇼	본방	50분	특집
17:00	실버TV특집 - 세대공감쇼	본방	50분	특집
18:00	원더풀 IT 세상	본방	30분	교양
18:4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19:20	사람,사람이 좋다	재방	30분	교양
20:00	전통문화 재발견	본방	50분	교양
21:00	김상희의 뮤직토크쇼	재방	50분	오락
22: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오락
23: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양
00:00	세계영화기행	본방	50분	다큐
01:00	TV시간여행	본방	30분	교양
01:40	SILVER-라이브토크쇼	재방	50분	오락
02:40	실버극장-추억의 명화	본방	80분	영화
04:10	원더풀 IT 세상	재방	30분	교양

12월 2일 화요일				
시간	프로그램 명	본/재방	방영시간	장르
05:00	파워특강	본방	50분	교양
06:00	고령화사회프로젝트-동행	재방	30분	교양
06:4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07:20	아름다운 사람들	재방	30분	교양
0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5분	음악
09:00	신바람 노래교실	본방	50분	음악
1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11:00	가요무대	본방	50분	음악
1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본방	50분	특집
13:00	김상희의 뮤직토크쇼	본방	50분	오락
14:00	전통문화 재발견	본방	50분	교양
15:00	실버클리닉	본방	30분	건강
15:40	고령화사회프로젝트-동행	본방	30분	교양
16:20	세상속으로	본방	20분	다큐
16:50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	30분	교양
17:30	희망리포트-공감	본방	20분	교양
1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0분	음악
19:00	신바람 노래교실	재방	50분	음악
2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21: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음악
2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재방	50분	특집
23:00	김상희의 뮤직토크쇼	재방	50분	오락
00:0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00:40	SILVER-라이브토크쇼	본방	50분	오락
01:40	전통문화 재발견	본방	50분	교양
02:40	행복한 새출발-인생 제2막	본방	40분	교양
03:30	준고령자 능력개발	본방	30분	교육
04:10	TV창업 성공이 보인다	본방	30분	교양

12월 3일 수요일				
시간	프로그램 명	본/재방	방영시간	장르
05:00	보면 약이되는 TV	본방	50분	건강
06:00	희망리포트-공감	본방	30분	교양
06:4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07:20	명장성공스토리	본방	30분	교양
0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5분	음악
09:00	원더풀 IT 세상	본방	30분	교양
09:40	신문고를 올려라	본방	20분	교양
1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11:00	가요무대	본방	50분	음악
1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본방	50분	특집
13:00	백남봉쇼	본방	50분	오락
14:00	보면 약이되는 TV	재방	50분	건강
15:00	기차타고 세계여행	본방	30분	다큐
15:40	희망리포트-공감	본방	30분	교양
16:20	세상속으로	본방	20분	다큐
16:50	명장성공스토리	본방	30분	교양
17:30	사람,사람이 좋다	본방	20분	교양
1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0분	음악
19:00	원더풀 IT 세상	재방	30분	교양
19:40	신문고를 올려라	재방	20분	교양
2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21: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음악
2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재방	50분	특집
23:00	백남봉쇼	재방	50분	오락
00:0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00:40	사이언스 어드벤처	본방	50분	다큐
01:40	쇼!스타출발	본방	50분	음악
02:40	생명시대	본방	40분	다큐
03:30	제2의 인생 아름다운 실버	본방	30분	정보
04:10	TV창업 성공이 보인다	본방	30분	교양

12월 4일 목요일				
시간	프로그램 명	본/재방	방영시간	장르
05:00	보면 약이되는 TV	본방	50분	건강
06:00	희망리포트-공감	본방	30분	교양
06:4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07:20	명장성공스토리	재방	30분	교양
0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5분	음악
09:00	셀위댄스	본방	50분	교육
1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재방	50분	교양
11:00	빅쇼	본방	50분	음악
1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본방	50분	특집
13:00	백남봉쇼	본방	50분	오락
14:00	보면 약이되는 TV	재방	50분	건강
15:00	기차타고 세계여행	본방	30분	다큐
15:40	희망리포트-공감	본방	30분	교양
16:20	세상속으로	본방	20분	다큐
16:50	명장성공스토리	본방	30분	교양
17:30	사람,사람이 좋다	본방	20분	교양
1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0분	음악
19: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육
2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재방	50분	교양
21:00	빅쇼	본방	50분	음악
2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재방	50분	특집
23:00	백남봉쇼	재방	50분	오락
00:0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00:40	아시아 영화기행	본방	50분	다큐
01:40	김상희의 뮤직토크쇼	재방	50분	오락
02:40	생명시대	본방	40분	다큐
03:30	제2의 인생 아름다운 실버	본방	30분	정보
04:10	실버 직업 정보	본방	30분	정보

12월 5일 금요일				
시간	프로그램 명	본/재방	방영시간	장르
05:00	특별한 만남	본방	50분	교양
06:00	전통문화교실	본방	30분	정보
06:40	TV시간여행	본방	30분	교양
07:20	행복한 도전	본방	30분	교양
0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5분	음악
09:00	셀위댄스	본방	50분	교육
1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11:00	빅쇼	본방	50분	음악
1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재방	50분	특집
13:00	사랑 음악회	본방	50분	음악
14:00	특별한 만남	재방	50분	교양
15:00	기차타고 세계여행	본방	30분	다큐
15:40	전통문화교실	본방	20분	정보
16:10	TV시간여행	재방	40분	교양
16:50	행복한 도전	본방	30분	교양
17:30	명사의 고향	본방	20분	정보
18:00	아이러브 트로트	본방	50분	음악
19: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육
2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21:00	빅쇼	재방	50분	음악
22: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재방	50분	특집
23:00	실버 스타 베스트쇼	본방	50분	오락
00:00	TV시간여행	재방	30분	교양
00:40	아시아 영화기행	본방	50분	다큐
01:40	사랑 음악회	재방	50분	음악
02:40	생명시대	본방	40분	다큐
03:30	도전,새로운인생	본방	30분	교양
04:10	실버직업정보	본방	30분	정보

12월 6일 토요일				
시간	프로그램 명	본/재방	방영시간	장르
05:00	시니어 건강체조	본방	30분	건강
05:40	아름다운 사람들	재방	30분	교양
06:20	희망리포트-공감	재방	30분	교양
07:00	시니어리더를 만나다	본방	55분	교양
08:00	보면 약이되는 TV	본방	50분	건강
09: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10:00	신바람 노래교실	재방	50분	음악
11:00	백남봉쇼	재방	50분	오락
12: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음악
13: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육
14: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재방	50분	다큐
15:00	국악한마당	본방	20분	음악
15:30	명장성공스토리	재방	20분	교양
16:00	실버TV특집 - 세대공감쇼	본방	50분	특집
17:00	실버TV특집 - 세대공감쇼	본방	50분	특집
18:00	원더풀 IT 세상	재방	30분	교양
18:4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19:20	사람,사람이 좋다	재방	30분	교양
2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21:00	스타가요쇼	재방	50분	음악
22: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음악
23: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육
00:00	세계영화기행	본방	50분	다큐
01:00	TV시간여행	재방	30분	교양
01:40	SILVER-라이브토크쇼	재방	50분	오락
02:40	동북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본방	20분	다큐
03:00	동북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본방	20분	다큐
03:30	세미나, 포럼	본방	40분	교양
04:20	원더풀 IT 세상	재방	30분	교양

12월 7일 일요일				
시간	프로그램 명	본/재방	방영시간	장르
05:00	시니어 건강체조	본방	30분	건강
05:40	아름다운 사람들	재방	30분	교양
06:20	희망리포트-공감	재방	30분	교양
07:00	시니어리더를 만나다	본방	55분	교양
08:00	보면 약이되는 TV	본방	50분	건강
09: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10:00	신바람 노래교실	본방	50분	음악
11:00	백남봉쇼	재방	50분	오락
12: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음악
13: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육
14:00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재방	50분	다큐
15:00	국악한마당	본방	20분	음악
15:30	명장성공스토리	재방	20분	교양
16:00	실버TV특집 - 세대공감쇼	본방	50분	특집
17:00	실버TV특집 - 세대공감쇼	본방	50분	특집
18:00	원더풀 IT 세상	본방	30분	교양
18:40	세상속으로	본방	30분	다큐
19:20	사람,사람이 좋다	재방	30분	교양
20:00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	본방	50분	교양
21:00	김상희의 뮤직토크쇼	재방	50분	음악
22:00	가요무대	재방	50분	음악
23:00	셀위댄스	재방	50분	교육
00:00	세계영화기행	본방	50분	다큐
01:00	TV시간여행	본방	30분	교양
01:40	SILVER-라이브토크쇼	재방	50분	오락
02:40	실버극장 - 추억의 명화	본방	80분	영화
04:20	원더풀 IT 세상	재방	30분	교양

## 부록F. RLTV 편성표

Retirement Living TV (RLTV) 주간 편성표(2008. 12. 1 ~ 7)

2008년 12월 1일 월요일		
시간	프로그램 제목	주요 내용
5: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6: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6: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7:0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8: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9:00	Living Live!	노년의 활기찬 삶을 소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10:00	Healthline	건강 관리법 소개 프로그램
10: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2: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3: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3:30	Healthline	건강 관리법 소개 프로그램
14:0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5:00	AARP Inside E Street	건강, 재정적 안정, 은퇴 관련 뉴스 토크쇼
15: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6: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7:30	Healthline	건강 관리법 소개 프로그램
18: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9: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9:30	Healthline	건강 관리법 소개 프로그램
20: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21: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22: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23: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2008년 12월 2일 화요일		
시간	프로그램 제목	주요 내용
0: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2: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3: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4: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5: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6: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7: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8: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9:00	Living Live!	노년의 활기찬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10: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0: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2: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3: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13: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4: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5:00	AARP My Generation	정보 제공 종합 TV매거진
15:3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6: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7: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8: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9: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19: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0: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21: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22: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22: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3: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2008년 12월 3일 수요일		
시간	프로그램 제목	주요 내용
0: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3: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4: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4: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5: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6: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8: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9:00	Living Live!	노년의 활기찬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10: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0: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2: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3: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3: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4: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5:00	AARP My Generation	정보 제공 종합 TV매거진
15: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6: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7: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8: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9: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9: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20: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20:3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21: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22: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23: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23:3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2008년 12월 4일 목요일		
시간	프로그램 제목	주요 내용
0: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2: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2:3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3: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4: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5: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5:3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6: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7: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8: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9:00	Living Live!	노년의 활기찬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10: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0: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2: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3: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13: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4: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5:00	AARP My Generation	정보 제공 종합 TV매거진
15:3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16: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7: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8: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9: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19: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0: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21: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22: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22: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3: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시간	프로그램 제목	주요 내용
0: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3: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4: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4: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5: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6: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8: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9:00	Living Live!	노년의 활기찬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10: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0: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2: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3:0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13: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4: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15:00	AARP Inside E Street	뉴스 토크쇼
15:30	The Prudent Advisor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16: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7: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8: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9:0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19: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20: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20: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21: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22: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22: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3: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23: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2008년 12월 6일 토요일		
시간	프로그램 제목	주요 내용
0: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2: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3: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4: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4: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5: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5: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6: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7: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8:00	The Voice	건강 관리 요법 소개 프로그램
9: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0: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2: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13: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13: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4:00	Living Live!	노년의 활기찬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15: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6: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7:0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7:30	My Town	자기가 사는 곳 소개(생활, 여행정보)
18: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19: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20:00	The Voice	건강 관리 요법 소개 프로그램
21: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21: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22: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23:00	The Voice	건강 관리 요법 소개 프로그램

2008년 12월 7일 일요일		
시간	프로그램 제목	주요 내용
0: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0: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1: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2:00	The Voice	건강 관리 요법 소개 프로그램
3: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3: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4: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5:00	The Voice	건강 관리 요법 소개 프로그램
6: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6:30	Chance for Romance	데이트 주선 프로그램
7: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8:00	The Voice	건강 관리 요법 소개 프로그램
9: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0:00	Daily Cafe	시사 뉴스 해설 프로그램
1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11:3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12: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13:00	My Town	자기가 사는 곳 소개(생활, 여행정보)
13: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14:00	Living Live!	노년의 활기찬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15: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6:00	The Daily Apple	건강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TV매거진
17:00	What's Next?	노인 문제 컨설팅 프로그램
18:00	The F. Henderson Show	할리우드 추억의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19:0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19:30	Retired & Wired	최신 기술을 소개는 교육 프로그램
20: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21:0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21:30	Healthline	건강 관리 프로그램
22:00	The Art of Living	성공적인 노년 인생 소개 프로그램
22:30	Encore with John Palmer	사회 저명인사 초청 토크쇼
23:00	Viewpoint	노인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방송통신위원회 자유 2008-07

##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정책방안 연구

---

**발행일** 2008년 12월(비매품)  
**발행인** 최시중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or.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

---